연구보고서 2024-03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효과 분석

## : 국공립어린이집의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분석

나원희
이아영·하솔잎·김송이·박윤현·황안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 | | |
|---|---|---|
| 연구책임자 | **나원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진 | **이아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 **하솔잎**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 **김송이** | (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 | **박윤현** | 명지대학교 교수 |
| | **황안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



연구보고서 2024-03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효과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의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분석

| | |
|---|---|
| 발 행 일 | 2024년 3월 |
| 발 행 인 | 이 태 수 |
| 발 행 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주 소 |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br>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
| 전 화 | 대표전화: 044)287-8000 |
| 홈페이지 | http://www.kihasa.re.kr |
| 등 록 |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
| 인 쇄 처 | ㈜에이치에이엔컴퍼니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ISBN 979-11-7252-020-5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4.03

# 발|간|사

최근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복지 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단순한 경제적 지표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성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투자 대비 사회적 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정책 입안자와 관련 기관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SROI 연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번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나원희 부연구위원의 책임 아래 이아영 연구위원, 하솔잎 부연구위원, 황안나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외부 전문가로 김송이 연구위원, 명지대학교 박윤현 교수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SROI 산출을 위해서 대리지표 개발과 산출, 검증 과정에 도움을 주신 보육 및 육아 정책, 공공보육 시설 등 관련 전문가 총 10명과 지불의사법에 따른 질문지 작성에 도움을 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홍근석 연구위원, FGI 작성에 도움을 주신 한국교육개발원 우선영 연구위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견을 주신 원내 고제이 연구위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안우진 연구위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 보고서가 향후 관련 분야의 발전과 정책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24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 목 차



**요 약** ····· 1

**제1장 서론** ·····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1

**제2장 사회복지 분야 성과평가 방법** ····· 13

제1절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특성 ····· 15

제2절 사회복지 분야 성과평가와 한계점 ····· 22

제3절 사회적투자수익률 분석 방법 ····· 34

제4절 소결 ····· 48

**제3장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분석** ····· 51

제1절 분석 대상 ····· 53

제2절 현황 분석 ····· 63

제3절 기존 성과지표 분석 ····· 72

제4절 소결 ····· 79

**제4장 성과지표 개발** ····· 81

제1절 이해관계자별 초점집단 인터뷰 실시 ····· 83

제2절 신규 성과지표 분석 ····· 104

제3절 소결 ····· 136

**제5장 사회적투자수익률 분석** ····· **139**

제1절 성과지표 맵핑 ····· 141

제2절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 ····· 146

제3절 소결 ····· 157

**제6장 결론** ····· **161**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163

제2절 제언 ····· 166

**참고문헌** ····· **169**

**부록** ····· **175**

[부록 1] 영유아 양육기관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 ····· 175

[부록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관련 초점집단 인터뷰 ··· 197

**Abstract** ····· **203**

# 표 목차



〈요약 표〉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 ····· 3
〈표 1-1〉 연구 흐름도 ····· 12
〈표 2-1〉 국고보조금 ····· 16
〈표 2-2〉 연도별 국고보조금 추이 ····· 16
〈표 2-3〉 분야별 국고보조금 추이 ····· 17
〈표 2-4〉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국고보조금 추이 ····· 18
〈표 2-5〉 내역사업별 예산 상위 Top 10 ····· 19
〈표 2-6〉 연도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추이 ····· 21
〈표 2-7〉 연도별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추이 ····· 21
〈표 2-8〉 최근 3년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 연장평가 사업 ····· 25
〈표 2-9〉 평가 항목 ····· 26
〈표 2-10〉 보조사업 연장평가 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사업 평가 결과 ····· 28
〈표 2-11〉 예비타당성조사 변천 과정 ····· 30
〈표 2-12〉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요 ····· 31
〈표 2-13〉 논리 모형과 사회성과의 측정 ····· 35
〈표 2-14〉 SROI 분석 단계 ····· 38
〈표 2-15〉 주요 이해관계자 식별과 변화 확인 ····· 40
〈표 2-16〉 [2단계] 투입(Input)-결과(outcome) 맵핑 ····· 41
〈표 2-17〉 [3단계] 결과를 명시하고, 가치를 부여 ····· 43
〈표 2-18〉 4단계 ····· 45
〈표 2-19〉 4단계(계속) ····· 46
〈표 2-20〉 SROI를 활용한 야간보호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 47
〈표 3-1〉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해당 사업(사회복지 분야) ····· 54
〈표 3-2〉 보육지원 강화 사업의 목표-배경-전략-성과지표 ····· 59
〈표 3-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액(2013~2017: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 시기) ····· 60
〈표 3-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액(2018~2022: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 시기) ····· 61
〈표 3-5〉 지자체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조사업 내역(지자체 일부 예시) ····· 62

〈표 3-6〉 전체 어린이집 현황(2022년 12월) ····· 64
〈표 3-7〉 시기별 국공립어린이집 수와 증감률 ····· 65
〈표 3-8〉 2022년 지자체별 전체 어린이집 현황(2022.12.31. 기준) ····· 67
〈표 3-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 추이 ····· 68
〈표 3-10〉 2022년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2022.12.31. 기준) ····· 69
〈표 3-11〉 어린이집 유형별 장애아 현원(2022) ····· 70
〈표 3-12〉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가구의 맞벌이 여부(2021) ····· 71
〈표 3-13〉 어린이집 유형별 교직원 1인당 아동 수(2022) ····· 73
〈표 3-14〉 어린이집 유형별 교직원 평균 경력 ····· 73
〈표 3-15〉 2021 초임 교사 기본급, 제수당, 총액 ····· 75
〈표 3-16〉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2022.12.31. 기준) ····· 76
〈표 3-17〉 연령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 77
〈표 3-18〉 1-5세 연간 입원율 및 2주간 외래이용률 ····· 77
〈표 3-19〉 여성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 78
〈표 3-20〉 기혼 성인의 성별 일일 평균 시간 사용 내역 변화 ····· 78
〈표 3-21〉 성인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별 일일 평균 시간 사용 내역 변화 ····· 79
〈표 4-1〉 이해관계자 목록화 ····· 83
〈표 4-2〉 FGI 연구 참여자 현황 ····· 84
〈표 4-3〉 1단계: 주요 이해관계자 식별과 변화 확인 ····· 101
〈표 4-4〉 응답자 특성 ····· 106
〈표 4-5〉 어린이집 등원시간 ····· 108
〈표 4-6〉 어린이집 등원시간: 맞벌이 가구 ····· 108
〈표 4-7〉 어린이집 하원시간 ····· 109
〈표 4-8〉 어린이집 하원시간: 맞벌이 가구 ····· 110
〈표 4-9〉 어린이집 등·하원 전후 부모 외 정기적 돌봄인력 유무 ····· 111
〈표 4-10〉 정규 보육시간 외 어린이집 이용 경험(중복응답) ····· 112
〈표 4-11〉 정규 보육시간 외 어린이집 이용 경험: 맞벌이 가구 ····· 112

〈표 4-12〉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영역별 ····· 115
〈표 4-13〉 어린이집 급·간식 만족도 및 추가비용 지불의향 ····· 117
〈표 4-14〉 어린이집 건강관리 만족도 ····· 118
〈표 4-15〉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만족도 ····· 120
〈표 4-16〉 장애통합 보육의 사회성 발달 도움 정도 ····· 121
〈표 4-17〉 어린이집 이용 후 양육역량 향상 정도 및 추가비용 지불의향 ····· 123
〈표 4-18〉 어린이집 이용 후 양육역량 향상 정도 및 추가비용 지불의향: 맞벌이 가구 124
〈표 4-19〉 어린이집 이용 후 양육부담 완화 ····· 125
〈표 4-20〉 어린이집 이용 후 양육부담 완화: 맞벌이 가구 ····· 125
〈표 4-2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경험 ····· 127
〈표 4-22〉 국공립어린이집 선택 이유(1+2순위): 과거 및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 128
〈표 4-23〉 현 이용 기관 선택 이유(1+2순위) ····· 129
〈표 4-24〉 국공립어린이집 미이용 경험 및 그 이유(1+2순위) ····· 130
〈표 4-25〉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길 의향 및 그 이유(1+2순위) ····· 132
〈표 4-26〉 국공립어린이집 우수성 인식 ····· 133
〈표 4-27〉 국공립어린이집 충분성 인식 ····· 135
〈표 4-2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성 인식 ····· 136
〈표 5-1〉 [2단계] 투입물-산출물 확인 ····· 142
〈표 5-2〉 [3단계] 결과물(Outcome) 산출식 및 자료원 ····· 143
〈표 5-3〉 아동-보육의 질 제고 ····· 149
〈표 5-4〉 아동-아동의 신체건강 개선 ····· 151
〈표 5-5〉 아동-장애 아동 보육·치료 효과 제고 ····· 152
〈표 5-6〉 지표산출: 아동-맞벌이 가구 아동의 보육 기회 ····· 153
〈표 5-7〉 주양육자(부모)-양육비용 절감 ····· 155
〈표 5-8〉 주양육자(부모)-모의 경제활동 지원 ····· 156
〈표 5-9〉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 ····· 157

# 그림목차

[그림 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평가에 대한 규정 ····· 24
[그림 2-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평가에 대한 규정 ····· 24
[그림 2-3] 사업 개요 ····· 39
[그림 3-1] 분석 대상 ····· 54
[그림 3-2]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수 ····· 69
[그림 3-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 70
[그림 3-4]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 교직원 1인당 보육아동 수 추이 ····· 72
[그림 3-5]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 자격 현황(2022) ····· 74
[그림 4-1] 정규 보육시간 외 어린이집 이용 사유(중복응답) ····· 113
[그림 4-2]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기관 전체 ····· 114
[그림 4-3] 기관 이용이 자녀 건강, 영양 상태 향상의 도움 정도 ····· 119

# 요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한 전국적인 공공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전체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넘는다. 그러나 복지 분야에 대한 많은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의 성과평가는 연장평가와 보조금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뿐이며,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유아 학령기 아동에 대한 정책,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등 복지 분야의 대부분의 정책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발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치화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은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지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 및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다 중시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개선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2000년 미국의 사회적 기업 투자재단인 REDF(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가 개발하여, 미국과 유럽(특히 영국)에서 사회영향 투자자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이하 SROI)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사회적투자수익률을 측정하고자 한다.

## 2. 주요 연구 결과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 중,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분석한 결과 24개 사업 중 13개 사업이 예산이 감축되었으며, 보조사업 평가 결과에서 감축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100억 원 이상 사업의 감축 사유를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전년 대비 332억 원이 감축되었는데, 그 이유는 실집행률 미흡, 성과지표 미흡으로,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정책은 단순한 몇 개의 결과지표만으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평가 기준, 특히 사업 효과와 관련한 평가 항목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복지 분야의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사업을 평가한 연장평가 의견서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연장평가 결과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며(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른 영유아 부모의 육아지원정책 선호도 1위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선정), 2022년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수는 전체 어린이집 시설의 18.7%,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7.7만 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25.3% 수준으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이라고 분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확충 개소 수,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의 영향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보육 질에 대한 모의 만족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등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의 특성상 사업 효과성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기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직접 수혜자와 간접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이들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는 대부분 만족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고,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실효적인

성과지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려워 정책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회적투자수익률 분석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사회적투자수익률을 산출한 결과는 〈요약 표〉와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사회적투자수익률은 1원당 1.32원의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가치는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되어 보여지는 가치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가치는 1보다 크며,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해관계자별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의 범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동과 부모만 포함하였고, 원장과 교사의 결과지표는 포함하지 않았다. 원장과 교사의 경우, 그들의 책무성과 만족도, 고용안정감, 휴직 이후 복직률 등에 대한 결괏값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표본 수 확보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성지표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인식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지표의 수집이 불가능하였고, 응답자의 성향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아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요약 표〉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

| 이해관계자 | 결과물 | 결과물 | 사회적 수익 계산 |
|---|---|---|---|
| 아동 | 보육의 질 | 국공립-비국공립 간 평균 아동 1인당 교사 수 차이 | 11,391,575천 원 |
| | | 국공립-비국공립 간 교사 경력의 차이 (교사의 숙련도) | 15,086,048천 원 |
| | | 국공립 취원 아동 가구의 만족도 | 22.163.454천 원 |
| | 신체건강 개선 | 신체건강 개선 (연간 병원 가는 횟수 감소) | 472,109천 원 |
| | | 어린이집 급·간식 개선 | 18,936,012천 원 |

〈요약 표〉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

| 이해 관계자 | 결과물 | 결과물 | 사회적 수익 계산 |
|---|---|---|---|
| | 장애 아동의 보육 기회 | 공공보육 기회로 장애 아동의 보육/치료 효과 제고 | 1,223,745천 원 |
| | 맞벌이 가구 아동의 보육 기회 | 맞벌이 가구의 야간연장보육으로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제고 | 14,502,042천 원 |
| 부모 | 양육비용 절감 | 자부담 기관 이용료 절감 효과 | 19,910,328천 원 |
| | | 추가 돌봄 비용 절감 효과 | 6,626,262천 원 |
| | 모의 경제활동 | 모의 경제활동 지원: 재취업 모의 소득 증가 | 40,085,782천 원 |
| 사회적 가치 측정 | | | 128,233,903천 원 |
| 투입액 | | | 96,875,728천 원 |
| 1원당 사회적 수익(₩) | | | ₩1.32:₩1 |

이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때 기존에 아동 수, 기관 수, 충원율 등의 산출(output) 관점에서만 주목했던 것과 비교해 성과(outcome)와 영향(impact)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분석 대상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그 결과가 아동에 대한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나,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성과를 대변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찾아 화폐화하는 데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둘째, SROI 분석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민감도 분석은 다양한 가정이 채택될 경우 SROI 분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결과로, 중장기적인 효과와 마찬가지로 비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그 효과를 %로 측정할 것인지와 관련해 오류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셋째, SROI 분석 과정에서 활용된 대리지표의 적합성에 한계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관련한

영유아 보육 전문가, 방법론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등이 수차례 참여하여 논의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SROI 방법론에 익숙하지 않아 대리지표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SROI 분석 결과의 비교 불가능성이다. 아직 SROI 분석이 정부 정책 분석 방법으로 적용된 사례가 적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1.32원의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즉, 어떤 정부 정책보다 나은 것인지, 어떤 정부지원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교 가능한 SROI 분석 결과가 없는 상황이다. 다섯째, 이 결과는 본 연구를 위해 참여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가치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측정한 사회적투자수익률임을 밝힌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훨씬 우수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 3. 결론 및 시사점

사회복지 분야 성과평가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일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포함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 문헌 검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SROI 분석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평가 방법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적합한 평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SROI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SROI 분석을 확대 적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다양

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성과평가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성과평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용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사회적투자수익률, 사회적 가치, 국공립어린이집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정부는 복지 분야 등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전체 국고보조금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며, 그중 지방으로의 이전금인 자치단체보조가 70%를 넘는다. 이는 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존재하는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 간 세원 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지역 편차 없이 국민 모두가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복지 분야에 대한 많은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의 성과평가는 연장평가와 보조금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뿐이며,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유아 학령기 아동에 대한 정책,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등 복지 분야의 대부분의 정책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발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치화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은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지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

및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다 중시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개선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 고용, 주거 같은 영역에서 대규모 산업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간과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복지 분야에 대한 효과를 측정해야 할 것이다(이아영, 최영출, 김태완, 안영, 고숙자, 2021, p.3).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2000년 미국의 사회적 기업 투자재단인 REDF(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가 개발하여, 미국과 유럽(특히 영국)에서 사회영향 투자자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이하 SROI)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사회적투자수익률을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에 적합한 평가 방법 없이 타 분야와 동일하게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만 고려되어왔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민해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가치 투자수익률 분석을 통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이해관계자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관리하는 적절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뿐더러,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것 사이의 공통의 기본적 이해를 확인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를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특성과 기존 성과측정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둘째, 국고보조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분석을 실시한다. 기존의 성과측정 방법으로 그 관계를 분석하고, 한계에 대해 기술한다. 셋째,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방법론인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 적용 사례를 분석한다. 넷째, 사회복지 분야 사업의 사회적투자수익률을 산출해보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 탐색한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 검토와 통계자료 수집,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을 위해 이해관계자별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지표를 탐색하고, 수집 가능한 지표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고,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는 신규 지표 개발을 위해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4년 1월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중인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성과지표 개발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검토와 자문 검토를 실시하였다. 지표 개발 및 검증을 위해 보육 및 육아 정책, 공공보육 시설 등에 대해 수년간 연구한 육아정책연구소 전문가집단과 아동학과, 보육학과 등 대학 교수 등 총 10명이 참여하였으며,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 과정과 결괏값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1-1〉 연구 흐름도

| 연구 내용 | 상세 연구 내용 | 연구 방법 | |
|---|---|---|---|
| 1장<br>서론 | - 연구 배경 및 목적<br>- 연구 내용 및 방법 | | 전문가 자문 |
| 2장<br>사회복지 분야 성과평가 방법 | -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특성<br>- 사회복지 분야 성과평가 현황<br>- 기존 성과평가의 한계<br>- 본 연구의 분석방법론 | 문헌 검토<br>통계자료 수집 | |
| 3장<br>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분석 | - 분석 대상<br>- 현황 분석<br>- 관련 지표 분석 | 통계자료 수집<br>통계 분석 | |
| 4장<br>성과지표 개발 | - 이해관계자 초점집단 인터뷰 실시<br>- 신규 성과지표 분석 | FGI 실시<br>통계자료 수집<br>설문조사 실시<br>(약 1,600명)<br>전문가 서면조사 | |
| 5장<br>사회적투자 수익률 분석 | - 성과지표 맵핑<br>-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 | 통계 분석<br>SROI 산출 | |
| 6장<br>결론 | - 분석 결과<br>- 사회복지 분야 SROI 적용 방안 | 전문가 협의 | |

# 제2장

## 사회복지 분야 성과평가 방법

제1절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특성
제2절 사회복지 분야 성과평가와 한계점
제3절 사회적투자수익률 분석 방법
제4절 소결

# 제 2 장 사회복지 분야 성과평가 방법

## 제1절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특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보조사업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며, 주요한 목적[1] 중 하나로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복지 분야의 서비스)가 있다. 따라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이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주로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이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예시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의료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구호 지원, 생계급여, 장애인 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주거급여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긴급복지 등이 있다.

1) 보조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1.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복지 분야의 서비스), 2.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도로, 항만 사업 등 건설사업), 3. 재해 지역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재해 복구 사업), 4. 신규 사업의 보급·장려(혐오시설 또는 주민기피시설의 설치),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 6. 국민의 편리를 위한 사무위탁(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에 따른 경비부담), 7.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로 목적이 구분된다(기획재정부, 2023, p.3).

〈표 2-1〉 국고보조금

| 구분 | 국고보조금 |
|---|---|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 지원 |
| 재원 |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 |
| 재원 성격 | 특정 목적 재원 |
| 배분 | 사업별 용도 지정, 지방비 확보 의무 |

출처: 기획재정부. (2023.9).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p.4.

전체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4년 52.5조 원에서 2023년 102.3조 원으로, 정부 총지출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은 2014년 14.8%에서 2023년 16.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증가 속도(7.9%)는 정부 총지출 증가 속도(연평균 6.7%)보다 더 빠르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2023년 기준 83.1%를 차지한다.

〈표 2-2〉 연도별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조 원, %)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보조금 규모(A) | 52.5 | 58.3 | 62.3 | 59.6 | 66.9 | 77.9 | 86.7 | 97.9 | 102.3 | 102.3 |
| 지자체 | 40.0 | 45.1 | 47.5 | 46.4 | 50.2 | 58.8 | 65.6 | 74.8 | 79.4 | 83.1 |
| 민간 | 12.5 | 13.2 | 14.8 | 13.2 | 16.7 | 19.1 | 21.1 | 23.1 | 22.9 | 19.2 |
| 정부 총지출(B) | 355.8 | 375.4 | 386.4 | 400.5 | 428.8 | 469.6 | 512.2 | 558.0 | 607.7 | 638.7 |
| A/B | 14.8 | 15.5 | 15.6 | 14.9 | 15.6 | 16.6 | 16.9 | 17.5 | 16.8 | 16.0 |

주: 국회 확정예산 기준임.
출처: 기획재정부. (2018.9). 2018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p.13; 기획재정부. (2021.9). 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p.13; 기획재정부. (2023.9).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p.13;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e나라도움·보탬e 보조금통합포털. (https:www.bojo.go.kr/bojo.do)(접속일: 2024.7.31.)

국고보조금의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7년 전체 국고보조금의 53.1%(30.6조 원)에서 2023년 57.9%(59.3

조 원)로 4.8%p 증가하였다. 사회복지 분야의 규모가 농림수산, 환경,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보다 5배 이상(~10배 이상) 크며, 증가율도 가장 높다. 국고보조금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규모와 비중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 분야별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 원, %)

| 분야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일반·지방행정 | 2,899 | 7,803 | 7,800 | 9,135 | 19,467 | 16,840 | 13,600 |
| | 0.5 | 1.2 | 1.0 | 1.1 | 2.0 | 1.6 | 1.3 |
| 공공질서 및 안전 | 1,997 | 9,869 | 11,147 | 9,032 | 18,228 | 12,746 | 12,464 |
| | 0.3 | 1.5 | 1.1 | 1.0 | 1.9 | 1.2 | 1.2 |
| 통일·외교 | 8,825 | 8,540 | 8,656 | 8,689 | 9,182 | 10,608 | 11,206 |
| | 1.5 | 1.3 | 1.1 | 1.0 | 0.9 | 1.0 | 1.1 |
| 국방 | 1,032 | 1,093 | 1,284 | 1,126 | 417 | 465 | 463 |
| | 0.2 | 0.2 | 0.2 | 0.1 | 0.0 | 0.0 | 0.0 |
| 교육 | 1,398 | 1,385 | 2,460 | 3,710 | 6,429 | 10,057 | 9,058 |
| | 0.2 | 0.2 | 0.3 | 0.4 | 0.7 | 1.0 | 0.9 |
| 문화 및 관광 | 45,650 | 41,330 | 46,504 | 49,645 | 52,034 | 55,002 | 52,800 |
| | 7.9 | 6.2 | 6.0 | 5.0 | 5.3 | 5.4 | 5.2 |
| 환경 | 45,294 | 45,102 | 47,338 | 60,810 | 67,171 | 79,027 | 83,503 |
| | 7.9 | 6.7 | 6.1 | 7.0 | 6.9 | 7.7 | 8.2 |
| 사회복지 | 306,140 | 378,307 | 460,974 | 511,814 | 560,407 | 556,716 | 592,531 |
| | 53.1 | 56.6 | 59.2 | 59.0 | 57.3 | 54.4 | 57.9 |
| 보건 | 14,480 | 15,271 | 16,536 | 17,119 | 20,001 | 32,701 | 24,717 |
| | 2.5 | 2.3 | 2.1 | 2.0 | 2.0 | 3.2 | 2.4 |
| 농림수산 | 81,775 | 83,618 | 89,548 | 99,364 | 106,925 | 108,937 | 113,701 |
| | 14.2 | 12.5 | 11.5 | 11.5 | 10.9 | 10.6 | 11.1 |
|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 23,584 | 30,186 | 36,758 | 43,248 | 55,440 | 75,668 | 51,383 |
| | 4.1 | 4.5 | 4.7 | 5.0 | 5.7 | 7.4 | 5.0 |
| 교통 및 물류 | 33,431 | 36,939 | 26,881 | 36,491 | 38,599 | 40,707 | 38,235 |
| | 5.8 | 5.5 | 3.5 | 4.2 | 3.9 | 4.0 | 3.7 |
| 통신 | 1,747 | 1,819 | 3,838 | 1,308 | 1,874 | 1,795 | 1,985 |
| | 0.3 | 0.3 | 0.5 | 0.2 | 0.2 | 0.2 | 0.2 |
| 국토 및 지역개발 | 7,767 | 6,457 | 18,799 | 15,108 | 21,824 | 21,004 | 16,778 |
| | 1.3 | 1.0 | 2.4 | 1.7 | 2.2 | 2.1 | 1.6 |
| 과학기술 | 251 | 982 | 456 | 551 | 547 | 1,191 | 880 |
| | 0.0 | 0.1 | 0.1 | 0.1 | 0.1 | 0.1 | 0.1 |

주: 이월액 등 조정을 포함한 예산 정보 기준임에 따라 국회 확정예산 편성액과 다를 수 있음.
출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e나라도움·보탬e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bojo.do)(접속일: 2024.7.31.)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국고보조금 추이를 살펴보면, 기초연금이 포함된 노인 부문의 지출 비중이 가장 크며, 변화 또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계·교육·주거·의료급여 등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지급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을 포함한 아동·보육 부문 순으로 지출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표 2-4〉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 원, %)

| 분야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노인 | 129,333 | 152,034 | 171,458 | 184,073 | 209,556 |
| | 28.1 | 29.7 | 30.6 | 33.1 | 35.4 |
| 기초생활보장 | 126,973 | 139,597 | 153,179 | 167,551 | 191,199 |
| | 27.5 | 27.3 | 27.3 | 30.1 | 32.3 |
| 아동·보육 | 81,072 | 84,886 | 85,361 | 91,618 | 98,288 |
| | 17.6 | 16.6 | 15.2 | 16.5 | 16.6 |
| 취약계층지원 | 31,553 | 36,981 | 41,539 | 44,236 | 48,019 |
| | 6.8 | 7.2 | 7.4 | 7.9 | 8.1 |
| 주택 | 7,661 | 10,154 | 17,097 | 18,814 | 14,848 |
| | 1.7 | 2.0 | 3.1 | 3.4 | 2.5 |
| 여성·가족·청소년 | 9,379 | 2,463 | 10,446 | 12,530 | 13,601 |
| | 2.0 | 0.5 | 1.9 | 2.3 | 2.3 |
| 고용 | 62,866 | 65,491 | 69,126 | 29,200 | 8,169 |
| | 13.6 | 12.8 | 12.3 | 5.2 | 1.4 |
| 사회복지일반 | 8,925 | 9,189 | 9,370 | 5,899 | 6,340 |
| | 1.9 | 1.8 | 1.7 | 1.1 | 1.1 |
| 보훈 | 2,131 | 2,482 | 2,209 | 2,135 | 2,064 |
| | 0.5 | 0.5 | 0.4 | 0.4 | 0.3 |
| 노동 | 1,079 | 1,523 | 622 | 661 | 448 |
| | 0.2 | 0.3 | 0.1 | 0.1 | 0.1 |

주: 1) 예산액 정보는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임.
2)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은 2019년 이전에는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보육·가족 및 여성, 노동,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일반, 주택, 보훈)에서 2019년 이후에 10개 부문(기초생활보장, 노인, 아동·보육, 고용, 취약계층지원, 여성·가족·청소년, 사회복지일반, 주택, 보훈, 노동)으로 개편됨에 따라 2019년부터 분석함.

출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e나라도움·보탬e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bojo.do)(접속일: 2024.7.31.)

저출산·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국고보조금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18.5조 원, 의료급여 9.1조 원, 생계급여 6.0조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0조 원, 아동수당 2.3조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9조 원, 부모급여 1.6조 원 등 내역사업별 예산 순위를 보면(〈표 2-5〉) 대규모 국고보조사업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속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기초연금(2014년 기초연금법의 시행으로 시작), 아동수당(2018년 9월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최근의 부모급여(영아수당)까지 새로운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고 의료급여,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기존 사회복지 분야 제도의 지원 규모가 증가하여 국고보조금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5〉 내역사업별 예산 상위 Top 10

(단위: 억 원)

| 내역사업명 | 2023.11. 기준 예산액 |
|---|---|
| 기초연금 지급(지자체보조) | 185,078 |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 90,961 |
| 생계급여 | 60,125 |
| 영유아보육료 지원 | 30,251 |
| 기본형 공익직불 | 25,805 |
| 주거급여 | 25,128 |
| 아동수당급여 지급 | 22,563 |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 19,462 |
| 부모급여 지원 | 16,214 |
| 전기자동차 보급 | 15,412 |

주: 일부 사업의 경우 연계 기관의 사정으로 실제 예산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출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e나라도움·보탬e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bojo.do)(접속일: 2024.7.31.)

정부 총지출에서 보조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지출 규모에서 사회보장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책임이 커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보장 분야의 높은 지출 증가율은 의무지출[2)]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이는 곧 지출 구조의 경직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국고보조금 중 의무지출의 비중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무지출 비중은 2012년 14.8조 원(32.3%)에서 2019년 33.1조 원(42.5%)으로 증가한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2012년 31.1조 원(67.7%)에서 2019년 44.8조 원(57.5%)으로 10.2%p 감소하였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살펴보면, 2019년 의무지출은 31.1조 원(67.5%)으로 재량지출 15.0조 원(32.5%)보다 규모와 비중이 2배 이상 크다. 2019년 기준 전체 의무지출(33.1조 원)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의무지출(31.1조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4.0%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지출 추이를 보면, 이미 도입되어 제도화된 급여에 대한 의무지출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부모급여(영아수당)와 같이 정부가 새롭게 당면하는 정책 현안에 따라 신규 제도가 도입되어 의무지출이 증가한다는 점 등 구조적으로 하방경직적인 속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르면,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 지출 및 이자 지출을 의미한다. 재량지출이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지출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이다.

〈표 2-6〉 연도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추이

(단위: 조 원, %)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의무지출(A) | 14.8 | 15.9 | 19.0 | 21.9 | 23.3 | 24.9 | 27.5 | 33.1 |
| 재량지출(B) | 31.1 | 35.8 | 32.8 | 37.3 | 36.9 | 35.4 | 39.7 | 44.8 |
| A/(A+B) | 32.3 | 30.7 | 36.6 | 37.0 | 38.7 | 41.3 | 40.9 | 42.5 |

주: 2012~2018년은 결산 기준, 2019년은 본예산 기준임.
출처: 한승희. (2019).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현황과 집행실적 분석. 한국재정정보원. p.43.

〈표 2-7〉 연도별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추이

(단위: 조 원, %)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의무지출(A) | 13.5 | 14.6 | 17.3 | 20.2 | 21.5 | 22.8 | 25.5 | 31.1 |
| 재량지출(B) | 4.6 | 6.9 | 6.8 | 7.6 | 8.0 | 8.6 | 12.6 | 15.0 |
| A/(A+B) | 74.6 | 67.8 | 71.8 | 72.6 | 72.8 | 72.6 | 66.9 | 67.6 |

주: 2012~2018년은 결산 기준, 2019년은 본예산 기준임.
출처: 한승희. (2019).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현황과 집행실적 분석. 한국재정정보원. p.43.

국고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이 국가재정의 탄력적 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평가에서 의무지출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의무지출사업(국가재정법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재정 여건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면제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법정 의무지출이거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춘 사업들은 재정의 탄력적 운용 및 조정이 어려운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의무지출 위주로 구성된 지출 구조는 사회복지 분야의 필요한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제약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국고보조금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가 의무지출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국고보조사업의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평가 현황을 살펴보며, 성과평가의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2절 사회복지 분야 성과평가와 한계점

### 1. 사회복지 분야 성과평가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업,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공공재의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가 있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다(기획재정부, 2023, p.5). 외부효과나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도입되면 보조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축소·폐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원종학, 권오성, 최진욱, 2022).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점차 커지고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 제도는 국고보조사업이 타당하게 편성·선정·집행되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 외의 모든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이고, 존

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의무지출사업(국가재정법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진행 중인 계속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을 말하며, 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의무지출은 재량지출 규모의 2배 이상이며, 전체 국고보조금 의무지출에서 사회복지 분야 지출 규모가 94.0%를 차지하며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도입되어 시행된 대규모 사업들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5조(평가 면제)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여건 변화, 보조사업 운용정책의 기본방향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3, p.15). 실제 최근 3년간 평가 대상으로 평가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은 〈표 2-8〉과 같다.

〔그림 2-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평가에 대한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그림 2-2〕「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평가에 대한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9조(보조사업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사전절차 이행 여부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제10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표 2-8〉 최근 3년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 연장평가 사업

| 연도 | 사업명 |
|---|---|
| 2023 | 노인단체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요양시설확충, 다함께돌봄센터사업,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체인력지원, **어린이집확충**,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영주귀국사할린한인정착비및시설운영지원,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장애인일자리지원, 한국장애인개발지원 등 |
| 2022 | 고령친화산업육성, 나눔문화확산,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사회복지국제교류협력지원, 사회복지사관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운영, 아동권리보장원운영지원,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아동정책조정및인권증진, 장애인지원관리,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 저출산고령사회대비국민인식개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및관리체계구축, 지역복지사업평가 등 |
| 2021 | 가정위탁지원·운영,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공공형어린이집, 근로능력심사및평가운영,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긴급복지, 노숙인등복지지원, 노인건강관리,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발달장애인지원,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 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급, 복지소외계층발굴및민간자원연계지원, 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 사회보장정보원운영, 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 사회복지시설평가및인센티브, 사회복지종사자상해보험가입지원, 사회복지협의회운영, 사회서비스분야사회적경제육성지원, 시간제보육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양로시설운영지원, 어린이집교원양성지원, 어린이집기능보강, 어린이집부정이용불편신고및현지조사지원,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자활사업, 장애수당, 장애 아동가족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및인식개선, 지역아동센터지원 등 |

출처: 기획재정부. (2021.9). 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기획재정부. (2022.9).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Ⅰ).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기획재정부. (2023.9).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대표적인 국고보조사업 관리제도로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 계속사업에 대한 연장평가를 들 수 있다.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는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적격성 심사(자체심사: 정부출연 연구기관)를 실시한다. 이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평가자료(결과)와 근거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재검토를 시행(평가단심사: 보조사업평가단)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보조금관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격과 부적격을 확정하며, 조건부로 적격 판정할 수도 있다. 2021년도부터는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근거자료 작성

지침을 별도로 두어 부처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전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였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타당성,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각각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의 존속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소규모(50억 원 이하), 중규모(50~200억 원 이하), 대규모(200억 원 초과) 사업으로 분류하여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들을 평가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보조사업의 폐지(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 방식 변경, 정상 추진으로 최종 판정을 도출한다. 정량 평가를 도입하여 보조금 연장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세부 항목별 점수의 합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정상 추진으로 간주한다.

〈표 2-9〉 평가 항목

<table>
<tr><th colspan="2">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th><th colspan="2">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th></tr>
<tr><th>시설사업</th><th>지원사업</th><th>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80점)</th><th>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분석(20점)</th></tr>
<tr><td>사업 추진의 근거와 필요성(15)</td><td>사업 추진의 근거와 필요성(12)</td><td rowspan="2">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10)</td><td rowspan="2">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td></tr>
<tr><td>구축, 운영방식의 적정성(10)</td><td rowspan="2">사업내용 및 전달체계의 적정성(20)</td></tr>
<tr><td>비용 산정의 적정성(15)</td><td>비용 산정의 적정성(13)</td><td rowspan="3">보조사업의 효과성(30)</td><td rowspan="3">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td></tr>
<tr><td>비용 대비 사업 효과(20)</td><td>비용 대비 사업 효과(15)</td><td rowspan="2">보조사업의 필요성(30)</td><td rowspan="2">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td></tr>
<tr><td>보조의 근거(20)</td><td>보조의 근거(10)</td></tr>
<tr><td rowspan="2">보조사업자 적정성(15)</td><td rowspan="2">보조사업자 적정성(15)</td><td>보조사업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10)</td><td>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td></tr>
<tr><td>보조금 관리방안의 적절성(15)</td><td>보조금 관리방안의 적절성(15)</td><td>사회적 가치 실현(가감점 최대 △3.0~+3.0)</td><td>-</td></tr>
</table>

출처: 기획재정부. (2021). 2021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기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23.9).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다만, 복지 분야의 정부정책은 단순한 몇 개의 결과지표만으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평가 기준, 특히 사업 효과와 관련한 평가 항목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사업을 평가한 연장평가 의견서를 살펴보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보육 질에 대한 모의 만족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등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의 특성상 사업 효과성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직접 수혜자와 간접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이들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는 대부분이 만족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고,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실효적인 성과지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려워 정책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평가 의견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의 선호가 가장 높은 어린이집이고,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른 영유아 부모의 육아지원정책 선호도 1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이라고 분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등 재정 운영 측면에 대해서도 함께 평가해야 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감축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3]과 관련한 가감점에서는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자체 사업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가점 부여 사항이라 평가할 수 없음"으로 평가받았다. 2023년 국고보조금 연장평가에서 23개 부처, 141개 사업이 감축 판정을 받았는데, 사업 개수 기준 보건복지부 사업이 25개로 감축사업 개수가 가장 많았다. 예산 규모로 볼 때 보건복지부 사업이 1조 4,302억 원으로 감축 대상이 되는 예산 규모도 가장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2023.9.).

3) 사회적 가치 실현 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고려(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②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고려

〈표 2-10〉 보조사업 연장평가 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사업 평가 결과

| 평가 지표 및 평가 기준 | 어린이집 확충(2023) | | 공공형어린이집(2021) | |
|---|---|---|---|---|
| | 점수 | 평가 의견서 일부 | 점수 | 평가 의견서 일부 |
| 보조사업의 타당성 | 56.0 | - 어린이집 확충은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 산출물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및 사업 수혜자 비율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br>-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함(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의 선호가 가장 높은 어린이집이고,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른 영유아 부모의 육아지원정책 선호도 1위는 '국공립어린이집확충'으로 나타남).<br>-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자체사업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으로 가점 부여 사항이라 평가 할 수 없음. | 54.6 | - 사업 성과라 할 수 있는 보육의 질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사업 성과가 높다고 보기 어려움.<br>- 공공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비공공형 어린이집 대비 11.6%p 높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용자 만족도 수준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사업이 당초 계획한 공공형 어린이집 유지 개소 수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필요 |
|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5.2 | | 5.6 | |
| 보조사업의 효과성 | 18.0 | | 21.0 | |
| 보조사업의 필요성 | 27.0 | | 24.0 | |
|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5.8 | | 4.0 | |
| 사회적 가치 실현 | 0.0 | | 0.0 | |
|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5.0 | | 7.5 | |
|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2.0 | | 3.5 | |
|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2.0 | | 2.0 | |
|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4.0 | | 2.0 | |
| 자체 사업관리 노력 | 0.0 | | 0.0 | |
| 평가 결과 이행 여부 | 0.0 | | 0.0 | |
| 실집행 실적 | -3.0 | | 0.0 | |

| 사회적 가치 세부 항목 |
|---|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
|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
|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0.1.15.).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 평가 지표 및 평가 기준 | 어린이집 확충(2023) | | 공공형어린이집(2021) | |
|---|---|---|---|---|
| | 점수 | 평가 의견서 일부 | 점수 | 평가 의견서 일부 |
| |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식별로 사업추진 기간과 기간별 예산 투입 비중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반영한 정교한 사업 계획 수립 예산 편성이 필요(기능보강사업의 특성상 건축 기간이 길게 소요되고, 어린이집 상당수가 새학기에 맞추어 다음 연도 3월에 개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예산을 이월해서 활용함에 따라 연내 실집행 완료가 곤란) | | |
| 최종 결과 | 높은 수준의 감축 | | 사업 방식 변경 | |

출처: 기획재정부. (2023.9).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p.1334.; 기획재정부. (2021.9). 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p.1603.

또 다른 사전 평가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에 근거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수행하는 사전 타당성 평가이다(법제처, 2023). 예비타당성조사는 2011년 이전까지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대부분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은 제외되었다(고제이 외, 2021, p.276). 2011년 이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규정함에 따라 복지 관련 사업들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 조사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2020년 이전까지도 사실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박윤수 외, 2018).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방식이 SOC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됨에 따라 경제성 분석이 주

를 이루어서 복지·소득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정하여 사회복지(복지·소득이전) 부문에 대한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9.4.3., p.2). 복지·소득이전 사업 조사는 사업추진 시기, 방법, 규모 등에 대한 사업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경제사회 환경분석, 비용-효과성 분석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개별사업의 특성, 향후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 시범사업 및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의 필요성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표 2-11〉 예비타당성조사 변천 과정

| 1999 | 2001 | 2007 | 2008 | 2010 | 2019 |
|---|---|---|---|---|---|
| 예타 도입 | AHP 분석 도입 | 국가연구개발 사업(R&D), 정보화 사업 예타 실시 | 「국가재정법 시행령」 사회복지·보건 등 기타재정 분야 대상 규정 | 기타 재정사업 예타 실시 | 정책성 분석 항목 변경<br>지역균형발전 평가체계 변경<br>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체계 개편 |

출처: 고제이 외. (2021).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재정구조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진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36.

〈표 2-12〉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 구분 | 예비타당성조사 |
|---|---|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 관련 법령 | 국가재정법 제38조 |
| 관련 지침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 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훈령) |
| 대상 사업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 & 국비지원 3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 |
| 수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br>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
| 심사항목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 추정의 적정성 분석, 종합 결론 및 정책제언 |
| 심사 결과 | 사업추진 적정/조건부 추진/예타 재요구 |
| 심사 기준 | AHP 점수가 0.5 이상<br>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훈령 제677호, 2023.12.27., 일부개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10).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복지 및 소득이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외에도 현재 사회보장 분야의 평가는 모든 정부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제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그리고 사회보장 하부 분야별 위원회(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가 주체가 되어 위원회 산하 사무국 혹은 정책 담당부서가 평가정책을 주관하는 평가 등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평가마다 목적이 다르며 예산 당국이 수행하는 평가에서는 요약 평가[4]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한 반면, 사회보장정책 관련 위원회 및 관련 정부 기관은 형성적 관점이 강한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산 당국이 수행하는 평가는 예산 제약조건이 중요한 상황에서 개별 정책을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 목표 설정, 그리고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확인을

4)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사업개선에 우선순위를 둔 평가이며, 요약 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성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평가이다. 두 목적을 함께 달성하는 평가가 가장 이상적이나,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진다(고제이 외, 2021, p.278).

통한 단순 실적점검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책 효과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최근에는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 2. 사회복지 분야 성과평가 한계점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은 초기에는 불충분한 보장 수준 및 서비스 부족 등으로 제도의 도입 자체가 중요한 목표였으므로 포괄성, 충분성 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 특히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보장 수요 증대는 새로운 사회보장 관련 사업의 신설 혹은 기존 사업의 확대와 연결된다. 그리고 이는 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포괄성 및 충분성에서 나아가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의 필요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현행 평가에서 정책 효과와 가장 유사한 평가 항목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과 측면을 평가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정책 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한 후 목표치와 실적치를 측정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실무적으로 용이하게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고, 과정이 직관적이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첫째, 정책의 영향 전달경로(transmission path)가 복잡하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 정책의 시간적 단계별 추진 효과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투자수익률 분석 방법도 이러한 한계점을 모두 극복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이들은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 logic model)화, 즉 사회

적 가치(영향)가 만들어지는 과정(투입, 산출, 결과, 영향)의 이론화를 시도한다는 점이 다른 모형과는 다른 특징이자 장점이 될 수 있다(이아영 외, 2021). 둘째, 성과에 대한 정책의 정확한 기여도가 불분명하다. 대부분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지푯값의 변화와 목표치와 실적치와의 차이 등을 비교하므로, 관련 정책 외적인 영향요인에 따른 지푯값의 변화를 측정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성과에 대한 과다, 과소 측정이 문제가 된다. 또한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선정함에 따라 다양한 질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정책의 효과로서 그 사업의 직접적 효과뿐 아니라 사업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이해관계자와의 영향, 다양한 차원의 질적 성과(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분야는 사업의 직간접적인 수혜집단이 명확하며 대상자에게 직접적 효용이 발생한다. 동시에 다수의 목표를 추구함에 따라 수혜집단이 광범위하여 측정 범위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성과는 중장기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정책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 자료 구축 및 정보 접근 제약으로 인해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보장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방법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사회투자수익률 방법이 이러한 한계점을 모두 보완할 수는 없으나, 이 방법은 정량뿐만 아니라 정성적 분석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많은 논의를 거치게 되므로 이해관계자 범위와 방법에 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등 자원의 제약으로 모든 제도를 이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중범위로 구분하고, 핵심이 되는 제도를 선정하여 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 평가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정 단계가 지난 사업은 초기 단계의 관리적 비효율성은 제거해야 하므로, 정책 성과에 있어 투입 대비

효과 개념으로 확장시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관리적 비효율성, 관련 부작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정 여부에 대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제3절 사회적투자수익률 분석 방법

### 1. SROI 소개

#### 가. '사회적 가치' 정의

사회적 가치는 크게 사회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가치를 인간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며 타당한 것으로 정의하며, 정의, 공정, 평등, 관용, 참여, 공존, 연대, 협력, 호혜성 등의 규범적 가치를 강조한다(라준영 외, 2018, p.136).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는 '사회문제론'으로 이어져 '사회의 가치, 규범, 윤리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아서 시정이 요구되는 사회현상'을 사회문제라고 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라고 본다(김종일, 2005; 라준영 외, 2018, p.136 재인용). 한편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가치를 사람들의 욕망, 필요, 효용으로 이해하며, 생산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다. 정부, 기업, 비영리조직 등 사회의 모든 조직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조직이다. 이 가치는 재화와 서비스의 형태로 구현되어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킨다. 대부분의 사회적 필요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장 기제를 통해 충족되지만 외부성, 공공재, 가치재 등의 시장실패 요인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제학에서

는 사회적 가치로 본다. 특히, 사회구성원이 중시하지만 시장 가격기구에 반영되지 않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치에 주목한다.

조직 활동의 결과물로서 사회적 가치를 '사회성과'라고 한다. 이때 사회성과의 기준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회문제와 관련이 있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의 가격기구에 반영되지 않은 가치여야 한다(라준영 외, 2018, p.136). 사회성과는 〈표 2-13〉과 같이 논리 모형(logic model)에 따라 크게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으로 구분된다(wholey, 1979; 라준영 외, 2018, p.137에서 재인용). 사회성과는 사회에 미치는 최종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영향(impact)'을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은 중장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고, 설령 측정하더라도 조직의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복잡하여 해당 조직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다양한 조직과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회적 영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결과(outcome)와 영향(impact)에서의 변화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재정사업 평가는 대부분 투입(input)과 산출(output)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다.

〈표 2-13〉 논리 모형과 사회성과의 측정

| 사회성과 유형 | 정의 | 측정지표의 예시 |
|---|---|---|
| 투입(input) | 조직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입물 |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
| 과정(process) | 조직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 | 장애인 고용 및 노동 과정에서의 인권 존중 |
| 산출(output) | 조직 생산활동의 결과물과 관련한 직접적 성과 | 장애인 고용 인원수 |
| 결과(outcome) | 조직과 관련한 사회적 수혜자의 개인적인 삶에 일어난 변화 | 고용된 장애인에게 일어난 삶의 질의 변화 |
| 영향(impact) | 조직 활동의 결과 사회적으로 일어난 결과 |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확산 |

출처: 라준영 외. (2018). 사회성과인센티브(SPC)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사회성과의 화폐가치 환산. p.137.

그동안 개발된 조직 단위의 사회성과 측정법 중에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론은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가 거의 유일하다(Emerson, 2003; Lingane & Olsen, 2004; Nicholls et al., 2009; 라준영 외, 2018, p.138에서 재인용). SROI는 2000년 미국의 사회적 기업 투자재단인 REDF(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가 개발하였고(REDF, 2000), 미국과 유럽에서 사회영향 투자자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 나. SROI 방법론 및 절차

### 1) SROI 소개

사회적 가치를 연구하는 국제적 단체인 Social value international, Social Value UK 등은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삶의 변화를 통해 경험하고 나타나는 가치' 등 경제적 가치를 포괄하여 사회구성원, 공동체 전체의 삶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19; 이아영 외, 2021, p.48에서 재인용). SROI는 광범위한 가치의 개념을 측정하고 계산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다(Nicholls, Lawlor, Neitzert, & Goodspeed, 2010, p.19). 이 방법은 불평등과 환경파괴를 줄이고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결합하여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SROI에서의 사회적 가치는 관련된 사람이나 조직의 경험 및 공헌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과물을 측정함으로써 만들어진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폐적 가치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3:1의 비율은 £1를 투자하여 £3의 사회적 가

치를 얻는 것을 나타낸다. SROI는 '돈(money)'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치(value)'에 대한 것이며, 돈은 단순히 하나의 단위이고,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 유용하고 넓게 통용되는 수단일 뿐이다(Nicholls et al., 2010, p.20). SROI에는 평가성(evaluation)과 예측성(forecast)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자는 이미 일어난 실제 결과에 근거하여 소급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후자는 실행하고자 하는 활동이 의도했던 결과를 달성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특히, 예측성 SROI는 각종 활동의 계획 단계에서 유용한데, 이것은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영향력이 최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프로젝트가 실행될 때 측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Nicholls et al., 2010, p.21).

SROI는 사회적 회계(Social accounting)와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에서 발전되었으며, 7가지 원칙에 근거한다. 첫째,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 둘째, 변화사항에 대해 이해한다. 셋째, 그러한 사항들을 가치화한다. 넷째, 오로지 중요한 것들을 포함시킨다. 다섯째, 과대 산정되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명백하고 투명해야 한다. 일곱째, 결과를 검증한다.

### 2) SROI 분석 단계

SROI 분석 단계는 6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범위 설정 및 주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2단계에서는 결과를 맵핑한다. 3단계에서는 결과물을 명시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4단계는 영향력을 확정하는 단계이며, 5단계는 SROI 산출 단계이다. 6단계는 전체 과정에 대한 보고 및 활용, 내재화하는 단계이다. 분석 단계별 내용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SROI 분석 단계

| 분석 단계 | | 분석 내용 | 비고 |
|---|---|---|---|
| 1단계 | 범위 설정 및 주요 이해관계자 식별 | SROI 분석에서 다루는 내용과 프로세스에 누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 |
| 2단계 | 결과(outcomes) 맵핑 | 이해관계자와 협력함으로써 투입물, 산출물, 결과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향력 지도, 즉 변화 이론을 개발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 인터뷰 필요[1] |
| 3단계 | 결과를 명시하고 가치 부여 | 이 단계에서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데이터(지표)를 찾고, 그것의 가치를 산정하는 일을 수반한다. | |
| 4단계 | 영향력 확정 | 결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화폐화한 후, 어차피 발생했거나 다른 요인의 결과로 발생한 변화의 측면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5단계 | SROI 산출 | 이 단계는 모든 편익을 합산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결과를 투자와 비교하는 단계이다. 결과의 민감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 |
| 6단계 | 보고 및 활용, 내재화 | 마지막 단계는 이해관계자들과 결과를 공유하고,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모범적인 결과물 처리 과정과 보고서 검증을 내재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주: [1] 이해관계자 상담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눈치채셨나요?'라고 질문한다.
출처: Nicholls et al. (2010). SROI 사회적 투자수익률 측정 가이드. p.23.

이와 같은 단계를 걸쳐 산출된 SROI 값은 전략적 토의를 촉진하고, 하나의 활동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을 관리하는 데 적절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다른 다양한 조직이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준다. 또한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것 사이의 공통의 기본적 이해를 확인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를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조직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일하고, 사회적 수익을 분석할 때 다양한 판단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수익의 단순한 값만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민간기업의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재무적 수익에 대한 정보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결정자 역시 SROI 분석의 전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수익의 변화를 비교해야 하고, 변화의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분석에서 비율 산정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 정책의 수요자와 공급자, 이해관계자 등 모두를 이해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 2. SROI 방법론 적용 사례[5)]

### 가. 영국의 Wheels-to-Meals 사업

Wheels-to-Meals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선단체이다. Wheels-to-Meals는 노인들이 따듯하고 영양이 풍부한 점심을 제공하는 센터로 올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센터에서, 대상자들은 건강 및 여러 관련 이슈에 관한 워크숍 참여와 가벼운 운동, 그리고 사회화의 기회를 제공 받는다. Wheels-to-Meals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3] 사업 개요

- 사업: Wheels-to-Meals 사업
- 목표: 30명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를 전달하는 - 점심서비스 오찬클럽 (luncheon club) 제공
- 범위: 1년 중 50주, 주 5일 자격을 갖춘 노인 및 장애를 가진 지역주민을 위해 30개 장소에서 활동
- 재원: 자자체 보조금

5) 2절은 Nicholls et al. (2010). SROI 사회적 투자수익률 측정 가이드. pp.172-175. 실행 예제를 바탕으로 요약·정리함.

Wheels-to-Meals의 사회적투자수익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1단계로 이해관계자 목록을 작성한다. Wheels-to-Meals의 이해관계자는 노인/장애를 가진 지역주민, 지자체, 자원봉사자, 노인/장애를 가진 지역주민의 이웃이 해당된다. 해당 활동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모두 열거하며, 그 변화나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의도된 것이든 의도되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 포함한다.

〈표 2-15〉 주요 이해관계자 식별과 변화 확인

| 1단계 | |
|---|---|
| 이해관계자 | 의도된/의도되지 않은 변화 |
|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 노인/장애를 가진 지역주민 | 지역주민은 건강서비스를 덜 이용한다 |
| | 지역주민은 집 밖을 더 많이 나간다 |
| | - |
| 지자체 | 지역주민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 |
| 자원봉사자(퇴직자) | 활동 유지 |
| 노인/장애를 가진 지역주민의 이웃 | 이웃 돌보기 |

출처: Nicholls et al. (2010). SROI 사회적 투자수익률 측정 가이드. pp.172-175.

다음으로 투입물에 대한 확인으로 '무엇을 투자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노인/장애를 가진 지역주민은 점심서비스 오찬클럽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였고, 지자체는 오찬클럽에 드는 식사배달서비스 계약(실질적인 금전적인 지출)으로 인한 투자액, 자원봉사자는 시간당 봉사활동을 투입한다.

이해관계자별 투입에 따른 결과물로 노인/장애를 가진 지역주민은 해당 사업에 시간을 투자한 대가로 가벼운/치료 집단 운동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병원에 가는 횟수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지역주민은 집단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다른 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하루에 다섯 번 중 세 번 영양가 있는 식사를 먹음으로써 더욱 건강해지는 변화가 생겼다.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계약하고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지자체의 이익보다는 해당 사업의 수혜자, 즉 노인과 장애를 가진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었다. 퇴직자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는 무료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더욱 건강해졌다. 지역주민에게는 또한 이웃의 보살핌을 통해 쇼핑의 감소, 비공식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해체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표 2-16〉 [2단계] 투입(Input)-결과(outcome) 맵핑

| 1단계 | | 2단계 | | | |
|---|---|---|---|---|---|
| 이해 관계자 | 의도된/의도되지 않은 변화 | 투입물 | | 산출물 | 결과물 |
| | | 설명 | 가치 | | 설명 |
|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들은 무엇을 투자했는가? | | 숫자상 활용 요약 | 여러분은 이 변화를 어떻게 기술하는가? |
| 노인/장애를 가진 지역주민 | 지역주민은 건강서비스를 덜 이용한다 | 시간 | 0 | 오찬클럽: 집단활동(보드게임, 공예, 가벼운/치료 운동, 정보 및 인지 수업) 30명을 위한 운송수단 연간 7,500끼의 따듯한 식사 | 가벼운/치료 집단 운동 수업은 지역주민에게 더욱 잘 맞게 만들었으며, 그들은 병원에 가는 횟수가 다소 줄었다. |
| | | | | | 일반의원의 간호 집단수업은 지역주민이 자신의 건강과 증상을 더욱 잘 관리하게 하여 그들은 더욱 건강해졌다. |
| | 지역주민은 집 밖을 더 많이 나간다 | | | | 지역주민은 집단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다른 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
| | | | | | 지역주민은 하루에 다섯 번 중 세 번 영양가 있는 식사를 먹었으며 더욱 건강해졌다. |
| 지자체 | 지역주민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 | wheels와의 식사 | 24,375 | | 오로지 지역주민을 위한 중요한 결과물(지방의회를 위한 것이 아님). 이 |

| 1단계 | | 2단계 | | | |
|---|---|---|---|---|---|
| 이해 관계자 | 의도된/의도되지 않은 변화 | 투입물 | | 산출물 | 결과물 |
| | | 설명 | 가치 | | 설명 |
| | | 배달 서비스 계약 (연간) | | |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모든 결과물은 이미 위에서 고려되었다. |
| 자원봉사자 (퇴직자) | 활동 유지 | 시간당 (분당 임금) 4명 봉사자 ×3시간 ×5일× 50주× 6천 원 (대략) | 18,000 | | 더욱 건강해진 자원봉사자(퇴직자) |
| 노인/장애를 가진 지역주민의 이웃 | 이웃 돌보기 | 시간 | 0 | | 이웃의 보살핌/쇼핑의 감소와 비공식적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해체 |
| 전체 | | | 42,375 | | |

출처: Nicholls et al. (2010). SROI 사회적 투자수익률 측정 가이드. pp.172-175.

3단계에서는 결과에 따른 가치를 부여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노인/장애를 가진 지역주민이 연간 병원 방문 및 입원하는 횟수가 줄었다면, 그 화폐적 가치가 얼마인가를 산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노인/장애를 가진 지역주민이 병원에 가는 횟수가 연간 7회 정도 줄었으며, 한 번 병원에 갈 때마다 드는 비용을 곱해서 산출한다.

〈표 2-17〉 [3단계] 결과를 명시하고, 가치를 부여

| 이해관계자 | 3단계 | | | | | | |
|---|---|---|---|---|---|---|---|
| | 결과물(무엇이 변화하였나?) | | | | | | |
| | 지표 | 근거 | 수량 | 지속기간 | 재무적 대용치 (proxy) | 가치 (천원) | 근거 |
|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가? |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가? | 얼마나 지속되는가? | 변화를 가치평가하기 위해 어떤 대용치를 사용하는가? | 변화의 가치는 얼마인가? |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가? |
| 노인/장애를 가진 지역주민 | 연간 관련 병원 방문 및 입원이 다소 줄었다 | 일회성 리서치 | 7 | 1년 | 사고 및 응급상황 | 94 | NHS 비용장부 (07/08) |
| | | | | 1년 | 성인병 진단 입원환자 | 4,964 | |
| | | | | 1년 | 성인병 지속관리 입원환자(평균 5주×1,444천원) | 7,220 | |
| | 연간 일반의원 방문(예약)이 줄었으며, 육체건강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 보고서 | 설문 및 인터뷰 | 90 | 5년 | 일반의원 상담 | 19 | NHS 비용장부 2006 |
| | 기간에 가입한 신규 클럽/그룹활동 그리고 지역주민의 개인 웰빙 증가 및 외로움이 감소했다는 보고서 | 설문 | 16 | 1년 | 연간 평균 회원/비용 | 48.25 | 현재 버스여행, 빙고, 공예클럽 평균비용 |
| | 지역간호사 방문이 줄어들며, 지역주민이 일주일에 3일 혹은 그 이상 육체적 활동이 증가했다는 보고서 | 설문 | 14 | 2년 | 지역간호사 방문 | 34 | NHS 비용장부 07/08 |
| 지자체 | | | | | | | |

| 이해관계자 | 3단계 | | | | | | |
|---|---|---|---|---|---|---|---|
| | 결과물(무엇이 변화하였나?) | | | | | | |
| | 지표 | 근거 | 수량 | 지속 기간 | 재무적 대용치 (proxy) | 가치 (천원) | 근거 |
| 자원봉사자 (퇴사자) | 봉사를 시작한 이후 일주일에 3일간 혹은 그 이상 육체적 활동이 증가하였다는 자원봉사자 보고서 | 자원 봉사자 연간 평가 | 4 | 1년 | 연간 지역 노인의 수영강습 성공 | 162.50 | 지자체 |
| 노인/장애를 가진 지역주민의 이웃 | 연간 대상 주민의 이웃과의 쇼핑 횟수 감소 | 일회성 설문 | 275 | 3년 |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 배달 비용 | -5 | www. tesco. co.uk |
| 전체 | | | | | | | |

출처: Nicholls et al. (2010). SROI 사회적 투자수익률 측정 가이드. pp.172-175.

4단계의 사중(Deadweight) 효과는 만일 활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발생했을 결과물의 양을 측정한다. 활동과 관계없이 일어난 것은 무엇인가?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발생했을 것이다. 귀인(Attribution) 효과는 결과물의 어느 정도가 다른 조직이나 사람들의 기여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평가한다. 변화에 기여한 또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 이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다른 변수는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드롭오프는 '결과물이 미래에 사라지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없어지는, 잊혀지는 현상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표 2-18〉 4단계

| 이해관계자 | 2단계(중복) | 4단계 | | | |
|---|---|---|---|---|---|
| | 결과물 | 사중 | 귀인 | 드롭오프 | 영향력 |
| | 설명 | % | % | % | |
|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 여러분은 이 변화를 어떻게 기술하는가? | 활동과 관계없이 일어난 것은 무엇인가? | 변화에 기여한 또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 | 결과물이 미래에 드롭오프하는가? | 재무적 대용치를 수량만큼 곱함. 사중, 대체효과, 귀인을 뺀 것 |
| 노인/장애를 가진 지역주민 | 가벼운/치료 집단 운동 수업은 지역주민에게 더욱 잘 맞게 만들었으며, 그들은 병원에 가는 횟수가 다소 줄었다. | 0% | 5% | 50% | 625.10 |
| | | | | | 33,010.60 |
| | | | | | 48,013.00 |
| | 일반의원의 간호 집단수업은 지역주민이 자신의 건강과 증상을 더욱 잘 관리하게 하여 그들은 더욱 건강해졌다. | 0% | 10% | 10% | 1,539.00 |
| | 지역주민은 집단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다른 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 10% | 35% | 0% | 451.62 |
| | 지역주민은 하루에 다섯 번 중 세 번 영양가 있는 식사를 먹었으며 더욱 건강해졌다. | 100% | 0% | 0% | 0.00 |
| 지자체 | 오로지 지역주민을 위한 중요한 결과물(지방의회를 위한 것이 아님). 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모든 결과물은 이미 위에서 고려되었다. | | | | 0.00 |
| 자원봉사자 (퇴사자) | 더욱 건강해진 자원봉사자 (퇴직자) | 70% | 10% | 35% | 175.50 |
| 노인/장애를 가진 지역주민의 이웃 | 이웃의 보살핌/쇼핑의 감소와 비공식적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해체 | 5% | 0% | 5% | -1,306.25 |
| 전체 | | | | | 82,508.57 |

출처: Nicholls et al. (2010). SROI 사회적 투자수익률 측정 가이드. pp.172-175.

〈표 2-19〉 4단계(계속)

| 이해관계자 | 2단계(중복) | 4단계 | | | | |
|---|---|---|---|---|---|---|
| | 결과물 | 사회적 수익 계산 | | | | |
| | 설명 | 할인율(%) | | 3.5% | | |
|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 여러분은 이 변화를 어떻게 기술하는가? | 1년 (활동 후) | 2년 | 3년 | 4년 | 5년 |
| 노인/장애를 가진 지역주민 | 가벼운/치료 집단 운동 수업은 지역주민에게 더욱 잘 맞게 만들었으며, 그들은 병원에 가는 횟수가 다소 줄었다. | 625.10 | 0.00 | 0.00 | 0.00 | 0.00 |
| | | 33,010.60 | 0.00 | 0.00 | 0.00 | 0.00 |
| | | 48,013.00 | 0.00 | 0.00 | 0.00 | 0.00 |
| | 일반의원의 간호 집단 수업은 지역주민이 자신의 건강과 증상을 더욱 잘 관리하게 하여 그들은 더욱 건강해졌다. | 1,539.00 | 1,385.10 | 1,246.59 | 1,121.93 | 1,009.74 |
| | 지역주민은 집단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다른 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 451.62 | 0.00 | 0.00 | 0.00 | 0.00 |
| | 지역주민은 하루에 다섯 번 중 세 번 영양가 있는 식사를 먹었으며 더욱 건강해졌다. | 0.00 | 0.00 | 0.00 | 0.00 | 0.00 |
| 지자체 | 오로지 지역주민을 위한 중요한 결과물 | 0.00 | 0.00 | 0.00 | 0.00 | 0.00 |
| 자원봉사자 (퇴사자) | 더욱 건강해진 자원봉사자(퇴직자) | 175.50 | 0.00 | 0.00 | 0.00 | 0.00 |
| 노인/장애를 가진 지역주민의 이웃 | 이웃의 보살핌/쇼핑의 감소와 비공식적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해체 | -1,306.25 | -1,240.94 | -1,178.89 | 0.00 | 0.00 |
| 전체 | | 82,508.57 | 144.16 | 67.70 | 1,121.93 | 1,009.74 |
| 현재 가치 | | 79,718.43 | 134.58 | 61.06 | 977.70 | 850.17 |
| 총 현재 가치 | | | | | | 81,741 |
| 순 현재 가치 | | | | | | 39,366 |
| 1원당 사회적 수익(₩) | | | | | | ₩1.93: ₩1 |

출처: Nicholls et al. (2010). SROI 사회적 투자수익률 측정 가이드. pp.172-175.

## 나. 국내 SROI 분석 사례

국내 연구로는 백선희, 임정기, 유재윤, 임유경, 손가현(2017)이 연구한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에 대한 SROI 분석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 밖에 이아영 외(2021), 고숙자 외(2022)의 사회정책 평가 분석틀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방법론에 대한 소개와 사례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SROI 방법론의 단계별 분석에 따른 SROI 산출과는 차이가 있다.

백선희 외(2017)는 복권기금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성과를 SROI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논리 모형만으로는 성과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사회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는 SROI 개발도구를 활용하여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였다. SROI를 활용한 야간보호사업의 성과지표는 〈표 2-20〉과 같다. 백선희 외(2017)는 SROI 산출을 위해 SROI 방법론의 6단계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SROI 산출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표 2-20〉 SROI를 활용한 야간보호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 구분 | 결과물(성과) | 사회적 가치 |
|---|---|---|
| 아동 | 야간시간 아동·청소년 방임 예방 | 방임 예방시간×시간당 사업비×방임아동에 대한 지출의 사회적 가치 비율 |
| | 학습 및 사회적 역량 강화(학업성취 등) | 아동역량지수×1인당 사교육비 비용 |
| | 적정 영양 섭취로 신체 건강 | 급식제공일×1인당 급식비용 |
| 부모 |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역량강화(비경제적) | 보호자 부모역량지수×1인당 부모교육비용 |
| |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취업자(맞벌이, 한부모) 부모 수×주 12시간 노동비용 |
| | 가구의 육아비용 부담 경감(경제적) | 아동보호 총시간×시간당 돌봄서비스 구매비 |
| 교사 | 취업취약자 야간보호 교사 일자리 제공 | 야간보호 교사 수(A)×1인당 월 급여 |
| | 야간보호 담당자 부가소득 증가 | 야간보호 담당자 수(B)×1인당 월 수당 |
| | 야간보호 교사 전문성 향상 | 야간보호 담당자 수×1인당 교육비 |

| 구분 | 결과물(성과) | 사회적 가치 |
|---|---|---|
| 기관 | 프로그램 개선 등 안정적 기관 운영 | 기관 수(A, B형 구분)×1인당 운영지원비 |
| 정부 | 아동돌봄정책 사회보장비 경감 | 야간보호 초등학생 수×평균 보호시간 ×초등학생 1인당 돌봄정책비 |
| | 실업 및 저소득층 사회보장비 경감 | - 실직 전 실업급여 대상자: 교사 수× 실업급여 평균×12개월<br>- 실직 전 수급자: 교사 중 대상자 수× 가구당 기초보장비×12개월 |
| SROI 비율 | 결과물의 사회적 가치 총합(원) / 투입물 | |

출처: 백선희 외. (2017).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성과지표 개발. pp.5-6.

이외에도 조영복, 류정란(2010)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SROI 분석을 시도한 바 있으며, 류재나 외(2015)는 물환경 인프라시설의 SROI 분석을 실시하였다.

##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특성과 기존 성과측정 방법 및 한계점에 대해 살펴봤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측정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효과 측정 방식으로서 SROI 모형에 관해 소개하였다.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지출 추이를 보면, 이미 도입되어 제도화된 급여에 대한 의무지출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점, 기초연금 및 부모급여와 같이 정부가 새롭게 당면하는 정책현안에 따라 신규 제도가 도입되어 의무지출이 증가한다는 점 등 구조적으로 하방경직성을 보인다. 고제이 외(2021)의 연구에서도 사회보장지출의 속성은 정부의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하방경직적이고 자기 확장적 특성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재정 당국으로

하여금 법정 의무지출 위주로 구성된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를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며, 정말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 도입을 제약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재정의 기능은 소득재분배와 같은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바, 사회보장사업의 신규 도입이나 확대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는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는 지속적인 신규 정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신규 정책은 대부분 의무지출, 법정지출로 들어올 가능성 또한 높다. 이럴 경우 사회복지 분야의 하방경직적 지출 속성을 고려하더라도 사전 평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정책의 사전 평가에 대한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다만 사회복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 방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복지사업의 평가 방식 개편 등 지속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 효과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회투자수익률 분석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사회투자수익률 분석 방법 중 예측성 방법은 기존의 양적 연구 결과 및 관련 문헌, 그리고 질적 연구 등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국고보조금 현황에서도 살펴봤듯이,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국고보조금 내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규모가 커지며 관련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다차원적 효과 측정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 번 도입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경직적 속성을 가진 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이 되는 사업 등을 사전 단계에서 평가하

여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것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성과에 대해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보장 분야를 포함한 다수의 평가가 사업의 관리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평가를 대체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사업의 다차원적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사회투자수익률(SROI) 같은 방식의 평가 방법이 보완책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제3장

##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분석

제1절 분석 대상
제2절 현황 분석
제3절 기존 성과지표 분석
제4절 소결

# 제 3 장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분석

## 제1절 분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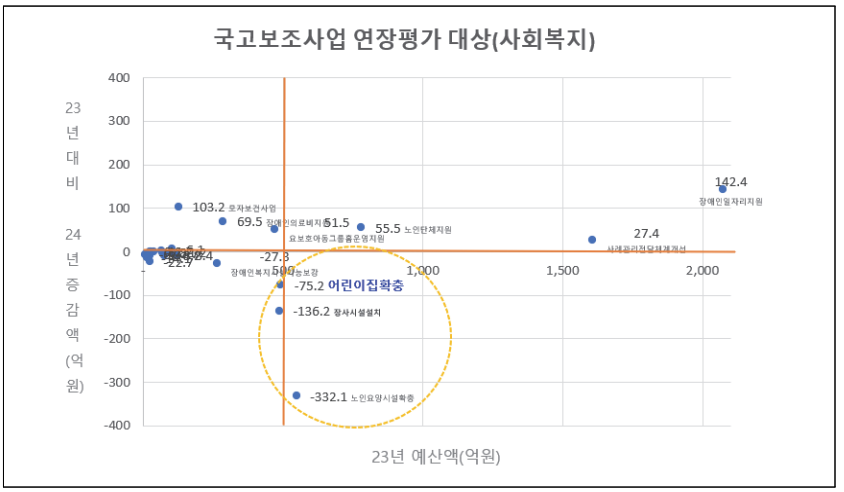
### 1. 분석 대상 선정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 중,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분석한 결과 24개 사업 중 13개 사업이 예산 감축되었으며, 보조사업 평가 결과에서 감축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100억 원 이상 사업의 감축 사유를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전년 대비 332억 원이 감축되었는데, 그 이유는 실집행률 미흡, 성과지표 미흡으로,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해당 사업은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수(명)'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서비스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주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요양시설의 안전사고 건수',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 등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사시설 설치,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다함께돌봄센터사업[6]의 예산 감축 사유도 대부분이 실집행률의 미흡과 부적절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낮음 등으로, 신규 성과지표의 개발 및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이들 사업의 성과지표는 확충 개소 수, 이용자 만족도 등으로 각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정량화하기 쉬운 지표들로 선정되어 있다.

---

6)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개소 수는 돌봄의 양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고, 돌봄의 질을 측정하는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돌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교사들의 만족도가 본 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기획재정부, 2023).

〔그림 3-1〕 분석 대상




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5,314.4억 원(24년 예산)이나, 지면의 한계로 제외함.
출처: 기획재정부. (2023).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pp.40-5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해당 사업(사회복지 분야)

(단위: 억 원)

| 순위 | 세부사업명 | 24년 예산 | 23년 대비 증감 |
|---|---|---|---|
| 1 | 노인요양시설확충 | 215.5 | -332.1 |
| 2 | 장사시설설치 | 350.3 | -136.2 |
| **3** | **어린이집확충** | **416.2** | **-75.2** |
| 4 |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 236 | -27.3 |
| 5 | 다함께돌봄센터사업 | 0 | -22.7 |
| 6 | 국제협력관리 | 0.6 | -14.1 |
| 7 | 영주귀국사할린한인정착비및시설운영지원 | 14.4 | -9.0 |
| 8 | 노인보호전문기관 | 110.8 | -8.4 |
| 9 | 장애인단체 | 68.4 | -8.2 |
| 10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구축사업 | 0 | -6.3 |

출처: 기획재정부. (2023).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pp.40-52.

본 장에서는 이들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며, 2024년 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사업 중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연장평가 결과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며(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른 영유아 부모의 육아지원정책 선호도 1위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선정), 2022년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수는 전체 어린이집 시설의 18.7%,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7.7만 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25.3% 수준으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이라고 분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확충 개소 수,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의 영향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취학 단계(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국공립교육기관의 취학 학생 비율이 80% 이상[7]인 데 반해, 취학 전 단계(유아교육)는 70% 이상[8]이 사립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공립보육 수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본 사업의 확장과 지속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사회적투자수익률 분석을 통해 본 사업의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및 민간어린이집 전환 정책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등 취약 지역과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하여

7) 2016년 기준, 전기중등교육(중학교)의 국공립기관 학생 비율은 82%,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는 57%임(OECD, 2018 OECD 교육지표, p.192.).
8) 2020년 기준, 영아교육(0~2세)의 사립기관 취학 아동 비율은 83%이며, 유아교육(3세 이상)은 73%가 사립기관에 의존하고 있음(OECD, 2023 OECD 교육지표, p.184.).

설치하게 되어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항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과 설치·운영 주체 및 심의 주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재훈, 김아름, 유해미, 김나영, 박은영, 2018). 한편,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와 저출산 장기화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력 단절과 함께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공보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3세 미만의 영아들이 이용할 어린이집이 부족한 경우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보편적 보육 지원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유해미, 2017).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늘리는 방향과 기존에 있던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있다. 먼저,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08: 새싹플랜)과 아이사랑플랜(2009~2012)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대와 취약 지역을 지원하는 보육계획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대는 2005년 1,352개소를 기준으로 2010년까지 2배로 확충하고, 영유아의 이용률을 30% 수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여성가족부, 2006.7.27.). 이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보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취약 지역의 보육 지원을 정책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이사랑플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세부 과제는 제외되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다양한 유형의 보육 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내용만 포함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제2차 보육계획(2013~2017)에서는 취약 지역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과

제를 내세우면서, 공보육 인프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직장어린이집, 우수한 민간 시설을 전환한 형태인 공공형 어린이집까지 공보육 시설의 범주가 확대되었다. 또한, 공공성 확대를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을 2012년 기준 26%인 것을 2017년에 33%로 늘릴 것을 제안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확충보다는 공보육의 범위를 넓혀서 공보육 이용 아동의 수를 증가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2018~2022)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공보육 시설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17년 기준 17%인 것을 2022년에 40%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2022년에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은 보육·양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공보육 기반의 어린이집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안하였다(보건복지부, 2022.12.13.).

## 3. 사업 소개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참여정부 시절 영아·장애아를 위한 국공립 시설 확대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는 4-2-3 수요자 중심 보육·유아교육정책 개편, "취약 지역 국공립 시설 균형 배치", 박근혜 정부는 63-1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단위과제: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확충)를 제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48-3 미래 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

현 정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위기를 과제 목표로 제시하였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 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 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근거로 하며, 사업의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신축, 리모델링 지원, 장기임차 지원, 교육 관련 기자재 구입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9)]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원 아동·보육 사업은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보육지원 강화로 나누어져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관리,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과 함께 보육지원 강화 사업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보육지원 강화 프로그램은 인구학적 측면, 여성의 경제참여, 부모 등 수요자 요구에 따라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구학적 측면에 있어서는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저 수준으로, 미래 영유아 수 감소가 전망(영유아 2020년 27.2만 명→2021년 26.1만 명)되기 때문이며, 여성의 경제참여 측면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9) 이상의 내용은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참고

참가율이 OECD 평균보다는 낮으나, 일정한 증가세로 육아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 등 수요자 요구 측면에서는 부모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안심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의 확대로 본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추진 배경과 의의와는 달리, 성과지표는 단일 지표인 "이용자 만족도"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표 3-2〉 참고).

〈표 3-2〉 보육지원 강화 사업의 목표-배경-전략-성과지표

| 구분 | 내용 |
|---|---|
| 프로그램 목표 | 보육지원 강화 |
| ⬇ | |
| 추진 배경 및 의의 | **(인구학적 측면)**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저, 미래 영유아 수 감소 전망(영유아 2020년 27.2만 명→2021년 26.1만 명)<br>**(여성의 경제참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는 낮으나, 일정한 증가세로 육아정책의 중요성 증대<br>**(부모 등 수요자 요구)** 부모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안심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는 확대 |
| ⬇ | |
| 추진 전략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br>-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국가책임 보육 강화를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속 |
| ⬇ | |
| 성과지표 |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
| ⬇ | |
| 성과관리·개선 계획 | **(문제점 진단)**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 등 외부환경 변화 및 수요자의 요구에 반영한 보육정책 추진 필요<br>**(개선 계획)**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

출처: 보건복지부. (2023). 2023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pp.398-406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살펴보면,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 시기(〈표 3-3〉)부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예산을 따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165억 원으로 책정하였고, 2014년에는 35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3.9% 증액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그 후로는 예산이 점차 줄어들어 2017년에는 224억 원으로 2016년 대비 26.0%가 줄어들었다.

〈표 3-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액(2013~2017: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 시기)

(단위: 억 원, %)

| 구분 | 박근혜 정부 | | | | |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어린이집 확충 예산액 | 165 | 353 | 334 | 302 | 224 |
| 전년도 증감액 | - | 113.9 | -5.2 | -9.6 | -26.0 |

출처: 보건복지부. (2014, 2015, 2016, 2017, 2018). 각 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 시기(〈표 3-4〉)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한 세부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예산도 2017년도 예산에서 약 200% 이상 증액하였다. 2018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684억 원이고, 2019년에는 688억 원, 2020년에는 748억 원, 2021년에는 609억 원, 2022년에는 2021년과 똑같이 60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2022년의 예산현액은 497억 원[10]인 것으로 확인된다.

2023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시기에는 공보육 시설의 이용률을 늘리고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살펴보았을 때, 492억 원,[11]

10) 보건복지부(2023).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참고
11)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참고

2024년에는 417억 원으로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액(2018~2022: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 시기)

(단위: 억 원, %)

| 구분 | 문재인 정부 | | | | | 윤석열 정부 | |
|---|---|---|---|---|---|---|---|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어린이집 확충 예산액 | 684 | 688 | 748 | 609 | 609 | 492 | 417 |
| 전년도 증감액 | 205.7 | 0.7 | 8.7 | -18.6 | 0 | -19.2 | -15.2 |

출처: 보건복지부. (2019, 2020, 2021, 2022). 각 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사업시행 방법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민간 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50%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시행 검토가 이루어지는 신청주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2년 지자체 보조를 통한 '어린이집 확충사업'에는 약 60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현재 e나라도움·보탬e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bojo.do)상의 집행 금액은 2022년 국고보조금이 약 515억 원, 지자체 매칭비가 약 468억 원으로 확인된다.[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조사업은 2023년 기준, 197건이 해당되며,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목적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첫째, 국공립어

〈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액(2023년 기준)

| 내역사업명 | 구분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금액 (2023 예산)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 근거 (해당 조항) |
|---|---|---|---|---|---|
| 어린이집 확충 | 보조 | 지자체 보조 | 48,534백만 원 | 5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 국공립 확충 및 품질관리 지원 | 보조 | 한국보육진흥원 | 603백만 원 | 10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12)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e나라도움·보탬e 보조금통합포털. (https://www.bojo.go.kr/bojo.do)(접속일: 2024.7.31.)

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둘째,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넷째,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표 3-5〉 지자체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조사업 내역(지자체 일부 예시)

| 구분 | | 사업 목적 | 사업 기간 | 사업 내용 |
|---|---|---|---|---|
| 1 | 서울 특별시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인프라 강화 | 2023.01.01.~ 2026.12.31. (4년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인프라 강화 |
| 2 | 대구 광역시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2023.01.01.~ 2023.12.31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축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및 근저당설정비(민간) 등 지원 |
| 3 | 제주 특별 자치도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2023.01.01.~ 2027.12.31. (5년간) |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
| 4 | 경기도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공보육 인프라 구축 | 2023.01.01.~ 2027.12.31. (5년간)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지원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선정 |
| 5 | 광주 광역시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및 어린이집에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도모 | 2023.01.01.~ 2023.12.31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증·개축비 및 개보수 등의 지원 |
| 6 | 전라 남도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안 | 2023.01.01.~ 2023.12.31 | 어린이집 신축, 리모델링, 장기임차 전환, 기자재비 등 |

| 구분 | | 사업 목적 | 사업 기간 | 사업 내용 |
|---|---|---|---|---|
| | | 심 보육환경 조성 기존 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 | |
| 7 | 세종 특별 자치시 |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2023.01.01.~ 2023.12.31 |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신축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23개소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가정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 10년간 무상 임차하는 어린이집 |
| 8 | 전라 북도 |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지원 | 2023.01.01.~ 2023.12.31 | 10개소(리모델링 전환 5개소, 장기임차 5개소) |

출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e나라도움·보탬e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bojo.do)(접속일: 2023.7.31.)

# 제2절 현황 분석

## 1.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현황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표 3-6〉), 전체 어린이집 수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5,801개소로 18.8%를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비율이 전체 어린이집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은 적다고 볼 수 있다.

〈표 3-6〉 전체 어린이집 현황(2022년 12월)

(단위: 개소, %)

| 구분 | 계 | 설립 주체별 | | | | | | |
|---|---|---|---|---|---|---|---|---|
| |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기관 수 | 30,923 | 5,801 | 1,254 | 610 | 9,726 | 12,109 | 132 | 1,291 |
| 비율 | 100.0 | 18.8 | 4.1 | 2.0 | 31.5 | 39.2 | 0.4 | 4.2 |

출처: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p.2.

2000년 이후로 중장기 보육계획별로 시기를 구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수와 증감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약 1,300개소이고 전체 어린이집에서 약 5%를 차지하였다. 2000년과 2003년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수가 줄어들기도 하였으나 2005년에는 124개가 증설되었다.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시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수가 늘어났으나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여전히 5% 정도만을 차지하였다. 새싹플랜이 시행된 2006년과 그다음 해인 2007년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년도보다 11.5%, 6.4%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2012년까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 시기에는 2013년 이후로 전체 어린이집의 수가 감소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신규 어린이집을 확충한 결과라기보다는 공보육의 범위를 넓히고 공보육 시설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 시기에도 전체 어린이집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해 약 2%p 증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년도와 비교해 20.04% 증가하고 그 이후로도 2020년에는 14.66%, 2021년에는 9.66%, 2022년에는 6.69%가 증가하여, 증감률은 줄어들었으나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국공립어린이집 5,801개소가 설치·운영 중이고, 이는 전체 중 18.8%를 차지한다.

〈표 3-7〉 시기별 국공립어린이집 수와 증감률

| 구분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2000~2005년 | 전체 | 19,276 | 20,097 | 22,147 | 24,142 | 26,903 | 28,367 |
| | 국공립 수 | 1,295 | 1,306 | 1,330 | 1,329 | 1,349 | 1,473 |
| | 국공립 비율 | 6.7 | 6.5 | 6.0 | 5.5 | 5.0 | 5.2 |
| 구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2006~2012년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시기) | 전체 | 29,233 | 30,856 | 33,499 | 35,550 | 38,021 | 39,842 |
| | 국공립 수 | 1,643 | 1,748 | 1,826 | 1,917 | 2,034 | 2,116 |
| | 국공립 비율 | 5.6 | 5.7 | 5.5 | 5.4 | 5.3 | 5.3 |
| 구분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2013~2017년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 시기) | 전체 | 43,770 | 43,742 | 42,517 | 41,084 | 40,238 | |
| | 국공립 수 | 2,332 | 2,489 | 2,629 | 2,859 | 3,157 | |
| | 국공립 비율 | 5.3 | 5.7 | 6.2 | 7.0 | 7.8 | |
| 구분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2018~2022년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 시기) | 전체 | 39,171 | 37,371 | 35,352 | 33,246 | 30,923 | |
| | 국공립 수 | 3,602 | 4,324 | 4,958 | 5,437 | 5,801 | |
| | 국공립 비율 | 9.2 | 11.6 | 14.0 | 16.4 | 18.8 | |

출처: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p.2.

지자체별 전체 어린이집의 수(〈표 3-8〉)는 2022년 기준 경기도 9,438개소, 서울특별시 4,712개소, 경상남도 2,123개소, 인천광역시 1,697개소, 부산광역시 1,547개소, 충청남도 1,516개소, 경상북도 1,463개소, 대구광역시 1,139개소, 전라북도 1,024개소, 대전광역시 1,013개소, 전라남도 999개소, 충청북도 972개소, 광주광역시 940개소, 강원도 906개소, 울산광역시 656개소, 제주도 451개소, 세종특별자치시 327개소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 한편,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서울특별시 38.8%, 세종특별자치시 37.3%, 대구광역시 21.6%, 부산광역시 19.7%, 전라남도 19.5%, 인천광역시 17.1%, 강원도 16.9%, 광주

광역시 14.9%, 울산광역시 14.6%, 경상남도, 14.5%, 경기도 14%, 충청북도 13.7%, 경상북도 13.6%, 전라북도 12.3%, 충청남도 11.8%, 대전광역시 10.9%, 제주도 9.8% 순으로 나타난다. 지자체별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전체 어린이집 수와 다르게 비율이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서울특별시(38.8%)와 세종특별자치시(37.3%)에 치중되어 있고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인 18.8%에 미치지는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의 2/3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지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에 편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8〉 2022년 지자체별 전체 어린이집 현황(2022.12.31. 기준)

(단위: 개소, %)

| 구분 | | | 계 | 설립 주체별 | | | | | | |
|---|---|---|---|---|---|---|---|---|---|---|
| | | |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전체 | | 기관 수 | 30,923 | 5,801 | 1,254 | 610 | 9,726 | 12,109 | 132 | 1,291 |
| | | 비율 | (100) | (18.8) | (4.1) | (2.0) | (31.5) | (39.2) | (0.4) | (4.2) |
| 수도권 | 경기 | 기관 수 | 9,438 | 1,326 | 56 | 95 | 3,022 | 4,575 | 64 | 300 |
| | | 비율 | (100) | (14.0) | (0.6) | (1.0) | (32.0) | (48.5) | (0.7) | (3.2) |
| | 서울 | 기관 수 | 4,712 | 1,829 | 21 | 84 | 1,043 | 1,405 | 26 | 304 |
| | | 비율 | (100) | (38.8) | (0.4) | (1.8) | (22.1) | (29.8) | (0.6) | (6.5) |
| | 인천 | 기관 수 | 1,697 | 291 | 11 | 10 | 576 | 726 | 3 | 80 |
| | | 비율 | (100) | (17.1) | (0.6) | (0.6) | (33.9) | (42.8) | (0.2) | (4.7) |
| 비수도권 | 경남 | 기관 수 | 2,123 | 307 | 88 | 38 | 748 | 877 | 3 | 62 |
| | | 비율 | (100) | (14.5) | (4.1) | (1.8) | (35.2) | (41.3) | (0.1) | (2.9) |
| | 부산 | 기관 수 | 1,547 | 305 | 77 | 29 | 546 | 523 | 7 | 60 |
| | | 비율 | (100) | (19.7) | (5.0) | (1.9) | (35.3) | (33.8) | (0.5) | (3.9) |
| | 충남 | 기관 수 | 1,516 | 179 | 110 | 41 | 469 | 657 | 2 | 58 |
| | | 비율 | (100) | (11.8) | (7.3) | (2.7) | (30.9) | (43.3) | (0.1) | (3.8) |
| | 경북 | 기관 수 | 1,463 | 199 | 78 | 36 | 594 | 497 | 1 | 58 |
| | | 비율 | (100) | (13.6) | (5.3) | (2.5) | (40.6) | (34.0) | (0.1) | (4.0) |
| | 대구 | 기관 수 | 1,139 | 246 | 107 | 17 | 407 | 316 | 5 | 41 |
| | | 비율 | (100) | (21.6) | (9.4) | (1.5) | (35.7) | (27.7) | (0.4) | (3.6) |
| | 전북 | 기관 수 | 1,024 | 126 | 127 | 76 | 326 | 335 | 1 | 33 |
| | | 비율 | (100) | (12.3) | (12.4) | (7.4) | (31.8) | (32.7) | (0.1) | (3.2) |
| | 대전 | 기관 수 | 1,013 | 110 | 38 | 10 | 240 | 547 | 6 | 62 |
| | | 비율 | (100) | (10.9) | (3.8) | (1.0) | (23.7) | (54.0) | (0.6) | (6.1) |
| | 전남 | 기관 수 | 999 | 195 | 150 | 45 | 303 | 268 | 2 | 36 |
| | | 비율 | (100) | (19.5) | (15.0) | (4.5) | (30.3) | (26.8) | (0.2) | (3.6) |
| | 충북 | 기관 수 | 972 | 133 | 106 | 26 | 347 | 320 | 2 | 38 |
| | | 비율 | (100) | (13.7) | (10.9) | (2.7) | (35.7) | (32.9) | (0.2) | (3.9) |
| | 광주 | 기관 수 | 940 | 140 | 91 | 21 | 296 | 363 | 2 | 27 |
| | | 비율 | (100) | (14.9) | (9.7) | (2.2) | (31.5) | (38.6) | (0.2) | (2.9) |
| | 강원 | 기관 수 | 906 | 153 | 100 | 35 | 276 | 281 | 4 | 57 |
| | | 비율 | (100) | (16.9) | (11.0) | (3.9) | (30.5) | (31.0) | (0.4) | (6.3) |
| | 울산 | 기관 수 | 656 | 96 | 13 | 5 | 289 | 212 | 4 | 37 |
| | | 비율 | (100) | (14.6) | (2.0) | (0.8) | (44.1) | (32.3) | (0.6) | (5.6) |
| | 제주 | 기관 수 | 451 | 44 | 72 | 38 | 182 | 93 | 0 | 22 |
| | | 비율 | (100) | (9.8) | (16.0) | (8.4) | (40.4) | (20.6) | (0.0) | (4.9) |
| | 세종 | 기관 수 | 327 | 122 | 9 | 4 | 62 | 114 | 0 | 16 |
| | | 비율 | (100) | (37.3) | (2.8) | (1.2) | (19.0) | (34.9) | (0.0) | (4.9) |

주: 어린이집 전체 개수 순으로 내림차순 함.
출처: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p.9.

## 2. 교직원 및 아동 현황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소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도별로 교직원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3-9〉).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외의 다른 유형에서는 교직원 수가 줄면서 전체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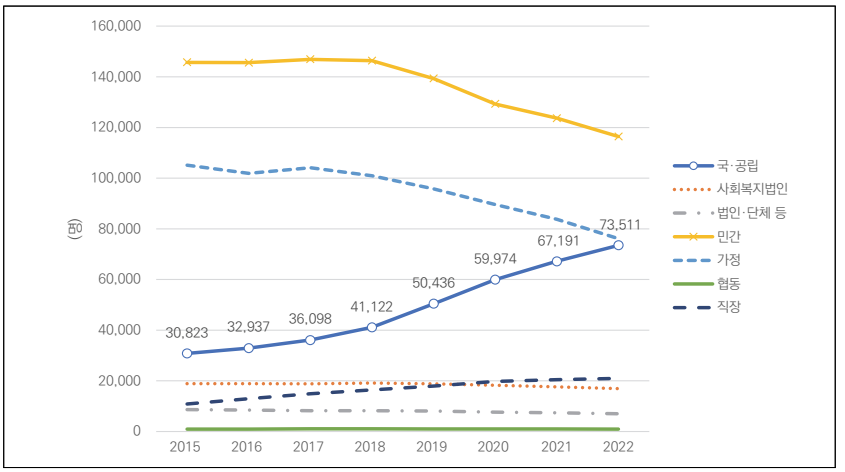
〈표 3-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 추이

(단위: 명, %)

| 연도 | 전체 어린이집 | | 국공립어린이집 | |
|---|---|---|---|---|
| | 인원 | 전년 대비 증감률 | 인원 | 전년 대비 증감률 |
| 2015 | 321,067 | 2.97 | 30,823 | 6.37 |
| 2016 | 321,766 | 0.22 | 32,937 | 6.86 |
| 2017 | 330,217 | 2.63 | 36,098 | 9.60 |
| 2018 | 333,420 | 0.97 | 41,122 | 13.92 |
| 2019 | 331,444 | -0.59 | 50,436 | 22.65 |
| 2020 | 325,669 | -1.74 | 59,974 | 18.91 |
| 2021 | 321,116 | -1.40 | 67,191 | 12.03 |
| 2022 | 311,996 | -2.84 | 73,511 | 9.41 |

주: 보육교직원 수는 정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서 임용, 출산휴가 상태인 보육교직원 수임.
출처: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p.4.

〔그림 3-2〕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수




출처: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p.4.를 기초로 저자 작성.

〈표 3-10〉 2022년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2022.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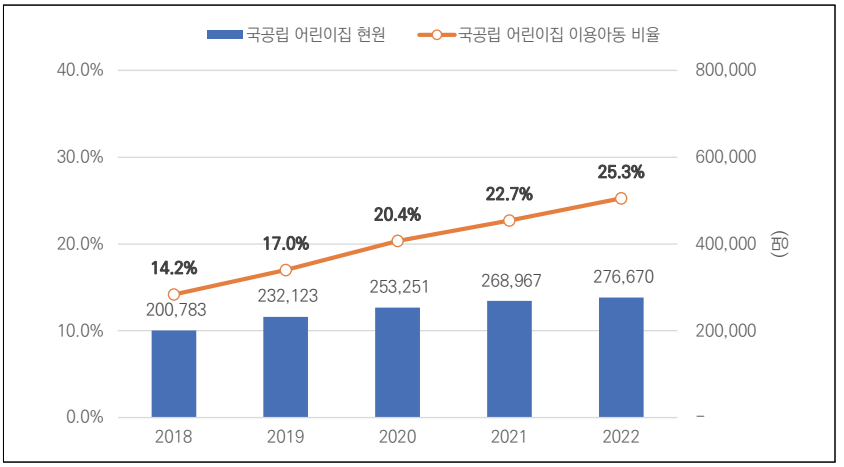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 계 | 원장 | 보육교사 | 특수교사 | 영양사 | 간호사 | 조리원 | 기타 |
|---|---|---|---|---|---|---|---|---|
| **계** | **311,996** | **30,773** | **231,304** | **1,510** | **1,018** | **872** | **28,402** | **18,117** |
| 국공립 | 73,511 | 5,754 | 56,395 | 751 | 167 | 186 | 6,911 | 3,347 |
| 사회복지법인 | 16,975 | 1,250 | 11,509 | 552 | 62 | 52 | 1,529 | 2,021 |
| 법인·단체 등 | 7,027 | 608 | 4,806 | 50 | 36 | 41 | 704 | 782 |
| 민간 | 116,442 | 9,680 | 88,189 | 148 | 525 | 374 | 9,785 | 7,741 |
| 가정 | 76,144 | 12,057 | 53,906 | 1 | 0 | 0 | 7,134 | 3,046 |
| 협동 | 953 | 132 | 644 | 2 | 0 | 2 | 124 | 49 |
| 직장 | 20,944 | 1,292 | 15,855 | 6 | 228 | 217 | 2,215 | 1,131 |

출처: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p.178.

2022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은 총 27만 6,670명이고,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비율은 약 25.3%이다. 이 비중은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3-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2019, 2020, 2021, 2022, 2023). 2018~2022년 보육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장애 아동은 2022년 기준 6,416명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전체 장애 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약 48.2%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3-11〉 어린이집 유형별 장애아 현원(2022)

(단위: 명(%), 개소)

| 어린이집 유형 | 장애아 현원 합계 | 어린이집 수 |
|---|---|---|
| 국공립 | 6,416 (48.19) | 5,801 |
| 사회복지법인 | 4,041 (30.35) | 1,254 |
| 법인·단체 등 | 469 (3.52) | 610 |
| 민간 | 2,143 (16.09) | 9,726 |
| 가정 | 162 (1.22) | 12,109 |
| 협동 | 16 (0.12) | 132 |
| 직장 | 68 (0.51) | 1,291 |
| **계** | **13,315 (100)** | **30,923** |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21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아동 중 맞벌이 가구에 속하는 아동의 비중은 약 61.5%로, 유형별로 비교했을 때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표 3-12〉). 이와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입소 우선순위[13] 자격 부여 기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양미선 외, 2021).

〈표 3-12〉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가구의 맞벌이 여부(2021)

(단위: %)

| 어린이집 유형 | 맞벌이 | 외벌이 | 둘 다 무직 | 계(%, n) |
|---|---|---|---|---|
| 국공립 | **61.5** | 37.4 | 1.2 | 100(390) |
| 사회복지법인 | **49.1** | 50.9 | 0 | 100(107) |
| 법인·단체 등 | **63.6** | 36.4 | 0 | 100(58) |
| 민간 | **49.5** | 48.0 | 2.5 | 100(650) |
| 가정 | **49.4** | 48.0 | 2.6 | 100(200) |
| 직장 | **72.2** | 27.8 | 0 | 100(55) |
| 협동 | **57.0** | 43.0 | 0 | 100(4) |
| 전체 | **54.3** | 43.9 | 1.8 | 100(1,4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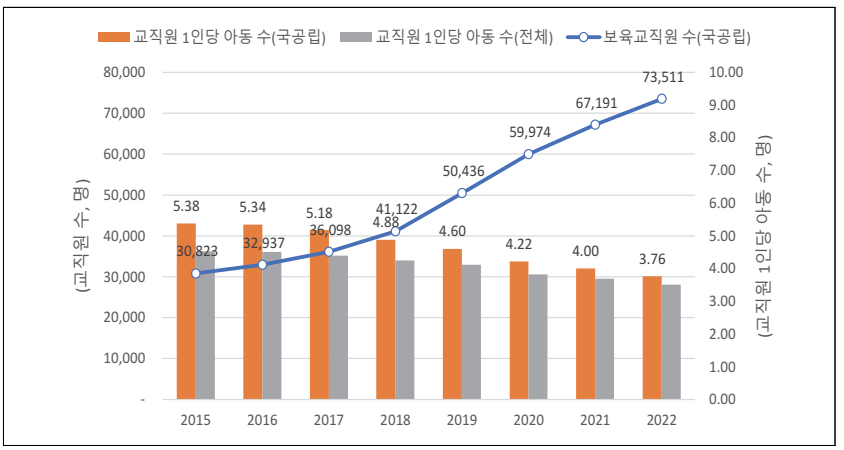
출처: 김은설 외. (2021).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90, 표 V-3-2에서 발췌함.

13) 입소 우선순위 정책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그 밖의 비영리법인어린이집이 법에서 정한 대상에게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임. 2006년부터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를 입소 우선순위 대상자로 정하였으며, 입소 순위 배점은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이 산정됨.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200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배점이 높음(최혜진, 정홍원, 황안나. 2020, p.59.).

## 제3절 기존 성과지표 분석

공보육 확충사업의 결과지표(Outcome)이자 보육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서,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 1인당 보육아동 수는 2022년 기준 3.76명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그림 3-4〕) 교직원 수도 함께 증가하여, 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전체 어린이집의 교직원 1인당 아동 수 평균(3.51명)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어린이집 유형별로 비교했을 때는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 다음으로 낮다.

〔그림 3-4〕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 교직원 1인당 보육아동 수 추이




주: 보육교직원 수는 정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서 임용, 출산휴가 상태인 보육교직원 수임.
출처: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p.5.를 기초로 저자 작성.

〈표 3-13〉 어린이집 유형별 교직원 1인당 아동 수(2022)

(단위: 명)

| 어린이집 유형 | 보육아동 수 | 보육교직원 수 | 교직원 1인당 아동 수 |
|---|---|---|---|
| 국·공립 | 276,670 | 73,511 | 3.76 |
| 사회복지법인 | 64,503 | 16,975 | 3.80 |
| 법인·단체 등 | 27,743 | 7,027 | 3.95 |
| 민간 | 477,628 | 116,442 | 4.10 |
| 가정 | 184,053 | 76,144 | 2.42 |
| 협동 | 3,203 | 953 | 3.36 |
| 직장 | 61,650 | 20,944 | 2.94 |
| **계** | **1,095,450** | **311,996** | **3.51** |

출처: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p.5.를 기초로 저자 작성.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교원의 평균 경력은 총경력이 약 7년 1개월, 현재 어린이집 재직 경력이 3년 2개월이다. 이는 전체 평균에 비해 각각 5개월, 3개월 짧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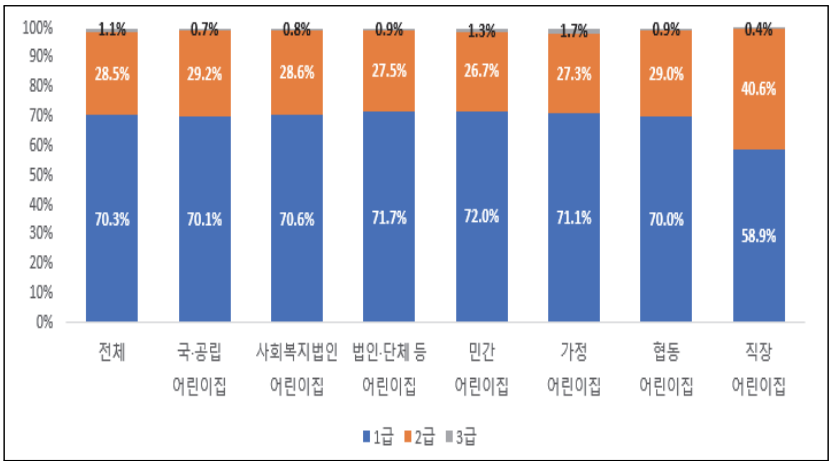
〈표 3-14〉 어린이집 유형별 교직원 평균 경력

| 구분 | 2021 조사 | | 2018 조사 | |
|---|---|---|---|---|
| | 어린이집 교사 총 경력 | 현재 어린이집 재직 경력 | 어린이집 교사 총 경력 | 현재 어린이집 재직 경력 |
| **전체** | **7년 6개월** | **3년 5개월** | **6년 4개월** | **3년 1개월** |
| 국공립 | 7년 1개월 | 3년 2개월 | 6년 9개월 | 3년 9개월 |
| 사회복지법인 | 8년 3개월 | 4년 10개월 | 7년 6개월 | 4년 7개월 |
| 법인·단체 등 | 8년 5개월 | 5년 | 7년 4개월 | 4년 5개월 |
| 민간 | 7년 7개월 | 3년 4개월 | 6년 3개월 | 2년 11개월 |
| 가정 | 8년 | 3년 5개월 | 6년 3개월 | 2년 10개월 |
| 직장 | 5년 2개월 | 3년 1개월 | 4년 6개월 | 2년 6개월 |

출처: 유해미 외.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p.226, 표 IV-1-7; 양미선 외. (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고), p.201, 표 V-1-6.

보육교사의 자격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중 약 70%는 1급, 나머지 29%는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1급 자격자 비율의 경우 전체 평균과 유사하고,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1~2%p 낮은 수준이다.

〔그림 3-5〕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 자격 현황(2022)




출처: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pp.232-238.를 기초로 저자 작성.

초임 보육교사의 기본급은 2021년 기준 월평균 189.2만 원, 제수당 월평균 48.6만 원으로 이를 합산한 총급여액은 월평균 237.9만 원이다(김은설 외, 2021, p.218). 국공립어린이집의 초임 교사 월급여 총액은 250.4만 원이며,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보다 평균 19.8~32.5만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2021 초임 교사 기본급, 제수당, 총액

(단위: 만 원(개소))

| 구분 | 기본급 | | | 제수당 | | | 월급여 총액 | | |
|---|---|---|---|---|---|---|---|---|---|
| | 평균 | 표준편차 | (수) | 평균 | 표준편차 | (수) | 평균 | 표준편차 | (수) |
| 전체 | 189.2 | 26.4 | (2,287) | 48.6 | 23.6 | (2,287) | 237.9 | 40.0 | (2,287) |
| **어린이집 유형** | | | | | | | | | |
| 국공립 | 198.4 | 20.3 | (523) | 52.0 | 22.6 | (523) | 250.4 | 33.5 | (523) |
| 사회복지법인 | 201.5 | 32.9 | (148) | 46.4 | 23.6 | (148) | 247.9 | 44.8 | (148) |
| 법인·단체 | 200.4 | 35.3 | (66) | 47.9 | 25.0 | (66) | 248.4 | 45.9 | (66) |
| 민간 | 182.8 | 17.9 | (762) | 47.8 | 20.9 | (762) | 230.6 | 31.3 | (762) |
| 가정 | 176.0 | 25.6 | (513) | 41.9 | 22.8 | (513) | 217.9 | 40.6 | (513) |
| 직장 | 205.1 | 32.5 | (276) | 58.3 | 29.1 | (276) | 263.4 | 43.9 | (276) |
| F | 91.3*** | | | 20.9*** | | | 76.8*** | | |
| **소재지** | | | | | | | | | |
| 대도시 | 192.2 | 23.7 | (902) | 46.1 | 21.1 | (902) | 238.4 | 35.7 | (902) |
| 중소도시 | 186.5 | 27.9 | (900) | 47.5 | 24.4 | (900) | 234.0 | 41.8 | (900) |
| 농어촌 | 188.8 | 27.6 | (485) | 55.2 | 25.3 | (485) | 244.0 | 43.5 | (485) |
| F | 10.9*** | | | 25.3 | | | 10.0*** | | |
| **어린이집 규모** | | | | | | | | | |
| 20명 이하 | 178.3 | 26.7 | (656) | 43.0 | 23.2 | (656) | 221.3 | 42.0 | (656) |
| 21~39명 | 191.9 | 21.5 | (432) | 48.6 | 22.5 | (432) | 240.5 | 35.5 | (432) |
| 40~79명 | 193.0 | 28.5 | (747) | 49.4 | 21.6 | (747) | 242.4 | 37.5 | (747) |
| 80명 이상 | 196.4 | 21.2 | (451) | 55.5 | 26.4 | (451) | 251.9 | 37.3 | (451) |
| F | 59.4*** | | | 26.3*** | | | 64.8*** | | |
| 2018년 조사 | 161.7 | 34.8 | (1,321) | 30.1 | 22.4 | (1,321) | 192.0 | 42.1 | (1,321) |
| 2015년 조사 | 132.8 | 20.5 | (1,496) | 25.6 | 20.8 | (1,496) | 158.4 | - | (1,496) |

주: 1) 제수당에는 어린이집 회계에 포함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수당, 어린이집 자체 지급 수당,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직접 지급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됨.
2) 본 연구 결과는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3) *** p〈.001

출처: 김은설 외. (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218.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

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14]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중 이와 같은 공적 질 관리 체계 내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의 비중은 2022년 말 기준 약 97.6%이다. 유형별로 비교했을 때는 법인·단체, 가정, 민간어린이집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표 3-16〉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2022.12.31. 기준)

(단위: 개소(%))

| 어린이집 유형 | 인증 | | 미인증 | | 계 | |
|---|---|---|---|---|---|---|
| 국공립 | 5,237 | (97.58) | 130 | (2.42) | 5,367 | (100) |
| 사회복지법인 | 1,238 | (98.80) | 15 | (1.20) | 1,253 | (100) |
| 법인·단체 등 | 586 | (96.54) | 21 | (3.46) | 607 | (100) |
| 민간 | 9,317 | (96.50) | 338 | (3.50) | 9,655 | (100) |
| 가정 | 11,662 | (97.22) | 334 | (2.78) | 11,996 | (100) |
| 협동 | 128 | (100) | 0 | (0.00) | 128 | (100) |
| 직장 | 1,213 | (98.78) | 15 | (1.22) | 1,228 | (100) |
| **계** | **29,381** | **(97.18)** | **853** | **(2.82)** | **30,234** | **(100)** |

주: 2022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은 제외함.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아동 돌봄 체계의 장기적 성과(impact) 차원에서 우선 아동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표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1~2세 아동 중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21년 기준 약 3.2%, 3~5세 중에서는 5.2% 정도이다. 1~2세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비중이 감소해왔으나 2021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3~5세 역시 2021년에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표 3-17〉 지표는 아동의 보육기관 정보를 비롯한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알 수 없어 안전한 보육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14)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어린이집 평가-평가 결과공표-공표개요 (https://info.childcare.go.kr/info/cera/contents/cont010101.jsp) 참조

〈표 3-17〉 연령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단위: %)

| 연령 | 2018 | 2019 | 2020 | 2021 |
|---|---|---|---|---|
| 1~2세 | 5.3 | 2.5 | 2.7 | 3.2 |
| 3~5세 | 3.8 | 4.3 | 3.4 | 5.2 |

주: 1) 영양섭취 부족자: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 추정량[2)]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2)] 미만인 자
2) 필요 추정량, 평균 필요량: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2020). 2019 영유아 주요통계, p.65.; 육아정책연구소. (2021). 2020 영유아 주요통계, p.73.; 육아정책연구소. (2022). 2021 영유아 주요통계, p.64.; 육아정책연구소. (2023). 2022 영유아 주요통계, p.63.에서 재인용.

아동 건강상태에 대한 결과지표로서 입원율과 외래이용률을 살펴보면, 1~5세 아동의 2021년 기준 연간 입원율은 8%, 최근 2주간 외래이용률은 25.5%이다. 두 지표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3-18〉 1-5세 연간 입원율 및 2주간 외래이용률

(단위: %)

| 지표 | 2018 | 2019 | 2020 | 2021 |
|---|---|---|---|---|
| 연간 입원율 | 14.4 | 12.6 | 15.5 | 8.0 |
| 2주간 외래이용률 | 43.2 | 45.0 | 32.9 | 25.5 |

주: 1) 연간 입원율: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는 분율
2) 2주간 외래이용률: 최근 2주 동안 입원을 하지 않고, 병의원(치과 포함)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율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2020), 2019 영유아 주요통계, p.69.; 육아정책연구소. (2021), 2020 영유아 주요통계, p.77.육아정책연구소. (2022), 2021 영유아 주요통계, p.68.; 육아정책연구소. (2023), 2022 영유아 주요통계, p.67.에서 재인용함.

공공보육서비스 강화의 대표적인 성과지표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들 수 있는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3년 15세 이상 여성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은 약 55.6%이고,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19〉 여성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단위: 천 명, %)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15세 이상 여성 인구 | 22,484 | 22,618 | 22,750 | 22,882 | 22,988 | 23,045 |
| 여성 경제활동인구 | 11,893 | 12,097 | 12,007 | 12,186 | 12,546 | 12,817 |
| **여성경제 활동참가율** | **52.9** | **53.5** | **52.8** | **53.3** | **54.6** | **55.6**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jsessionid=bw47r6X8wn51WQJ1erZ4XKoxK6R0YI-DDtwtoh_x.node11?idx_cd=1572), 24.1.20. 인출.

공보육 강화로 인한 아동 돌봄부담 감소와 관련해서 아동 양육가구의 돌봄 시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통계청에서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기혼 남·녀의 가족 및 가구원 돌봄 시간은 2014년 평균 33분에서 2019년 31분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이때 남성의 가구원 돌봄 시간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의 돌봄 시간은 5분가량 줄어들었다. 다만 이는 자녀의 연령이 고려되지 않은 수치로, 필요시 미취학 아동에 한정한 돌봄 시간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 3-20〉 기혼 성인의 성별 일일 평균 시간 사용 내역 변화

(단위: 시간:분)

| 행동 분류별 | 2014 | | | 2019 | | |
|---|---|---|---|---|---|---|
| | 계 | 남자 | 여자 | 계 | 남자 | 여자 |
| 계 | 24:00 | 24:00 | 24:00 | 24:00 | 24:00 | 24:00 |
| 개인 유지 | 11:11 | 11:12 | 11:11 | 11:31 | 11:27 | 11:35 |
| 일 | 3:42 | 5:02 | 2:32 | 3:31 | 4:44 | 2:26 |
| 학습 | 0:04 | 0:03 | 0:04 | 0:05 | 0:04 | 0:05 |
| 가정관리 | 1:58 | 0:38 | 3:09 | 1:58 | 0:48 | 3:01 |
|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 0:33 | 0:15 | 0:49 | 0:31 | 0:16 | 0:44 |
| 자원봉사 및 무급연수 | 0:02 | 0:01 | 0:03 | 0:02 | 0:01 | 0:02 |
| 교제 및 참여활동 | 1:13 | 1:01 | 1:24 | 1:00 | 0:47 | 1:11 |
| 문화 및 여가활동 | 3:39 | 3:56 | 3:24 | 3:46 | 4:04 | 3:31 |
| 이동 | 1:37 | 1:52 | 1:24 | 1:36 | 1:48 | 1:25 |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9, 성인 기혼여자의 취업 여부별 평균 시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TS202022&conn_path=I2에서 24.1.20. 인출.)

또한 가족 돌봄 시간의 변화를 성인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취업 여성에서는 2014년 대비 2019년에 큰 변화가 없고, 비취업 그룹에서 돌봄 시간 감소가 확인된다.

〈표 3-21〉 성인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별 일일 평균 시간 사용 내역 변화

(단위: 시간: 분)

| 행동분류별 | 2014 | | | 2019 | | |
|---|---|---|---|---|---|---|
| | 계 | 취업 | 비취업 | 계 | 취업 | 비취업 |
| 계 | 24:00 | 24:00 | 24:00 | 24:00 | 24:00 | 24:00 |
| 개인유지 | 11:11 | 10:54 | 11:28 | 11:35 | 11:14 | 11:57 |
| 일 | 2:32 | 4:58 | 0:08 | 2:26 | 4:37 | 0:09 |
| 학습 | 0:04 | 0:02 | 0:06 | 0:05 | 0:03 | 0:08 |
| 가정관리 | 3:09 | 2:30 | 3:48 | 3:01 | 2:25 | 3:38 |
|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 0:49 | 0:29 | 1:09 | 0:44 | 0:29 | 1:00 |
| 자원봉사 및 무급연수 | 0:03 | 0:03 | 0:04 | 0:02 | 0:01 | 0:03 |
| 교제 및 참여활동 | 1:24 | 1:09 | 1:38 | 1:11 | 0:58 | 1:25 |
| 문화 및 여가활동 | 3:24 | 2:21 | 4:26 | 3:31 | 2:36 | 4:28 |
| 이동 | 1:24 | 1:35 | 1:13 | 1:25 | 1:37 | 1:13 |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9, 성인 기혼여자의 취업 여부별 평균 시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TS202022&conn_path=I2에서 24.1.20. 인출.)

## 제4절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등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정부가 재정평가를 위해 활용한 성과지표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목적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한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며,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있다. 첫째,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과는 달리, 사업의 평가 지표에는 “양질의 보육”을 비롯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에 대한 지표를 찾아볼 수 없다.

정부의 성과평가 자료 이외에 보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는 1인당 교직원 수, 교직원의 평균 경력, 보육교사의 자격 현황, 평가인증 비중 등이 해당한다. 보육의 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보육(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왔다. 그 밖에 아동의 건강상태, 모의 경제활동참가율 등 성과지표의 다각화가 필요하지만, 보육기관을 유형화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자료가 부재한 것이 현재 상황이다.

# 제4장

## 성과지표 개발

제1절 이해관계자별 초점집단 인터뷰 실시
제2절 신규 성과지표 분석
제3절 소결

# 제 4 장 성과지표 개발

## 제1절 이해관계자별 초점집단 인터뷰 실시

### 1. 이해관계자 확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성과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목록화한 후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분석의 1단계에 해당된다.

〈표 4-1〉 이해관계자 목록화

| 주요 이해관계자 | 포함 여부 | 포함/제외 이유 |
|---|---|---|
| 아동 | 포함 |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이다. 그러나 5세 미만의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이외에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그룹 |
| 부모 | 포함 |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 |
| 조부모 및 인척 | 제외 | 부모 다음으로 보육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이나,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직접적 관계자라 할 수 없음 |
| 원장 | 포함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 |
| 보육교사 | 포함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 |
| 특수교사 | 제외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없음 |
| 치료사 | 제외 | 특수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접적 관련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없음 |
| 영양사 혹은 조리원 | 제외 | 국공립어린이집 이외에도 민간어린이집 등 다른 직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제외 |
| 기타 | 제외 | 보조교사, 도우미, 서무,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그 외 직원들로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 버스기사 | 제외 | 국공립어린이집 이외에도 민간어린이집 등 다른 직장을 얻을 수 있음 |
| 지방자치단체 | 포함 | 자금을 제공하여 활동에 영향을 미침 |
| 정부 | 포함 | 자금을 제공하여 활동에 영향을 미침 |

FGI의 참여자는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등 국공립 어린이집의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과로 혜택을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대변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성원들이다.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장 그룹을 제외하고는 대도시, 농어촌, 중소도시로 소재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룹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1회당 약 2시간가량 소요되었는데, 먼저 연구진이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및 녹취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집단 면담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최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4-2〉 FGI 연구 참여자 현황

| FGI 그룹 | 연구 참여자 | 직위 | 면담 일시 | 장소 |
|---|---|---|---|---|
| 대도시/원장 | A | 원장 1 | 2023. 10. 10 | 서울 수도권사회조사센터 |
| | B | 원장 2 | | |
| 대도시/교사 | C | 보육교사 | 2023. 10. 11 | 서울 수도권사회조사센터 |
| | D | 특수교사 | | |
| 대도시/교사·기타 직원(곡교) | B | 원장 2 | 2023. 10. 16 | OO 어린이집 |
| | E | 보육교사 1 | | |
| | F | 보육교사 2 | | |
| | G | 치료사(작업치료사) | | |
| | H | 영양사 | | |
| 농어촌/원장·교사(퇴촌) | I | 원장 | 2023. 10. 25 | OO 어린이집 |
| | J | 보육교사 1 | | |
| | K | 보육교사 2 | | |
| 중소도시(상현) | L | 원장 | 2023. 10. 26 | OO 어린이집 |
| | M | 보육교사 | | |
| | N | 치료사 | | |

## 2. 초점집단 인터뷰(FGI) 결과

### 가. 아동 측면

1)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1) 전문성을 가진 보육교사

낮은 출산율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심지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좋은 교사가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되어 교사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 육아휴직이나 경력 인정과 같은 적절한 처우를 함으로써 좋은 선생님을 유인할 수 있고, 취직 후에도 선생님이 '참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거는 그냥 지원하지만, 국공립은 내가 붙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서류를 넣지 않을까 싶어요.(곡교, 보육교사2)"
>
> "선생님들도 되게 전문적이시고 그리고 여기 교육 방침 같은 것들이 뭔가 아이를 위한 것들이고 정말 진심으로 다 느껴져서, 저도 아이를 낳는다면 여기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과 다를 거 없이 여기서도 교육과 보육을 아이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상현, 보육교사)"

어린이집 종사자는 크게 원장, 보육교사, 기타(영양사, 간호사, 치료사, 사무원 등)로 구분된다. 이 중 보육교사에게는 보육교사 자격증, 장애 아동 지원을 위한 치료사에게는 치료사 자격증, 영양사에게는 영양사 자격증 같이 각각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자격증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사의 자격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많은 교사가 근무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교육 경험을 가진 양질의 교사가 유입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좋은 보육교사'를 보육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교사,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 참 보육을 실현하려는 교사로 정의하고 있었다.

> "저희는 일반 사무직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 있어서 대체 인력도 담임교사 아니면 케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저는 '무조건 1년은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한 달 일하고 '그만둘게요.' 두 달 일하고 '그냥 안 맞으니 그만두고 딴 데 갈게요.' 하시는 선생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퇴촌, 보육교사 2)"
>
> "어린이집을 막 옮겨 다니는 선생님을 일부러 뽑지는 않았어요...경력자들은 조각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하죠.(상현, 원장)"
>
> "저는 기준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력서를 볼 때 전공자를 봐요. 유아교육을 했는지 아니면 최소 아동 보육학과를 나왔는지 이걸 보고...전공을 하고 계속 교육 유아교육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게 적성에 맞는다는 얘기를 해요.(상현, 원장)"
>
> "참 보육을 실현해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의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데에 자부심들이 대부분의 좋은 교사들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곡교, 원장)"

보육이란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의미한다. 아동의 발달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아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은 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보다 한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 수가 적다. 예컨대, 어린이집은 7세 반 정원이 20명인 데 반해 유치원은 26명으로, 더 적은 수로 한 반을 꾸린다. 따라서 교사가 아동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동의 필요에 귀 기울여 그에 맞춰 보육할 수 있다는 것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보건복지부(2023)에서 발표한 보육통계자료(〈표 3-13〉 참조)에서 역시,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3.76명으로 민간어린이집(4.10명)과 비교해 교직원 1인당 아동 수의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아동을 하다 보면 관찰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이게 관찰을 잘할 수가 있어요.... 인원수가, 교사가 맡는 인원수가 적다면 관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아동에 대해서 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고 질적인 도움을,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상현, 원장)"

### 1-2)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충분한 교재·교구 활용

"아이들한테 교재 교구가 되게 풍족해요. 이거는 민간하고 또 틀린 거.(퇴촌, 원장)"

연구 참여자들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양질의 보육이 가능한 것에 대해 훌륭한 교재와 교구를 하나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풍족한 교재와 교구를 활용한 보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계획에 따른 교재 및 교구 구입에 자율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환경을 자신의 보육관과 보육 철학에 근거하여 계획을 세우고 아동에게 질 좋은 보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구와 교재의 교체 빈도가 높기 때문에 세균 등의 감염 노출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동 수와 비례하여 다양한 교재·교구가 활용된다는 것은 구강기의 아동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질병 감염에 따른 병원비용 지출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로 이어진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보다는 국공립 같은 경우에서는 선생님들이 원장님이랑 자기 교육관이 조금 일치한다 싶으면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반에서 어떤 걸 운영을 한다고 해도 제지를 받는 부분이 좀 덜한 것 같긴 하더라고... 저는 여기에 와가지고 제가 반에서 아이들한테 필요해서 이런저런 게 필요해요. 해서 올린 기안들이 커트 당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곡교, 보육교사2)"

"민간이나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씀씀이에 대한 운영이 조금은 제약이 따를 것 같고 그 눈치를 아무래도 교직원들은 볼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아이들한테 그 환경에 영향이 갈 거라는 생각은 해요.(곡교, 보육교사1)"

2) 아이들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된다

아동에게 양질의 음식이 제공된다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가 높은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풍성한 식재료로 좋은 음식을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급·간식비의 하한가 기준이 있고, 예산 사용에 대한 압박이 덜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 "그게 국공립의 장점일 거예요. 왜냐면 하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1인당 영아는 2,300원 유아는 한 2,800원 이상 먹이라고, 저희는 그거보다 많이 잡거든요.(곡교, 원장)"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한 명의 영양사를 별도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내 5개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대규모인 경우가 많아 별도의 영양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영양사가 어린이집에 특화된 식단을 계획하고,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여 아동에게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은 아동의 균형 잡힌 식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영양사가 아이의 건강한 식단을 책임질 수 있는 쾌적한 근무 환경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 "저희는 저희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짜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만의 레시피, 저희만의 식당, 그다음에 막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곡교, 원장)"
>
> "(공동으로 관리하면) 제가 관리를 할 수 없는 시간이 길잖아요. 어떤 사고 났을 때 책임은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같은 거...식중독 이런 거. 만약에 하루 간다고 하면은 못 가는 날이 생길 텐데, 그날은 제가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좀 부담을 갖지요. 발주는 하고 일단 (다른 곳으로) 왔을 때 이제 질이 떨어지거나 위생적으로 안 좋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반품을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좋은 물건으로 (바꿔야 하는데).(곡교, 영양사)"

3)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기 아동의 신체, 언어, 사회 및 정서적 발달 등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특히 영아기에는 다양한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대근육과 소근육의 발달과 인지적 발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공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설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특성상, 많은 경우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놀이 공간을 보유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넓은 공간과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국공립어린이집의 큰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단 교실이 넓고, 제가 있었던 데(사립유치원)도 되게 큰 원이었거든요. 근데 교실이 조금 작았어요. 아이들이 많은데 그 공간에, 또 이제 또 많은 반 수를 만들어야 되니까...아이들 수도 좀 많아서 공간에 대한 비율도 좀 많이 아이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 비율도 낮았고. 그리고 여기는 일단 여기 앞뒤로 호수공원도 있고 그 뒤에 숲도 있고 놀이터도 넓고 강당도 넓고 일단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 자체들이... 환경이 좋아요.(상현, 보육교사)"

"들어오시다 봤겠지만 물리적인 환경 매우 좋잖아요. 이런 커다란 마당이 있고, 옥상 놀이터 지금 못 보셔서 그렇지 진짜 좋거든요.(곡교, 원장)"

4) 취약아동에게 주어지는 보육 기회

4-1) 장애 아동 보육

장애아 보육 측면에서는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일부는 일반 아동과 통합반을 운영하고, 치료사가 장애 아동을 1:1 지도할 수 있는 치료실을 구비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또한 장애 아동 보육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치료사들은 센터에서는 1:1로 아이를 지도하기 때문에 장애 아동의 일반적한 환

경 속에서의 생활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동에 대한 개별 지도와 일반 생활에서의 지도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언급하였다.

> "언어치료 수업하는 방이 있어서 제가 반에 가서 장애 아동을 데리고 와서 그 방(치료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는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별도의 방에서 1대 1로 수업하고 있어요. 어떤 좀 차이가 있어요. ... 아무래도 센터는 이제 어머니의 말에만 의존하여 장애 아동의 상태를 평가하거나 치료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어머니 말(가정에서의 행동)도 들을 수 있고, 선생님 말(교실 생활)도 들을 수 있고, 장애 아동의 생활을 제가 직접 관찰할 수 있어서 부모-교사-치료사가 함께 아동을 충분히 관찰하고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었던 점이 저에게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목표를 짜거나 수업을 할 때 고려할 것들을 더 추가하여, 아동의 치료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어요.(상현, 치료사)"

국공립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시간연장, 방과후, 24시간, 휴일보육 등의 시설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한다. 장애아동을 받는 유형으로는 장애아전문과 장애아통합이 있다. 장애아통합 시설의 경우,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을 통합해 반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장애 아동이 앞으로 살아갈 일반적인 사회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러한 보육 환경 속에서 치료사는 일반 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가 무엇이고, 더 쉽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1대 1의 치료실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작은 사회는 교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과감히 치료사 선생님이 1대 1로 빼나와서 수업하는 것도 좋지만 풀 인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하라는 취지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이 시스템이 좋아라고 대부분 그러세요.(곡교 원장)"

장애 아동에 대한 보살핌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때의 보살핌은 영유아 대상과 달리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은 장애 아동의 학교에서의 학습 및 생활을 위한 보완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학교 수업이 없는 방학 중에는 오전부터 장애 아동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다.

> "취학한 장애 아동은 학교 생활이 중심이 돼줘야 돼요. 학교 생활 적응이 잘 될 수 있도록 개별 학습, 그다음에 아이들의 그런 숙제, 다 발달에 지연이 있는 아이들이라서 컨디션에 따라 이제 이 일과를 참여하는 게 다 달라요.
> 그럼 이제 거기에서 정말 교육이 들어가요. 얘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이 아이한테 맞는 쉼을 주던가 학습을 좀 분량을 낮추든가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이 오실 시간에 맞춰서 이제 일과(중) 교육을 하고 있어요.(곡교, 보육교사1)"
>
> "학교 돌봄보다 저는 제가 엄마라도 장애가 있다면 아마 돌봄보다는 어린이집을 1~2학년까지는 다니는 것도 차라리 더 안정감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돌봄 장애 아이를 받아들이려면 인원도 맞아야 되지만 담당 교사가 또 따로 있어야 돼요.(곡교, 보육교사1)"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을 하나의 반으로 구성하는 통합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유치원이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과 비교할 때 한 명의 교사가 담당하는 원아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통합반을 운영하여 한 교실에 장애 아동 지원 교사, 치료사, 일반교사, 특수교사 등 다양한 교사가 함께 있다. 이러한 세팅은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에게도 안전한 환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 "사실 교실에 들어갈 때는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장애 아동을 위한 담임 선생님이 아니어도 일반 아동 교육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점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교사 선생님들이 다 계셔서 아이들이 크게 다칠 일은 있지 않아요.(곡교, 치료사)"
>
> "장애 아동 3명에 기존 보육교사 1명, 특수교사 1명이 한 팀이고, 보조교사, 치료사까지 한 반에 투입되면 최대 5명이 장애 아동을 돌보게 돼요.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은 다른 기관(시설)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저희 어린이집의 경우에 장애 아동 70명 이상 대기 중이고, 어린이집 근거리 지역 이외에 타지역에서까지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대도시, C교사)"

### 4-2) 0세 아동 보육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을 하기 때문에 0세 아동부터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 아이가 어려 가정어린이집 같은 집에서 가까운 소규모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지만, 아이의 성향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 5세까지의 보육을 이어가길 원하거나 맞벌이 상황으로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하기도 한다.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가정어린이집을 선호한다 하더라도 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보다 정원이 적어 수용할 수 있는 원아 수에 한계가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선책이 되기도 한다.

| |
|---|
| "0세는 (가정어린이집) 정원이 어린이집마다 국공립보다는 적잖아. 모집 인원이 적잖아요. 근데 그 많은 건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곡교, 원장2)" |

### 4-3) 저소득층 아동 보육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지는 공공성의 특성상 돌봄 취약가구 아동의 돌봄을 목표로 민간어린이집의 설립 및 운영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설립하여 운영되기도 한다. 또한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 같은 기타 경비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이용을 장려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 정체성에는 동의하였지만, 현재의 입소순위 시스템을 볼 때 그 취지가 많이 희석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 “취약이라고 해서 물론 저소득층 그것도 접수돼요.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들, 만약 A라는 아이가 대기를 했는데 그 아이의 고유 점수가 300점인데, 내일 400점짜리가 대기하면 걔가 앞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저소득층만은 아니에요.
>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집약된 거라고 볼 수는 있어요. (저소득층이라는) 가산점은 있는데, 맞벌이 부부고 자녀가 많다 하면 그게 더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곡교, 원장 2)”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은 교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심 지역보다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에 대한 수요가 높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지원 중 운전기사, 차량 구입 등과 같이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이 없어 어린이집이 이를 부담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농어촌 지역과 같은 지역에서 아이들의 등원과 하원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차 구입과 운영 및 유지를 위해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차량은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님이,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어린이집 부담이라고 보시면 돼요....운영비, 나중에 이제 돈 다 들어오면은 선생님들 급여가 모두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차량 지원금이 나와요.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나오지만, 한 달에 평균 200만 원은 마이너스입니다.(퇴촌, 원장)”

## 나. 부모 측면

### 1) 양육비용 부담 완화

0~5세 무상 보육 및 교육이 시행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국공립과 사립(민간) 간 학부모 부담에 대한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지만 학부모는 현장학습비나 특별활동비와 같이 보육료 외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비해 학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기타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낮다는 점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점에 해당한다.

"금전적인 것도 무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금전적인 부분 민간 같은 경우에는 특별활동이나 부담되는 금액이 30만 원이라 하면 저희 국공립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나 이런 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똑같은 선상에서 만약에 똑같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퇴촌 보육교사2)"

"어머님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활동하고 현장학습비밖에 없어요.(곡교, 원장)"

특히 장애 아동의 경우, 일반 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고가의 치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아동의 치료사 비용까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치료사의 장애 아동에 대한 특별 케어와 보육을 장애 아동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들이 그래요. 치료센터에 가서 상담하고 이렇게 진단받고 이런 것들은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대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무료로 치료를 도와주고, 1시간이 아니라 아침 9시부터 3~4시까지 계속 생활하면서 무료로 아동을 치료해주고, 교정해주고, 그 과정과 결과를 모두 기록해서 전해주니깐 훨씬 신뢰감이 간다고 말해요. 치료센터는 시간당 비싸기도 하고, 일주일에 1~2회, 한 시간씩 아이를 본다고 해서 아이가 좋아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면 장애 아동과 그 부모가 어디에 가서 무료로 이런 보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겠어요.(상현, 원장)"

2)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유지 및 진입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보육은 맞벌이 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늦은 시간에 아이들의 하원이 이뤄지고,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9시 반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출장이나 야근과 같이 늦은 시간까지 부모의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으로 기능한다. 또한 넓은 범위에서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 친구들이 오전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보육이 가능하다는 거는 장점이죠.(퇴촌, 보육교사 2)"

"민간 같은 경우는 일찍 가면 애들이 한 6시 되면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명 정도 있으면 이제 보이지 않게 어머님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퇴촌, 원장)"

"맞벌이 가구의 부모들에게 출장 갈 때 마음 편하게 다녀오라고 그래요. 미리 전화만 해주면, 밥 먹이고 9시 반까지 데리고 있습니다. 아동이 있든 없든 어린이집 문은 열어두어야 하고, 해당 교사도 남아있어야 해서,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요. 직장생활하면서 애 때문에 뭐 때문에 못 했다 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다녀오시고, 우리 어린이집은 경력 단절 안 하고 잘 다닐 수 있게 그냥 그런 백그라운드가 돼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맞벌이 가구의 아동은 연장반까지 남아있는 아동이 꽤 있어요. 여기가 중소도시이고, 서울이랑 가깝다 보니 맞벌이 가구가 많고 이동 거리가 있어서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기관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상현, 원장)"

### 3) 부모교육의 기회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서 부모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존재이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낮은 출산율로 아이 양육에 대한 인식과 부모관이 달라지며 부모의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한 능력 함양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유아동 보육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부모에게 대면 교육과 같은 공식적 교육 외에 안내장, 아동의 관찰일지 등 교사와의 비공식적 소통을 통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맞벌이로 바쁜 부모에게 아동의 예방 접종 시기를 알려주는 등 부모의 역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대가족 형태에서 부모도 그 부모에게 배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부모들이 온라인상에서 잘못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는 학교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육 시설(기관)에서 형식적으로라도 일부러 부모교육을 하려고 노력해요. 아이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부모교육은) 서면으로는 매주도 갈 수 있고요. 솔직히 끊임없이 하고자 해도 중요한 거는 안 와서 그렇지 정말 부모교육은 많이 하려고 해요. 외부 교육도 하고, 저희 원을 개방해서 이곳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곡교, 원장)"

"특히 일부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잘 몰라서, 혹은 잊어서 놓치는 예방접종일까지도 개별적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부모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어린이집에 해당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일 정보를 주거든요. 이러한 정보를 어린이집에서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정부와 어린이집에서 2중, 3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어요.(곡교, 원장)"

## 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 1)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비 50%, 지자체 50%의 지원으로 운영되어 국가의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 사용을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 정부의 보육지침을 명확하게 따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운영상의 투명함을 행정적 어려움보다는 명확한 업무 분담으로 받아들이고, 어린이집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에서 오히려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응하기가 한 몇 년 걸렸던 것 같아요...국공립은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이 있고 3년에 한 번씩 3년 치 서류를 다 시청 갖다 놓고 한 두 달 동안 이게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쓰는 거에서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퇴촌, 원장)"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되게 투명하죠. 솔직히 투명 투명하죠. 마인드가 투명하죠. 처음부터. 많이 그리고 저희는 정식 공채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우리마포, 원장 1)"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예뻐한다 치더라도 얘가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보고 눈감아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하게 한다고 해요.(상현, 원장)"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나아요. 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이들 매일매일 계획하고, 달 계획하고, 뭘 계획하고 일을 계획해서 수업하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가 문제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퇴촌, 보육교사1)"

## 라.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 1) 교사에게는 안정적 직장과 워라밸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계약직 2년을 초과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제법을 준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번 고용된 교사는 일반적으로 계속 고용이 보장되고 있다. 교사의 고용상 안정성은 좋은 교사를 어린이집으로 유인할 수 있는 동인이 됨과 동시에 교사에게는 더 양질의 보육을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국공립어린이집은 안정적이잖아요. 저도 이제 13년 전에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안정적인 부분이 가장 제일 컸고 사립유치원, 뭐 사립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 다녔을 때는 내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들이 좀 줄거나 그러면 괜히 이제 내가 퇴사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국공립어린이집은)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정감을 아이들한테도 줄 수 있거든요.(곡교, 보육교사2)"
>
> "질 높은 교육도 들어가는 거 안에는 일하는 종사자의 질적인 근무 환경 처우가 정말 있어야지만, 나도 아이들한테 나가는 지적인 상호작용은 굉장히 연동성 있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는 이윤 추구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받는 것은 다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곡교, 보육교사 1)"
>
> "원장이 채용은 하지만 그만두게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그만둔다고 하기 전에는.(우리마포, 원장)"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보육교사에게 월급을 지급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급여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이 기준은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으로 구분하여 1호봉부터 30호봉에 이르는 급여를 정하고 있다.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보육교사 직원의 호봉 책정에 대한 막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 및 상승이 어려운 경우

가 많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경력에 따라 호봉을 산정해주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종사자와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또한 인건비 외에 특별 수당 또한 정해진 지침을 따르고 있어 투명한 체제하에 급여를 받고 있었다.

> "호봉이나 이런 게 안정적이고 민간이나 이런 가정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제가 만약에 5년을 일하고 6년 차에 (민간어린이집에) 근무를 하러 갔을 때 1년 차로 들어가요.(퇴촌 보육교사 2)"
>
> "아무래도 교사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 모든 근로 조건이... 나라에서 딱 지침적으로 정한 방향에서만 저희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처우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선생님들이 민간에 있던 선생님들도 국공립을 겨냥하시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곡교, 보육교사 2)"
>
> "예를 들어서 교사의 월급을 동결시킨다든지 갑작스럽게 그리고 그냥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그냥 원장님이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근데 또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당하게 그런 것들 제 경력이나 제 능력에 따라서 대우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상현, 보육교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고용상의 이점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 정시 출·퇴근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근로자의 권리가 비교적 잘 지켜진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여성이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비롯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을 경험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며 시간적 단절 이후에도 보육교사로서 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클 수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육아휴직을 교사의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휴직 이후 복귀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제 어린이집 교사가 대부분 여성분들이잖아요.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보면은 사실 출산하시고 아이 키우시면서 다니시는 보육교사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보면 물론 민간이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다 국공립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맞는 근로 환경이고, 보다 더 보장되어져 있는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곡교, 보육교사 2)"

> “지금 저희가 육아휴직으로 3명 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임신한 분 한 분하고, 두 분은 다른 유치원에 있을 때 아기를 낳았던 분들이에요. ... 그래서 내가 ‘아니 애는 딴 데서 나서 왜 육아휴직은 나한테 달라고그래’ 그랬거든요. 하하하. 그랬더니 거기 있을 때는 분위기가 내가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지금은 그런 근로 환경이 되니 육아휴직을 다녀올게요. 하는데 제가 원장이라고 가라, 마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깐 당연히 다녀오시라고 해요. 이런 근로 환경이 민간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상현, 원장)”
>
> “육아휴직 갔다 와서도 그 자리로 다시 왔을 때 아이를 키운다고 다시 단축근무 또 할 수가 있어요. 육아휴직 다 썼어도.(우리마포, 원장1)”

근무시간 또한 어린이집 행사가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시에서 6시까지로 잘 지켜지고, 휴일 돌봄을 신청한 아동이 없는 한 토요일 출근을 하지 않아 이 또한 보육교사의 워라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치료사는 일반 센터에 다니면 주말 근무를 할 수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육교사는 담당 반 아동을 케어해야 하므로 연차를 일반 사무직처럼 쓰기는 어렵지만,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불가피한 경우 연차의 사용 또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이러한 근로상의 장점으로 보육교사는 이직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병원이나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해야 하고, 복지관은 토요일에 행사가 되게 많아서 센터는 토요일 근무를 선호를 많이 하세요.(곡교, 치료사)”
>
> “여기는 이제 연차 사용도 가능하고 좀 더 시간이, 시간 외에 근무를 하면 좀 더 다른 날에 탄력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서.(상현, 보육교사)”

보육교직원의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 등 근로상의 이점은 원장에게도 적용되고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을 위한 근무 상한연령을 어린이집 원장은 65세, 보육교사를 포함한 기타 보육교직원은 60세로 두고 있다. 따라서 원장은 65

세, 보육교사는 60세를 정년으로 보고 그때까지의 고용은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원장은 65세예요. 그리고 교직원은 60세까지.(상현, 원장)” |

이상의 FGI 결과를 요약하면 〈표 4-3〉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결과는 아동의 측면에서 아동의 보육의 질 제고, 식생활 개선, 병원에 가는 비용의 감소로 확인된 아동의 건강상태 개선, 0세 아동과 장애 아동, 맞벌이 가구 아동,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보육 기회 제공이 해당된다. 부모의 측면에서는 가장 큰 것이 양육비용 부담 감소, 맞벌이 가구 취업 모의 경제활동 유지 및 진입 등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정적인 운영과 정년의 보장이 보육의 질에 집중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보육교사와 특수교사도 원장과 같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년 보장, 육아휴직 등의 제도 활용 가능 등이 만족도를 높이고,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였다.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에 대해서도 FGI를 실시하였으나, 이들 집단은 국공립어린이집에 고용되어 있으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 지자체와 정부의 측면에서 변화가 있으나, 직접적인 상관관계와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성과지표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표 4-3〉 1단계: 주요 이해관계자 식별과 변화 확인

| 1단계 | |
|---|---|
| 이해 관계자 | 의도된/의도되지 않은 변화 |
|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 아동 | -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음<br>- 교사의 보살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으므로) |
| | - 아이들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됨<br>- 영양사가 있고, 건강지원센터, 친환경 생태 프로그램을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이 하고 있음. 국공립어린이집이 선두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음<br>-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br>- 국공립어린이집은 식비를 모두 소진하고자 노력함(어린이집 예산이 사익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예산은 “0”이 되도록 모두 소진) |
| | - 병원에 가는 비용이 줄어듦<br>- 물리적인 교육시설이 넓어서 신체활동이 많아서 건강상태 개선에 도움이 됨<br>- 국공립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이윤 추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교구의 교체 빈도가 높음. 구강기 아동의 경우 감기 걸리는 빈도가 적음<br>- 개별아동에 대한 예방접종까지 관리되므로 아동이 큰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듦(개별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일을 복지부에서 어린이집으로 전달 -〉 부모에게 전달) |
| | - 0세 아동이 보육을 받을 수 있음<br>- 부모는 집과 가까운 가정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가정어린이집의 정원이 적어서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br>- 가정어린이집 후순위로 타 기관보다 안전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함 |
| | - 장애 아동이 안전한 기관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음<br>- 장애 아동 3명에 기존 보육교사 1명, 특수교사 1명이 한 팀. 보조교사, 치료사가 지원함<br>- 취약아동에 대한 보육을 다른 기관(시설)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따라올 수 없음<br>- OO어린이집 경우, 장애 아동 70명 이상 대기 중임(마포지역 이외에 서울 전 지역에서 지원함) |
| | - 장애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후에 돌봄비용과 사교육비를 줄임<br>- 장애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후에 방과후수업으로 학습지원을 받음<br>- 방학 때는 오전부터 돌봄과 교육까지 모두 지원을 받음 |
| | - 맞벌이 가구 아동이 보육을 받을 수 있음<br>-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am 7:30에 열고, pm 7:30에 문을 닫음. 타 기관보다 일찍 문을 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음<br>- 연장보육기관의 경우, pm 9:30까지 무조건 어린이집을 열어두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 아동이 보육을 받을 수 있음 |
| | - 저소득층 가정 아동이 보육을 받을 수 있음<br>- 상대적으로 적은 교육비를 지출함 |

| 1단계 | | |
|---|---|---|
| 이해 관계자 | 의도된/의도되지 않은 변화 | |
|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
| 부모 | - 양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음<br>- 타 기관보다 교육비가 저렴함 | |
| |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취업 모가 경제활동을 유지/진입할 수 있음(맞벌이 가구의 경우, 육아휴직을 안 할 수 있음)<br>-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am 7:30에 열고, pm 7:30에 문을 닫음(야간연장은 9:30까지임). 타 기관보다 일찍 문을 열고, 상대적으로 늦게 문을 닫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음<br>- 국공립어린이집 야간연장 기관은 한 달에 한 번 1시간을 열더라도, 야간교사 보조금 지원이 있음 | |
| | - 아동에 대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음<br>- 젊은 부모의 경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br>- 어린이집에서 관찰하는 아동의 관찰일지와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부모교육이 이루어짐 | |
|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 -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br>-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이익 추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참보육을 실천할 수 있음<br>- 이익 창출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함<br>- 민간의 경우, 이익 창출에 대한 부담이 있음 | |
| | - 원장은 65세까지 대부분 정년이 보장됨(재위탁이 안 되면, 혹은 기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정년 보장) | |
|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공통 | - 안정적 일자리로 고용기간이 늘어남<br>- 교사가 원한다면 정년이 보장됨<br>- 경력에 따른 호봉제로 운영되어 안정적임(민간은 연금, 퇴직금 보장이 상대적으로 안 됨)<br>- 교사의 이직률이 낮음<br>- (특수교사와 치료사 해당) 특수아동 복지센터나 전문기관의 경우,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유명하지 않으면 매우 불안정함 |
| | | -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br>- 기본적으로 9~6시 근무함(직장어린이집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구분하여 근무하므로, 늦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br>- 육아휴직, 단축근로 등이 자유로움<br>- 임신 말기에 2시간씩 보장받음<br>- 보조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민간의 경우, 지원교사의 사대보험료를 원에서 지원해야 하므로 지원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br>- 체계적으로 교사의 역할이 정해져 있음. 직장에 적응하기가 쉬움 |
| | | -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는 교사 비율이 대체로 90% 이상임 |

| 1단계 | | |
|---|---|---|
| 이해 관계자 | 의도된/의도되지 않은 변화 | |
|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
| | | -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호봉, 연휴가 모두 누적됨 |
| | | - 교사의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br>- 1년 혹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없음<br>- 시대 변화에 민감한 분야가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복귀하는 데 두려움이 적음<br>- 승진에 대한 부담이 없음 |
| | | - 교사의 자율성이 있음<br>-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자재비 지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크지 않음<br>-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비용이 있는 교수자료 계획 등에 대해 원장님 결재 받기가 쉽지 않음 |
| | 특수교사 | - 소득이 늘어남<br>- 장애통합을 운영하는 일반교사도 수당 15만 원을 받음<br>- 장애아 특수교사의 경우 수당 월 40만 원 |
| | 치료사 | - 아동의 치료효과를 일반 아동과 비교할 수 있어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br>- 병원과 센터의 경우, 장애 아동 1:1 치료가 많아 일반 아동과의 비교가 어려움<br>- 일반 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치료사로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음 |
| | | - 근무 환경이 좋음<br>- 장애 아동을 보육하는 지원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사가 함께 한 교실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다른 기관보다 더 편함<br>- 병원은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하거나, 복지관은 행사가 많음. 센터는 토요일 근무를 선호함<br>- 학교의 경우는 치료환경이 열악함<br>- 장애 아동 9명당 1명의 치료사를 정부가 지원 가능함(필수사항은 아님) |
| | | - 소득이 늘어남<br>- 특수교사와 동일하게 치료사 수당 40만 원임 |
| 영양사 | - 안정적 일자리로 고용기간이 늘어남<br>- 경력에 따른 호봉제로 운영되어 안정적임<br>- 정년이 보장됨 | |
| | -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br>- 기본적으로 9~6시 근무<br>- 육아휴직, 단축근로 등이 자유로움<br>- 임신 말기에 2시간씩 보장받음 | |

| 1단계 | |
|---|---|
| 이해 관계자 | 의도된/의도되지 않은 변화 |
|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 | - 아동의 피드백이 있어서 성취감을 느낌<br>- 병원의 경우,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 | - 식비 예산에 대한 부담이 없음 -> 아이들에게 건강한 영양을 제공할 수 있음<br>- 부족하면 운영비에서 채워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 지자체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실시함 |
| | - 인구 순유입률이 증가함 |
| | - 지역 내 산업 파급효과 증가가 예상됨 |
| | -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안전한 시설에서 보육함으로써, 아동학대 등 사건/사고가 감소함 |
| 정부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실시함 |
| | - 보육의 질 제고로 건강한 국민을 양성함 |

## 제2절 신규 성과지표 분석

본 절은 SROI 분석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절에서 파악한 이해관계자별 의도된/의도되지 않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통계가 아동 수, 교직원 수 등 일반 현황이 대부분이며,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조사 시점인 2024년 1월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중인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 1. 분석 대상: 응답자 특성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설문조사의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기간이 2024년 1월 기준 3개월 이상인 이들로 제한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1,638명이다.

응답자의 특성은 〈표 4-4〉와 같다. 이용기관별로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 이용자가 389명 23.7%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용자 378명, 23.1%, 사립유치원 346명, 21.1% 순이다. 자녀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1세 181명, 11.1%, 만 2세 335명, 20.5%, 만 3세 193명, 11.8%, 만 4세 243명, 14.8%, 만 5세 292명, 17.8%, 만 6세 394명, 24.1%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거주지를 살펴보면, 17개 시도 거주자 전체가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이를 규모별로 구분해보면 대도시 774명, 47.3%, 중소도시 690명, 42.1%, 읍면 지역 174명, 10.6%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자녀의 장애 여부에 따라서는 비등록장애인을 포함하여 자녀가 장애인인 조사 대상자가 63명, 3.9% 참여하였다.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가 971명, 59.3%, 한부모 가구 24명, 1.5%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8명, 0.5%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를 보면 400~500만 원 미만이 311명, 19.0%로 가장 많고, 500~600만 원 미만 258명, 15.8%, 300~400만 원 미만 206명, 12.6%, 600~700만 원 미만 174명, 10.6% 순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 참여자를 제한하였는데, 모가 943명, 57.6%, 부가 689명, 42.1%, 조부모 등 기타가 6명, 0.4%였다.

〈표 4-4〉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 구 분 | | (수) | 비율 | 구 분 | | (수) | 비율 |
|---|---|---|---|---|---|---|---|
| 전체 | | (1,638) | 100.0 | 가구특성 | 맞벌이 가구 | (971) | 59.3 |
| 이용기관 | 국공립어린이집 | (378) | 23.1 | | 국기초 수급자 | (8) | 0.5 |
|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49) | 3.0 | | 한부모 가구 | (24) | 1.5 |
| | 법안단체 등어린이집 | (39) | 2.4 | | 다문화 가구 | (28) | 1.7 |
| | 민간어린이집 | (389) | 23.7 | | 다자녀 가구 | (322) | 19.7 |
| | 가정어린이집 | (189) | 11.5 | | 장애인 가구 | (21) | 1.3 |
| | 직장어린이집 | (78) | 4.8 | | 해당 없음 | (462) | 28.2 |
| | 국공립단설유치원 | (63) | 3.8 | 월평균가구소득 | 200만 원 미만 | (11) | 0.7 |
| | 국공립병설유치원 | (107) | 6.5 | | 200~300만 원 미만 | (83) | 5.1 |
| | 사립유치원 | (346) | 21.1 | | 300~400만 원 미만 | (206) | 12.6 |
| 자녀연령 | 만 1세 | (181) | 11.1 | | 400~500만 원 미만 | (311) | 19.0 |
| | 만 2세 | (335) | 20.5 | | 500~600만 원 미만 | (258) | 15.8 |
| | 만 3세 | (193) | 11.8 | | 600~700만 원 미만 | (238) | 14.5 |
| | 만 4세 | (243) | 14.8 | | 700~800만 원 미만 | (174) | 10.6 |
| | 만 5세 | (292) | 17.8 | | 800~900만 원 미만 | (147) | 9.0 |
| | 만 6세 | (394) | 24.1 | | 900~1,000만 원 미만 | (79) | 4.8 |
| 거주지 | 대도시 | (774) | 47.3 | | 1,000만 원 이상 | (131) | 8.0 |
| | 중소도시 | (690) | 42.1 | 자녀와관계 | 모 | (943) | 57.6 |
| | 읍/면 지역 | (174) | 10.6 | | 부 | (689) | 42.1 |
| 자녀장애 | 비장애인 | (1,575) | 96.2 | | 조모 | (3) | 0.2 |
| | 등록장애인 | (14) | 0.9 | | 조부 | (2) | 0.1 |
| | 비등록장애인 | (49) | 3.0 | | 기타 | (1) | 0.1 |

## 2. 어린이집 이용 현황

본 조사의 목적 중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그 외 유형의 어린이집 이용 현황을 비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의 사회적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에 조사 대상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지표 산출에 활용하였다.

## 가. 어린이집 이용시간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등·하원 시간과 정규 보육시간(평일 7:30-19:30) 외의 어린이집 이용 경험을 분석하였다. 먼저 등원시간을 살펴보면, '09:00-09:59'에 등원하는 아동이 60.3%로 가장 많고, 이른 등원에 해당하는 '07:00-07:59'는 2.4%로 가장 적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8:01-9:00에 등원하는 아동 비율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하면(김은설 외, 2021, p.256) 본 조사의 어린이집 등원시간이 다소 늦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09:00-09:59'에 등원하는 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이른 등원(07:00-07:59)을 하는 아동은 사회복지법인, 직장, 가정어린이집에서 높고 민간어린이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에서 '07:00-07:59'(3.2%)와 '08:00-08:59'(38.8%)에 등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에서도 58.0%가 9시 이후에 등원하고 있어 일정 정도 돌봄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유형별 맞벌이 가구 분석 결과에서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서 '07:00-07:59'에 등원하는 비율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장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9시 이전에 등원하는 비율이 각각 55.0%, 51.2%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 어린이집 등원시간

(단위: %, 명)

| 구분 | 07:00-07:59 | 08:00-08:59 | 09:00-09:59 | 10:00-10:59 | 계(수) |
|---|---|---|---|---|---|
| 전체 | 2.4 | 30.8 | 60.3 | 6.5 | 100.0(1,122) |
| 어린이집 유형 | | | | | |
| 국공립 | 2.1 | 26.7 | 64.0 | 7.1 | 100.0(378) |
| 사회복지법인 | 4.1 | 26.5 | 67.3 | 2.0 | 100.0(49) |
| 법인·단체 등 | 2.6 | 43.6 | 48.7 | 5.1 | 100.0(39) |
| 민간 | 1.5 | 28.5 | 62.7 | 7.2 | 100.0(389) |
| 가정 | 3.7 | 34.9 | 56.1 | 5.3 | 100.0(189) |
| 직장 | 3.8 | 47.4 | 42.3 | 6.4 | 100.0(78) |
| 맞벌이 여부 | | | | | |
| 맞벌이 | 3.2 | 38.8 | 52.4 | 5.6 | 100.0(698) |
| 비맞벌이 | 1.2 | 17.5 | 73.3 | 8.0 | 100.0(424) |

〈표 4-6〉 어린이집 등원시간: 맞벌이 가구

(단위: %, 명)

| 구분 | 07:00-07:59 | 08:00-08:59 | 09:00-09:59 | 10:00-10:59 | 계(수) |
|---|---|---|---|---|---|
| 전체 | 3.2 | 38.8 | 52.4 | 5.6 | 100.0(698) |
| 어린이집 유형 | | | | | |
| 국공립 | 3.0 | 31.3 | 59.1 | 6.5 | 100.0(230) |
| 사회복지법인 | 7.1 | 35.7 | 57.1 | 0.0 | 100.0(28) |
| 법인·단체 등 | 4.5 | 45.5 | 50.0 | 0.0 | 100.0(22) |
| 민간 | 2.1 | 38.2 | 52.8 | 6.9 | 100.0(233) |
| 가정 | 4.8 | 46.4 | 45.6 | 3.2 | 100.0(125) |
| 직장 | 1.7 | 53.3 | 38.3 | 6.7 | 100.0(60) |

주: 어린이집 이용 가구 중 맞벌이 가구만 분석한 결과임.

어린이집 하원시간은 ‘16:00-16:59’에 하는 아동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8:00 이후에 하원하는 아동은 19.6%이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15:01-16:00’이 48.6%로 가장 높고 18:00 이후는 6.1%에 불과해(김은설 외, 2021, p.257), 전국보육실태조사와 비교해 본 조사 참여자들의 하원시간이 다소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서 ‘16:00-16:59’에 하원하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에서는 부모의 퇴근시간인 ‘18:00-18:59’에 하원하는 아동의 비율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시 이후 하원 비율은 사회복지법인(6.1%)과 가정어린이집(3.2%)에서, 20시 이후 하원 비율은 직장어린이집(1.3%)에서 가장 높다. 앞의 등원시간 분석 결과와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 가정, 직장어린이집이 이른 등원, 늦은 하원을 하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긴 원아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7〉 어린이집 하원시간

(단위: %, 명)

| 구분 | 15:59 이전 | 16:00 -16:59 | 17:00 -17:59 | 18:00 -18:59 | 19:00 -19:59 | 20:00 이후 | 계(수) |
|---|---|---|---|---|---|---|---|
| 전체 | 16.6 | 43.0 | 20.8 | 16.9 | 2.3 | 0.4 | 100.0(1,122) |
| 어린이집 유형 | | | | | | | |
| 국공립 | 19.8 | 46.8 | 19.0 | 11.6 | 2.4 | 0.3 | 100.0(378) |
| 사회복지법인 | 20.4 | 42.9 | 26.5 | 4.1 | 6.1 | 0.0 | 100.0(49) |
| 법인·단체 등 | 15.4 | 48.7 | 20.5 | 15.4 | 0.0 | 0.0 | 100.0(39) |
| 민간 | 18.0 | 44.7 | 21.3 | 13.4 | 2.6 | 0.0 | 100.0(389) |
| 가정 | 11.6 | 39.7 | 19.6 | 25.9 | 2.1 | 1.1 | 100.0(189) |
| 직장 | 5.1 | 20.5 | 25.6 | 47.4 | 0.0 | 1.3 | 100.0(78) |
| 맞벌이 여부 | | | | | | | |
| 맞벌이 | 12.6 | 38.4 | 22.1 | 23.4 | 3.0 | 0.6 | 100.0(698) |
| 비맞벌이 | 23.3 | 50.5 | 18.6 | 6.4 | 1.2 | 0.0 | 100.0(424) |

맞벌이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늦게 하원하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에서도 '16:00-16:59'에 하원하는 아동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역시 돌봄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유형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분석 결과에 비해 18:00 이후 하원 비율이 모든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유형별 응답 특성은 동일하다.

〈표 4-8〉 어린이집 하원시간: 맞벌이 가구

(단위: %, 명)

| 구분 | 15:59 이전 | 16:00 -16:59 | 17:00 -17:59 | 18:00 -18:59 | 19:00 -19:59 | 20:00 이후 | 계(수) |
|---|---|---|---|---|---|---|---|
| 전체 | 12.6 | 38.4 | 22.1 | 23.4 | 3.0 | 0.6 | 100.0(698) |
| 어린이집 유형 | | | | | | | |
| 국공립 | 16.5 | 46.1 | 18.7 | 15.2 | 3.0 | 0.4 | 100.0(230) |
| 사회복지법인 | 17.9 | 32.1 | 35.7 | 7.1 | 7.1 | 0.0 | 100.0(28) |
| 법인·단체 등 | 9.1 | 40.9 | 27.3 | 22.7 | 0.0 | 0.0 | 100.0(22) |
| 민간 | 12.4 | 41.2 | 23.6 | 18.9 | 3.9 | 0.0 | 100.0(233) |
| 가정 | 8.8 | 30.4 | 21.6 | 35.2 | 2.4 | 1.6 | 100.0(125) |
| 직장 | 5.0 | 16.7 | 21.7 | 55.0 | 0.0 | 1.7 | 100.0(60) |

주: 어린이집 이용 가구 중 맞벌이 가구만 분석한 결과임.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맞벌이 여부에 상관없이 '9:00-9:59'에 등원하고, '16:00-16:59'에 하원하는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와 비교 시, 등하원 시간 모두 한 시간가량 늦은 것으로,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시간으로 본다면 약 7시간 정도로 유사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돌봄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부모 외 추가 돌봄인력 필요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관 등원 전, 하원 후 부모 외 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28.2%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맞벌이 가구에서는 35.2%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는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16.7%로 가장 낮고,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32.9%로 가장 높다.

〈표 4-9〉 어린이집 등·하원 전후 부모 외 정기적 돌봄인력 유무

(단위: %, 명)

| 구분 | 있음 | 없음 | 계(수) |
|---|---|---|---|
| 전체 | 28.2 | 71.8 | 100.0(1,122) |
| 어린이집 유형 | | | |
| 국공립 | 28.3 | 71.7 | 100.0(378) |
| 사회복지법인 | 22.4 | 77.6 | 100.0(49) |
| 법인·단체 등 | 25.6 | 74.4 | 100.0(39) |
| 민간 | 32.9 | 67.1 | 100.0(389) |
| 가정 | 24.9 | 75.1 | 100.0(189) |
| 직장 | 16.7 | 83.3 | 100.0(78) |
| 맞벌이 여부 | | | |
| 맞벌이 | 35.2 | 64.8 | 100.0(698) |
| 비맞벌이 | 16.5 | 83.5 | 100.0(424) |

다음으로 평일 7:30-19:30까지의 정규 보육시간 외 어린이집 이용 경험 조사 결과에서는 '19:30-22:00'의 야간연장보육 이용률이 8.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그 이용률이 각각 19.2%, 10.1%로 타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에서 모든 유형의 연장형 보육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맞벌이 가구의 연장형 보육 이용 요구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유형별 분석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직장,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오전 7:30 이전’ 보육 이용률(10.7%)이, 국공립(10.4%)과 직장어린이집(16.7%)은 ‘19:30-22:00’ 보육 이용률이 높다.

〈표 4-10〉 정규 보육시간 외 어린이집 이용 경험(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 오전 07:30 이전 | 19:30 -22:00 | 22:00 이후, 또는 24시간 | 휴일 | 이용 경험 없음 | (수) |
|---|---|---|---|---|---|---|
| 전체 | 2.9 | 8.1 | 0.9 | 3.5 | 86.6 | (1,122) |
| 어린이집 유형 | | | | | | |
| 국공립 | 1.9 | 10.1 | 1.1 | 4.0 | 86.0 | (378) |
| 사회복지법인 | 6.1 | 6.1 | 2.0 | 2.0 | 83.7 | (49) |
| 법인·단체 등 | 2.6 | 5.1 | 0.0 | 5.1 | 87.2 | (39) |
| 민간 | 3.3 | 6.2 | 0.5 | 3.9 | 88.2 | (389) |
| 가정 | 3.2 | 4.8 | 0.5 | 1.6 | 91.0 | (189) |
| 직장 | 3.8 | 19.2 | 2.6 | 3.8 | 73.1 | (78)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 3.7 | 8.6 | 0.7 | 3.2 | 85.7 | (698) |
| 비맞벌이 | 1.7 | 7.3 | 1.2 | 4.0 | 88.2 | (424) |

〈표 4-11〉 정규 보육시간 외 어린이집 이용 경험: 맞벌이 가구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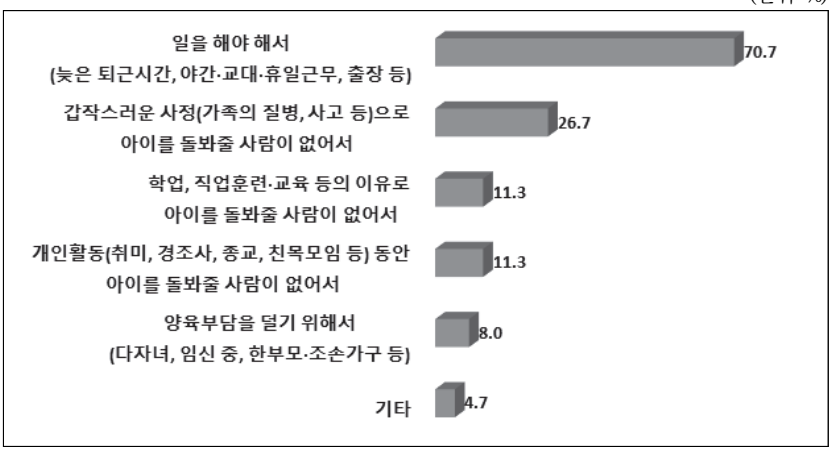
| 구분 | 오전 07:30 이전 | 19:30 -22:00 | 22:00 이후, 또는 24시간 | 휴일 | 이용 경험 없음 | (수) |
|---|---|---|---|---|---|---|
| 전체 | 3.7 | 8.6 | 0.7 | 3.2 | 85.7 | (698) |
| 어린이집 유형 | | | | | | |
| 국공립 | 2.6 | 10.4 | 0.0 | 3.5 | 86.1 | (230) |
| 사회복지법인 | 10.7 | 3.6 | 3.6 | 3.6 | 78.6 | (28) |
| 법인·단체 등 | 4.5 | 4.5 | 0.0 | 0.0 | 90.9 | (22) |
| 민간 | 3.4 | 6.9 | 0.4 | 3.4 | 87.1 | (233) |
| 가정 | 4.8 | 6.4 | 0.8 | 1.6 | 88.0 | (125) |
| 직장 | 3.3 | 16.7 | 3.3 | 5.0 | 75.0 | (60) |

주: 어린이집 이용 가구 중 맞벌이 가구만 분석한 결과임.

정규 보육시간 외 어린이집 이용 사유로는 '일을 해야 해서(늦은 퇴근시간, 야간·교대·휴일근무, 출장 등)'가 70.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규 보육시간 외 어린이집 운영·이용이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정규 보육시간 외 어린이집 이용 사유(중복응답)

(단위: %)




## 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 1) 기관 전체 및 영역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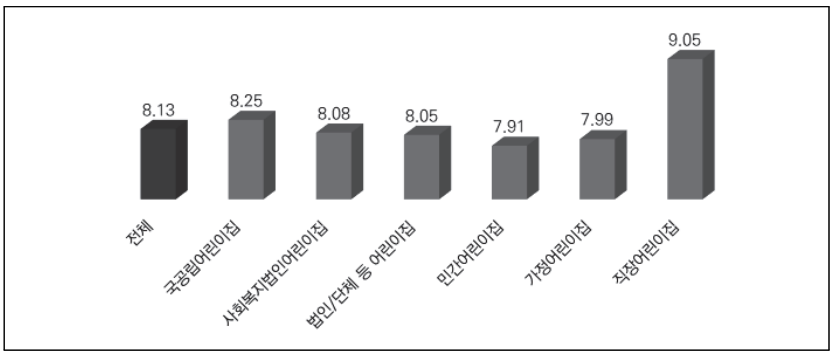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척도(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점 매우 만족한다)로 조사한 결과, 기관 전체 만족도는 8.13점, 영역별로는 7.61~8.18점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만족도가 5점 척도 기준 평균 4.10점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

이다(김은설 외, 2021, p.303).

먼저 어린이집 유형별 기관 전체 만족도를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이 9.05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고, 국공립어린이집이 8.25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각각 7.91점, 7.99점으로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만족도가 타 유형에 비해 낮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매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김은설 외, 2021, p.305).

[그림 4-2]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기관 전체

(단위: 점)




주: '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점 매우 만족한다'로 평정한 결과임.

영역별 만족도에서는 기관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8.18점으로 가장 높고, 실내외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7.6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 분석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관 이용료(9.13점)와 기관 운영일수(9.04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기관 전체 만족도가 높았던 국공립어린이집은 기관 이용시간(8.27점)과 기관 이용료(8.19점)

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오후 7시 30분 이후 야간연장보육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기관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에서 모든 영역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15] 영역별 만족도는 맞벌이, 비맞벌이 가구에서 모두 기관 이용시간과 교사 자질 및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표 4-12〉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영역별

(단위: 명, 점)

| 구분 | (수) | 실내외 시설 환경 | 교육(보육) 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 급·간식 관리 | 건강 및 안전 관리 | 원장 자질 및 전문성 | 교사 자질 및 전문성 | 양육자 소통, 가정 연계 | 기관 이용 시간 | 기관 운영 일수 | 기관 이용료 |
|---|---|---|---|---|---|---|---|---|---|---|---|
| 전체 | (1,122) | 7.62 | 7.78 | 7.87 | 7.91 | 7.98 | 8.06 | 7.99 | 8.18 | 7.94 | 7.92 |
| 어린이집 유형 | | | | | | | | | | | |
| 국공립 | (378) | 7.80 | 7.87 | 8.05 | 8.08 | 7.99 | 8.12 | 7.99 | 8.27 | 8.15 | 8.19 |
| 사회복지법인 | (49) | 7.78 | 7.98 | 7.55 | 7.94 | 8.10 | 8.14 | 8.20 | 8.45 | 8.27 | 7.94 |
| 법인·단체 등 | (39) | 7.49 | 7.74 | 7.82 | 7.92 | 7.74 | 7.87 | 7.67 | 7.72 | 7.41 | 7.38 |
| 민간 | (389) | 7.50 | 7.71 | 7.65 | 7.67 | 7.79 | 7.92 | 7.88 | 8.00 | 7.64 | 7.46 |
| 가정 | (189) | 7.12 | 7.39 | 7.63 | 7.62 | 8.02 | 7.98 | 7.95 | 8.11 | 7.70 | 7.92 |
| 직장 | (78) | 8.56 | 8.58 | 8.94 | 8.97 | 8.77 | 8.72 | 8.60 | 8.95 | 9.04 | 9.13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 맞벌이 | (698) | 7.65 | 7.84 | 7.95 | 7.96 | 8.03 | 8.12 | 8.02 | 8.25 | 7.99 | 8.05 |
| 비맞벌이 | (424) | 7.57 | 7.70 | 7.75 | 7.84 | 7.90 | 7.97 | 7.93 | 8.07 | 7.86 | 7.69 |

주: '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점 매우 만족한다'로 평정한 결과임.

15) 2018년,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도 대체로 미취업 모에 비해 취업 모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김은설 외, 2021, p.307).

2) 급·간식 및 건강관리 만족도

앞의 영역별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급·간식과 건강 및 안전 관리 만족도가 각각 7.87점, 7.91점(10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안전관리를 제외하고 급·간식과 건강관리에 대해 세부적인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세부 항목별 만족도와 함께, 급·간식 만족도 고려 시의 추가비용 지불 의향 및 금액, 기관 이용이 자녀의 건강, 영양 상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함께 조사하였다.

먼저 급·간식의 세부 내용별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호자에게 안내함'이 7.93점,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향 섭취가 가능하도록 식단이 체계적으로 수립됨'이 7.81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급·간식 만족도 고려 시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9.3%가 평균 65,027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13〉 어린이집 급·간식 만족도 및 추가비용 지불의향

(단위: 명, 점, %, 원)

| 구분 | (수) | 급·간식 영역별 만족도 | | | | 만족도 고려 시 추가비용 지불 의향 및 금액 | | |
|---|---|---|---|---|---|---|---|---|
| | | 건강,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가능하도록 식단 체계적 수립 | 아이의 연령, 개별 요구, 발달 단계에 맞추어 급·간식 제공 | 자연 식품 위주로 급·간식 제공 | 식품 알레르기 질환 지침 마련 보호자에게 안내 | 있음 | 없음 | 비용 (원) |
| 전체 | (1,122) | 7.81 | 7.73 | 7.78 | 7.93 | 59.3 | 40.7 | 65,027 |
| 어린이집 유형 | | | | | | | | |
| 국공립 | (378) | 7.93 | 7.85 | 7.95 | 8.02 | 61.6 | 38.4 | 67,103 |
| 사회복지법인 | (49) | 7.59 | 7.86 | 8.00 | 8.04 | 61.2 | 38.8 | 45,667 |
| 법인·단체 등 | (39) | 7.79 | 7.69 | 7.69 | 7.74 | 56.4 | 43.6 | 62,500 |
| 민간 | (389) | 7.57 | 7.47 | 7.50 | 7.66 | 54.8 | 45.2 | 69,592 |
| 가정 | (189) | 7.72 | 7.63 | 7.62 | 7.94 | 59.8 | 40.2 | 56,593 |
| 직장 | (78) | 8.72 | 8.64 | 8.68 | 8.79 | 69.2 | 30.8 | 67,500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맞벌이 | (698) | 7.89 | 7.81 | 7.82 | 7.98 | 62.3 | 37.7 | 65,747 |
| 비맞벌이 | (424) | 7.67 | 7.60 | 7.72 | 7.83 | 54.2 | 45.8 | 63,665 |

주: 급·간식 영역별 만족도는 '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점 매우 만족한다'로 평정한 결과임.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는 직장, 사회복지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추가비용 지불의향에서는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69.2%, 61.6%로, 금액은 각각 평균 67,500원, 67,103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내용별 만족도와 추가비용 지불의향을 함께 고려한다면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급·간식 만족도가 타 유형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에서 세부 내용별 만족도와 추가비용 지불의향의 비율 모두 높게 나타났다.

건강관리에 대한 만족도 또한 '교사는 등원하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핌', '자녀의 건강이 이상할 경우 직접 전화를 하거나 알림장에 연락함'

등 4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 기준 8.03~8.44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자녀의 건강이 이상할 경우 직접 전화를 하거나 알림장에 연락함'이 8.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직장, 사회복지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건강관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에서 어린이집 건강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14〉 어린이집 건강관리 만족도

(단위: 명, 점, %)

| 구분 | (수) | 교사는 등원하는 영유아 건강상태 살핌 | 자녀 건강 이상 시 직접 전화 또는 알림장 연락 | 자녀가 기관에서 다쳤을 경우 상황 알림, 적절하게 조치 | 일과 중 영유아들에게 건강·영양 교육 이루어짐 |
|---|---|---|---|---|---|
| 전체 | (1,122) | 8.07 | 8.44 | 8.22 | 8.03 |
| 어린이집 유형 | | | | | |
| 국공립 | (378) | 8.11 | 8.50 | 8.27 | 8.16 |
| 사회복지법인 | (49) | 8.16 | 8.57 | 8.43 | 8.16 |
| 법인·단체 등 | (39) | 7.92 | 8.33 | 7.87 | 7.90 |
| 민간 | (389) | 7.84 | 8.18 | 8.06 | 7.79 |
| 가정 | (189) | 8.13 | 8.53 | 8.17 | 7.97 |
| 직장 | (78) | 8.85 | 9.17 | 8.96 | 8.82 |
| 맞벌이 여부 | | | | | |
| 맞벌이 | (698) | 8.14 | 8.50 | 8.30 | 8.12 |
| 비맞벌이 | (424) | 7.96 | 8.33 | 8.10 | 7.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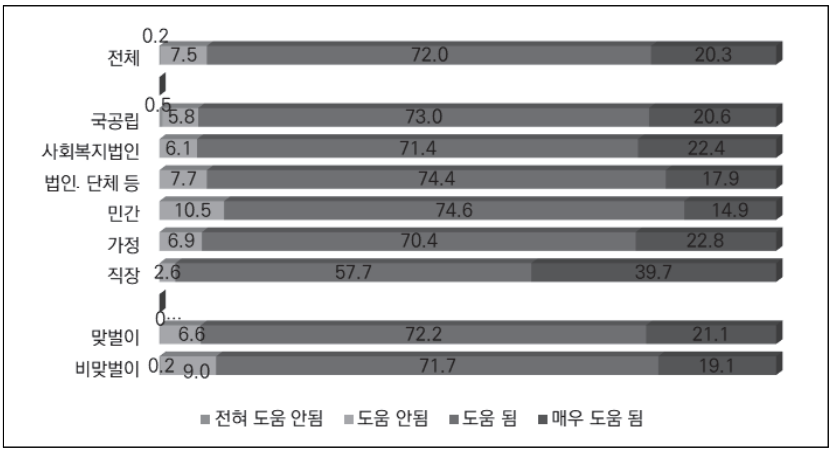
주: '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점 매우 만족한다'로 평정한 결과임.

어린이집의 급·간식과 건강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높은 가운데, 기관 이용이 자녀의 건강, 영양 상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3%(72.0% 도움 됨, 20.3% 매우 도움 됨)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거의 모든 이용자가 어린이집 이용이 자녀의 건강 및 영양

상태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유형 중에는 직장, 사회복지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도움 됨+매우 도움 됨' 응답률이 각각 97.4%, 93.8%, 93.6%로 높게 나타났고, 맞벌이 여부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93.3%(비맞벌이 가구 90.8%)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 기관 이용이 자녀 건강, 영양상태 향상의 도움 정도

(단위: %)




4) 장애아 보육 만족도 및 사회성 발달 도움 정도

장애아 보육 만족도는 '장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장애아를 위한 교재교구 지원이 잘 된다' 등 5개 항목으로 나누어 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장애아 보육 만족도는 해당 어린이집에 장애 아동이 없거나, 장애아 보육 현황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5개 항목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 기준 6.57점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장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잘 갖춰져 있음'이 6.79점, '영유아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이 6.78점으로 높고, '장애

아 지원 별도 전문인력이 있음'이 6.27점으로 나타났다. 타 항목에 비해 인력지원 환경이 열악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 조사 결과에서는 장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과 교재·교구 지원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만족도(각각 7.74점, 7.21점)가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평균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7.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아 보육에서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수성이 확인되었다. 앞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과는 달리, 장애아 보육에서는 맞벌이 가구보다 비맞벌이 가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15〉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만족도

(단위: 명, 점, %)

| 구분 | (수) | 장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잘 갖춰져 있음 | 장애아를 위한 교재·교구 지원이 잘 됨 | 장애아 지원 별도 전문인력이 있음 | 영유아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 | 부모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 | 전체 평균 |
|---|---|---|---|---|---|---|---|
| 전체 | (548) | 6.79 | 6.58 | 6.27 | 6.78 | 6.43 | 6.57 |
| 어린이집 유형 | | | | | | | |
| 국공립 | (206) | 7.18 | 7.06 | 6.94 | 7.34 | 6.95 | 7.09 |
| 사회복지법인 | (28) | 7.20 | 6.67 | 6.48 | 7.13 | 6.74 | 6.84 |
| 법인·단체 등 | (23) | 6.52 | 6.68 | 5.72 | 6.68 | 5.85 | 6.29 |
| 민간 | (185) | 6.51 | 6.32 | 6.00 | 6.42 | 6.32 | 6.31 |
| 가정 | (67) | 5.80 | 5.55 | 5.02 | 5.80 | 5.38 | 5.51 |
| 직장 | (39) | 7.74 | 7.21 | 6.37 | 7.12 | 6.30 | 6.95 |
| 맞벌이 여부 | | | | | | | |
| 맞벌이 | (331) | 6.72 | 6.59 | 6.22 | 6.85 | 6.43 | 6.56 |
| 비맞벌이 | (217) | 6.90 | 6.57 | 6.35 | 6.69 | 6.43 | 6.59 |

주: '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점 매우 만족한다'로 평정한 결과임.

장애통합 보육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72.1%(도움 됨 64.7%, 매우 도움 됨 7.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도움 됨 + 매우 도움 됨' 응답률이 75.9%로 가장 높고, 가정어린이집이 64.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부 내용별 장애아 보육 만족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들이 장애통합 보육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장애아 보육 만족도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맞벌이 가구(71.0%)보다 비맞벌이 가구(73.9%)에서 장애통합보육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6〉 장애통합 보육의 사회성 발달 도움 정도

(단위: 명, %)

| 구분 | 전혀 도움 안 됨 | 도움 안 됨 | 도움 됨 | 매우 도움 됨 | 계(수) |
|---|---|---|---|---|---|
| 전체 | 5.2 | 22.7 | 64.7 | 7.4 | 100.0(1,122) |
| 어린이집 유형 | | | | | |
| 국공립 | 5.6 | 18.5 | 67.7 | 8.2 | 100.0(378) |
| 사회복지법인 | 6.1 | 22.4 | 59.2 | 12.2 | 100.0(49) |
| 법인·단체 등 | 5.1 | 23.1 | 66.7 | 5.1 | 100.0(39) |
| 민간 | 4.1 | 24.2 | 65.3 | 6.4 | 100.0(389) |
| 가정 | 7.9 | 27.5 | 57.7 | 6.9 | 100.0(189) |
| 직장 | 1.3 | 24.4 | 66.7 | 7.7 | 100.0(78) |
| 맞벌이 여부 | | | | | |
| 맞벌이 | 5.9 | 23.1 | 65.0 | 6.0 | 100.0(698) |
| 비맞벌이 | 4.0 | 22.2 | 64.2 | 9.7 | 100.0(424) |

## 다. 어린이집 이용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어린이집 이용이 자녀 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는 주양육자의 양육역량 강화와 양육부담 완화, 두 측면에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1) 어린이집 이용 후 양육역량 향상 인식

양육역량은 인지적 역량(10개 항목)과 양육효능감(6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어린이집 이용이 인지적 역량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 정도는 4점 만점 기준 3.10점, 양육효능감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 정도는 2.89점으로 이용자들은 어린이집 이용이 양육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양육역량 향상 정도를 고려할 때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53.4%가 월평균 73,204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는 인지적 역량 향상에서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3.22점)과 직장어린이집(3.18점)이, 양육효능감 향상에서는 직장어린이집(2.95점)과 국공립어린이집(2.93점)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역량 향상 정도 고려 시 추가비용 지불의향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이 6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16] 지불의사가 있는 경우 지불 금액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월평균 77,327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들이 양육역량 향상 정도의 가치를 가장 높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인지적 역량과 양육효능감 향상 정도를 모두 높게(인지적 역량 3.11점, 양육효능

16)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들이 주로 첫 양육기관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이 양육역량 향상에 대한 추가비용 지불의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감 2.90점) 인식하고 있으며, 추가비용 지불의향 또한 55.9%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표 4-17〉 어린이집 이용 후 양육역량 향상 정도 및 추가비용 지불의향

(단위: 명, 점, %, 원)

| 구분 | (수) | 인지적 역량 향상 도움 정도 | 양육효능감 향상 도움 정도 | 양육역량 향상 정도 고려 시 추가비용 지불 의향 및 금액 | | |
|---|---|---|---|---|---|---|
| | | | | 있음 | 없음 | 비용(원) |
| 전체 | (1,122) | 3.10 | 2.89 | 53.4 | 46.6 | 73,204 |
| 어린이집 유형 | | | | | | |
| 국공립 | (378) | 3.12 | 2.93 | 53.4 | 46.6 | 77,327 |
| 사회복지법인 | (49) | 3.22 | 2.89 | 53.1 | 46.9 | 54,423 |
| 법인·단체 등 | (39) | 2.98 | 2.74 | 43.6 | 56.4 | 62,353 |
| 민간 | (389) | 3.04 | 2.86 | 48.1 | 51.9 | 76,882 |
| 가정 | (189) | 3.12 | 2.89 | 64.0 | 36.0 | 69,851 |
| 직장 | (78) | 3.18 | 2.95 | 59.0 | 41.0 | 63,587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 (698) | 3.11 | 2.90 | 55.9 | 44.1 | 72,018 |
| 비맞벌이 | (424) | 3.08 | 2.87 | 49.3 | 50.7 | 75,416 |

주: 인지적 역량과 양육효능감 향상 도움 정도는 '1점 전혀 도움 안 됨~4점 매우 도움 됨'으로 평정한 결과임.

어린이집 유형별로 맞벌이 가구만 분석한 결과에서는 인지적 역량 향상에서는 사회복지법인 3.20점, 국공립, 가정어린이집 3.1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 향상에서는 국공립 2.95점, 직장어린이집 2.9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육역량 향상 정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역량 향상 정도 고려 시 추가비용 지불의향에서는 전체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추가비용 지불의향 응답률은 가정어린이집이 63.2%로 높게 나타났으나, 월평균 추가비용 지불 금액은 국공립어린이집이 77,868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8〉 어린이집 이용 후 양육역량 향상 정도 및 추가비용 지불의향: 맞벌이 가구

(단위: 명, 점, %, 원)

| 구분 | (수) | 인지적 역량 향상 도움 정도 | 양육효능감 향상 도움 정도 | 양육역량 향상 정도 고려 시 추가비용 지불 의향 및 금액 | | |
|---|---|---|---|---|---|---|
| | | | | 있음 | 없음 | 비용(원) |
| 전체 | (698) | 3.11 | 2.90 | 55.9 | 44.1 | 72,018 |
| 어린이집 유형 | | | | | | |
| 국공립 | (230) | 3.14 | 2.95 | 56.1 | 43.9 | 77,868 |
| 사회복지법인 | (28) | 3.20 | 2.88 | 60.7 | 39.3 | 47,941 |
| 법인·단체 등 | (22) | 2.90 | 2.63 | 45.5 | 54.5 | 69,000 |
| 민간 | (233) | 3.06 | 2.89 | 50.6 | 49.4 | 73,703 |
| 가정 | (125) | 3.14 | 2.89 | 63.2 | 36.8 | 66,582 |
| 직장 | (60) | 3.13 | 2.90 | 61.7 | 38.3 | 69,730 |

주: 1) 어린이집 이용 가구 중 맞벌이 가구만 분석한 결과임.
2) 인지적 역량과 양육효능감 향상 도움 정도는 '1점 전혀 도움 안 됨~4점 매우 도움 됨'으로 평정한 결과임.

다음으로 어린이집 이용의 양육부담 완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5개 항목에 대해 평균 2.80~3.23점(4점 만점 기준)으로 응답자들은 어린이집 이용 후 양육부담이 완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신체적 부담(육체적 피로, 휴식시간 없음 등)'과 '정서적 부담(양육스트레스 등)', 두 항목이 동일하게 3.23점으로 가장 완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 분석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정서적 부담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가장 완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가족관계 어려움 모두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 가운데, 신체적 부담에서는 비맞벌이 가구가, 경제적 부담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완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맞벌이 가구에서는 정서적 부담 완화 정도(3.23점)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 비맞벌이 가구는 신체적 부담 완화 정도(3.26점)를 가장 크게 느낀다는 차이가 있다.

〈표 4-19〉 어린이집 이용 후 양육부담 완화

(단위: 명, 점)

| 구분 | (수) | 신체적 부담 | 정서적 부담 | 사회적 고립 | 경제적 부담 | 가족관계 어려움 |
|---|---|---|---|---|---|---|
| 전체 | (1,122) | 3.23 | 3.23 | 3.11 | 2.80 | 2.99 |
| 어린이집 유형 | | | | | | |
| 국공립 | (378) | 3.22 | 3.19 | 3.10 | 2.85 | 2.99 |
| 사회복지법인 | (49) | 3.20 | 3.27 | 3.20 | 2.84 | 3.04 |
| 법인·단체 등 | (39) | 3.23 | 3.18 | 2.97 | 2.72 | 2.92 |
| 민간 | (389) | 3.14 | 3.18 | 3.07 | 2.67 | 2.95 |
| 가정 | (189) | 3.37 | 3.39 | 3.19 | 2.84 | 3.06 |
| 직장 | (78) | 3.40 | 3.28 | 3.21 | 3.14 | 3.03 |
| 맞벌이 여부 | | | | | | |
| 맞벌이 | (698) | 3.21 | 3.23 | 3.11 | 2.85 | 2.99 |
| 비맞벌이 | (424) | 3.26 | 3.23 | 3.11 | 2.73 | 2.99 |

주: '1점 전혀 완화 안 됨~4점 매우 완화됨'으로 평정한 결과임.

〈표 4-20〉 어린이집 이용 후 양육부담 완화: 맞벌이 가구

(단위: 명, 점)

| 구분 | (수) | 신체적 부담 | 정서적 부담 | 사회적 고립 | 경제적 부담 | 가족관계 어려움 |
|---|---|---|---|---|---|---|
| 전체 | (698) | 3.21 | 3.23 | 3.11 | 2.85 | 2.99 |
| 어린이집 유형 | | | | | | |
| 국공립 | (230) | 3.21 | 3.20 | 3.10 | 2.90 | 3.00 |
| 사회복지법인 | (28) | 3.21 | 3.29 | 3.21 | 3.07 | 3.14 |
| 법인·단체 등 | (22) | 3.18 | 3.09 | 2.86 | 2.68 | 2.86 |
| 민간 | (233) | 3.12 | 3.20 | 3.09 | 2.72 | 2.96 |
| 가정 | (125) | 3.31 | 3.37 | 3.18 | 2.83 | 3.02 |
| 직장 | (60) | 3.38 | 3.22 | 3.18 | 3.13 | 3.02 |

주: 1) 어린이집 이용 가구 중 맞벌이 가구만 분석한 결과임.
2) '1점 전혀 완화 안 됨~4점 매우 완화됨'으로 평정한 결과임.

어린이집 유형별 맞벌이 가구만 분석한 결과에서는 항목별로 양육부담 완화 정도가 높은 어린이집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신체적 부담, 경제

적 부담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가족관계 어려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이용자들이 완화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확충 인식

국공립어린이집 이용·확충에 대한 인식은 유치원 이용 아동까지 포함하여 전체 응답자 대상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내용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경험 및 이용 의향, 확충 필요성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 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경험

현재 또는 과거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39.6%(현재 이용 중인 23.1% 포함)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 단설과 병설 유치원 이용 아동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각각 60.3%와 60.7%로 가장 높으며, 어린이집 중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이 28.6%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 이용자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 국공립기관 이용 경험이 국공립기관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맞벌이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40.7%로 비맞벌이 가구 37.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표 4-2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경험

(단위: %, 명)

| 구분 | 현재 다니고 있음 | 과거에 다닌 경험 있음 | 다닌 경험 없음 | 계(수) |
|---|---|---|---|---|
| 전체 | 23.1 | 16.5 | **60.4** | 100.0(1,638) |
| 기관 유형 | | | | |
| 국공립어린이집 | 100.0 | 0.0 | 0.0 | 100.0(378) |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0.0 | 28.6 | 71.4 | 100.0(49) |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0.0 | 7.7 | 92.3 | 100.0(39) |
| 민간어린이집 | 0.0 | 9.3 | 90.7 | 100.0(389) |
| 가정어린이집 | 0.0 | 4.8 | 95.2 | 100.0(189) |
| 직장어린이집 | 0.0 | 16.7 | 83.3 | 100.0(78) |
| 국공립단설유치원 | 0.0 | 60.3 | 39.7 | 100.0(63) |
| 국공립병설유치원 | 0.0 | 60.7 | 39.3 | 100.0(107) |
| 사립유치원 | 0.0 | 26.6 | 73.4 | 100.0(346) |
| 맞벌이 여부 | | | | |
| 맞벌이 | 23.7 | 17.0 | 59.3 | 100.0(971) |
| 비맞벌이 | 22.2 | 15.7 | 62.1 | 100.0(667) |

과거 또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는 국공립어린이집 선택 사유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한 결과(합 200.0% 기준), ‘집에서 가까워서’가 70.7%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해서’ 29.8%,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저렴해서’ 2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과의 거리는 모든 어린이집 이용자가 가장 주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김은설 외, 2021, p.249), 국공립어린이집은 서비스 질과 비용 측면에서 선호함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표 4-22〉 국공립어린이집 선택 이유(1+2순위): 과거 및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단위: %, 명)

| 구 분 | 비율(수) |
|---|---|
| 집에서 가까워서 | 70.7 |
| 서비스 질(프로그램, 급·간식, 원아관리 등)이 우수해서 | 29.8 |
|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저렴해서 | 28.7 |
| 시설환경(교실, 교재교구, 놀이터 등)이 우수해서 | 19.1 |
| 원장, 교사가 우수해서 | 13.7 |
| 이른 아침, 늦게까지 운영해서 | 10.5 |
| 직장과 가까워서 | 9.6 |
| 형제·자매가 다니고 있어서 | 6.2 |
| 기관 및 학급 규모(아동 수)가 적절해서 | 6.0 |
| 기타 | 4.0 |
| 장애·다문화 등 취약보육을 하고 있어서 | 1.7 |
| 계(수) | 200.0(1,296) |

국공립어린이집 선택 사유와 함께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의 선택 사유를 살펴보면, 서비스 질과 비용 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다. 현재의 기관을 선택한 이유 1+2순위를 합산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합 200.0% 기준), ‘집에서 가까워서’ 65.9%, ‘서비스 질이 우수해서’ 33.3%, ‘시설환경이 우수해서’ 20.1% 순으로 응답률이 높다. 기관 유형별 분석에서도 접근성, 서비스 질, 시설환경 세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은 이 외에 비용이 저렴해서 선택했다는 응답률이 타 기관에 비해 최소 2~5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표 4-23〉 현 이용기관 선택 이유(1+2순위)

(단위: %, 명)

| 구분 | 집에서 가까워서 | 서비스 질이 우수해서 | 시설환경이 우수해서 | 원장, 교사가 우수해서 |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저렴해서 | 직장과 가까워서 | 지인 추천으로 | 기관 및 학급규모가 적절해서 | 이른 아침, 늦게까지 운영해서 | 기타 | 형제·자매가 다니고 있어서 | 장애·다문화 등 취약보육을 하고 있어서 | 계(수) |
|---|---|---|---|---|---|---|---|---|---|---|---|---|---|
| 전체 | 65.9 | 33.3 | 20.1 | 15.9 | 11.8 | 11.4 | 10.3 | 8.8 | 8.7 | 6.5 | 6.1 | **1.3** | 200.0(3,276) |
| 기관 유형 | | | | | | | | | | | | | |
| 국공립어린이집 | 71.4 | 35.2 | 20.4 | 14.6 | 20.4 | 9.0 | 1.9 | 6.3 | 9.0 | 4.8 | 4.2 | 2.9 | 200.0(756) |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51.0 | 38.8 | 22.4 | 18.4 | 8.2 | 10.2 | 22.4 | 12.2 | 6.1 | 4.1 | 6.1 | 0.0 | 200.0(98) |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64.1 | 30.8 | 20.5 | 15.4 | 5.1 | 7.7 | 23.1 | 12.8 | 5.1 | 7.7 | 7.7 | 0.0 | 200.0(78) |
| 민간어린이집 | 69.7 | 28.5 | 18.5 | 19.5 | 4.1 | 8.2 | 14.7 | 11.1 | 11.8 | 6.9 | 6.2 | 0.8 | 200.0(778) |
| 가정어린이집 | 85.2 | 10.6 | 4.8 | 22.2 | 9.0 | 11.1 | 15.9 | 13.8 | 13.8 | 11.6 | 2.1 | 0.0 | 200.0(378) |
| 직장어린이집 | 24.4 | 32.1 | 19.2 | 10.3 | 6.4 | 78.2 | 2.6 | 3.8 | 15.4 | 6.4 | 1.3 | 0.0 | 200.0(156) |
| 국공립단설유치원 | 69.8 | 38.1 | 20.6 | 9.5 | 23.8 | 9.5 | 3.2 | 7.9 | 6.3 | 4.8 | 4.8 | 1.6 | 200.0(126) |
| 국공립병설유치원 | 66.4 | 29.9 | 21.5 | 6.5 | 29.9 | 7.5 | 4.7 | 7.5 | 0.9 | 3.7 | 15.9 | 5.6 | 200.0(214) |
| 사립유치원 | 55.8 | 48.8 | 29.5 | 14.7 | 7.5 | 4.6 | 13.0 | 6.9 | 4.3 | 6.4 | 8.4 | 0.0 | 200.0(692) |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41.5%는 국공립어린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었는데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유로는 79.1%가 '내 자녀에게 맞는 연령반에 자리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여, 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국공립어린이집 미이용 경험 및 그 이유(1+2순위)

(단위: %, 명)

| 구분 | 불가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 | 불가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중복응답) | | | | |
|---|---|---|---|---|---|---|
| | | 내 자녀에게 맞는 연령반에 자리가 없어서 | 내 자녀에게 맞는 연령반이 없어서 | 집에서 너무 멀거나 등원이 불편해서 | 기타 | (수) |
| 전체 | 41.5 | 79.1 | 10.2 | 23.6 | 4.6 | (411) |
| 기관 유형 | | | | | | |
| 국공립어린이집 | - | - | - | - | - | - |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34.3 | 50.0 | 25.0 | 41.7 | 0.0 | (12) |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44.4 | 68.8 | 12.5 | 18.8 | 6.3 | (16) |
| 민간어린이집 | 41.6 | 83.7 | 9.5 | 20.4 | 4.1 | (147) |
| 가정어린이집 | 47.2 | 84.7 | 15.3 | 23.5 | 3.5 | (85) |
| 직장어린이집 | 27.7 | 94.4 | 22.2 | 22.2 | 0.0 | (18) |
| 국공립단설유치원 | 48.0 | 75.0 | 0.0 | 16.7 | 8.3 | (12) |
| 국공립병설유치원 | 28.6 | 83.3 | 0.0 | 16.7 | 0.0 | (12) |
| 사립유치원 | 42.9 | 70.6 | 5.5 | 28.4 | 7.3 | (109) |

## 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

### 1)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길 의향

응답자의 44.3%는 집 근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서 절반 정도의 아동이 집 근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치원 이용 아동 중에서도 사립유치원 27.7%~병설유치원 46.7%로 낮지 않은 비율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불가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 조사 결과와 함께 미충족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존재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집 근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기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1, 2순위를 합산해 분석한 결과(합 200.0% 기준), ‘서비스 질이 우수해서’ 48.0%, ‘집에서 가까워서’ 47.7%, ‘시설환경이 우수해서’ 34.5%,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저렴해서’ 3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접근성 외에 서비스 질과 시설환경의 우수성, 저렴한 비용 측면에서 주양육자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이용률 제고가 보육서비스 질 및 시설환경 개선, 양육자의 비용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표 4-25〉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길 의향 및 그 이유(1+2순위)

(단위: %, 명)

| 구분 | 집 근처 국공립 어린이 집으로 옮길 의향 있음 | 집 근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기고 싶은 이유(1+2순위) | | | | | | | | | | | |
|---|---|---|---|---|---|---|---|---|---|---|---|---|---|
| | | 서비스 질이 우수해서 | 집에서 가까워서 | 시설환경이 우수해서 |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저렴해서 | 이른 아침, 늦게까지 운영해서 | 원장, 교사가 우수해서 | 기관 및 학급규모가 적절해서 | 직장과 가까워서 | 기타 | 장애·다문화 등 취약보육을 하고 있어서 | 형제·자매가 다니고 있어서 | 계(수) |
| 전체 | 44.3 | 48.0 | 47.7 | 34.5 | 32.7 | 11.9 | 9.9 | 6.3 | 4.8 | 2.2 | 1.1 | 0.8 | 200.0(1,450) |
| 기관 유형 | | | | | | | | | | | | | |
| 국공립어린이집 | 54.0 | 40.2 | 70.6 | 25.0 | 23.5 | 7.8 | 14.2 | 6.9 | 6.4 | 2.5 | 2.0 | 1.0 | 200.0(408) |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46.9 | 30.4 | 69.6 | 34.8 | 39.1 | 4.3 | 4.3 | 0.0 | 13.0 | 0.0 | 0.0 | 4.3 | 200.0(46) |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48.7 | 47.4 | 21.1 | 36.8 | 63.2 | 10.5 | 5.3 | 5.3 | 0.0 | 10.5 | 0.0 | 0.0 | 200.0(38) |
| 민간어린이집 | 48.1 | 59.4 | 34.2 | 41.2 | 31.6 | 12.8 | 10.2 | 5.9 | 2.7 | 1.1 | 0.5 | 0.5 | 200.0(374) |
| 가정어린이집 | 57.1 | 57.4 | 30.6 | 54.6 | 16.7 | 16.7 | 8.3 | 6.5 | 4.6 | 4.6 | 0.0 | 0.0 | 200.0(216) |
| 직장어린이집 | 23.1 | 50.0 | 66.7 | 16.7 | 5.6 | 27.8 | 16.7 | 5.6 | 11.1 | 0.0 | 0.0 | 0.0 | 200.0(36) |
| 국공립단설유치원 | 31.7 | 10.0 | 50.0 | 25.0 | 55.0 | 30.0 | 5.0 | 15.0 | 5.0 | 5.0 | 0.0 | 0.0 | 200.0(40) |
| 국공립병설유치원 | 46.7 | 38.0 | 56.0 | 22.0 | 50.0 | 6.0 | 8.0 | 2.0 | 8.0 | 0.0 | 6.0 | 4.0 | 200.0(100) |
| 사립유치원 | 27.7 | 49.0 | 36.5 | 30.2 | 56.3 | 11.5 | 5.2 | 8.3 | 2.1 | 1.0 | 0.0 | 0.0 | 200.0(192) |

### 2) 국공립어린이집 우수성 인식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5%는 비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수하다고 응답하였다. 우수하지 않음 13.9%, 차이 없음 39.6%보다 응답률이 높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수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우수성 정도까지 조사하였는데, 비국공립어린이집 대비 평균 40%, 1.4배 정도 우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국공립어린이집 우수성 인식

(단위: %, 점, 명)

| 구분 | 우수성 인식 | | | | | | 우수성 정도 | |
|---|---|---|---|---|---|---|---|---|
| | 전혀 우수한 것 같지 않다 | 별로 우수한 것 같지 않다 | 차이가 없다 | 조금 더 우수한 것 같다 | 매우 우수한 것 같다 | 계(수) | 우수성 정도 | (수) |
| 전체 | 2.7 | 11.2 | 39.6 | 39.7 | 6.8 | 100.0(1,638) | 140.0 | (762) |
| 기관 유형 | | | | | | | | |
| 국공립어린이집 | 1.1 | 5.8 | 31.2 | 46.3 | 15.6 | 100.0(378) | 145.1 | (234) |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0.0 | 6.1 | 55.1 | 36.7 | 2.0 | 100.0(49) | 137.4 | (19) |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0.0 | 15.4 | 51.3 | 33.3 | 0.0 | 100.0(39) | 125.4 | (13) |
| 민간어린이집 | 2.8 | 13.4 | 47.3 | 33.9 | 2.6 | 100.0(389) | 132.3 | (142) |
| 가정어린이집 | 1.6 | 6.3 | 38.1 | 50.8 | 3.2 | 100.0(189) | 126.9 | (102) |
| 직장어린이집 | 5.1 | 19.2 | 25.6 | 46.2 | 3.8 | 100.0(78) | 139.5 | (39) |
| 국공립단설유치원 | 0.0 | 6.3 | 27.0 | 50.8 | 15.9 | 100.0(63) | 129.8 | (42) |
| 국공립병설유치원 | 4.7 | 9.3 | 29.9 | 44.9 | 11.2 | 100.0(107) | 155.9 | (60) |
| 사립유치원 | 4.9 | 17.3 | 45.7 | 29.2 | 2.9 | 100.0(346) | 148.6 | (111) |

주: 우수성 정도는 비국공립어린이집을 100으로 두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수한 정도를 기입하도록 한 결과임.

기관 유형별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단설, 병설)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들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수성 인식률(국공립어린이집 61.9%, 국공립단설유치원 66.7%, 국공립병설유치원 56.1%)이 높게 나타났다. 우수성 정도 인식 또한 국공립병설유치원 이용자들이 55.9%,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들이 45.1%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

3) 국공립어린이집 충분성 및 확충 필요 인식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미충족 수요가 존재함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지, 확충해야 한다면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집주변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응답자의 33.1%는 많이 부족하고, 43.3%는 다소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6.4%가 집주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아동 연령에 따라서는 아동이 어릴수록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세 81.2%, 2세 79.4% 순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높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진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보다 비맞벌이 가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가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더 높아, 상대적으로 이용 기회가 더 많이 보장되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표 4-27〉 국공립어린이집 충분성 인식

(단위: %, 명)

| 구분 | 많이 부족함 | 다소 부족함 | 어느 정도 충분함 | 매우 충분함 | 계(수) |
|---|---|---|---|---|---|
| 전체 | 33.1 | 43.3 | 20.8 | 2.8 | 100.0(1,638) |
| 아동 연령 | | | | | |
| 1세 | 38.7 | 42.5 | 16.6 | 2.2 | 100.0(181) |
| 2세 | 34.9 | 44.5 | 17.0 | 3.6 | 100.0(335) |
| 3세 | 40.9 | 37.8 | 20.2 | 1.0 | 100.0(193) |
| 4세 | 27.2 | 49.0 | 21.4 | 2.5 | 100.0(243) |
| 5세 | 31.8 | 39.7 | 25.7 | 2.7 | 100.0(292) |
| 6세 | 29.7 | 44.7 | 22.1 | 3.6 | 100.0(394) |
| 맞벌이 여부 | | | | | |
| 맞벌이 | 31.5 | 43.3 | 22.1 | 3.1 | 100.0(971) |
| 비맞벌이 | 35.4 | 43.5 | 18.7 | 2.4 | 100.0(667)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성 조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89.9%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022년 12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전체의 18.8%임을 고려할 때, 전체 시설의 30%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2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체 시설의 50%까지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은 24.2%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여기에서도 앞의 충분성 인식 결과와 동일하게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맞벌이 가구 대비 비맞벌이 가구에서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률과 확충 목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2018년과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모두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으로 가장 응답률이 높게 나온 항목이며(김은설 외, 2021, p.556), 2022년 서울시 양육자 조사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돌봄서비스 기관 확대'가 가장 높은 정책수요

로 나타났다(강희영, 나성은, 조막래, 김송이, 강은애, 2022, p.9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양육자들의 높은 요구는 여러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2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성 인식

(단위: %, 명)

| 구분 | 확충 필요 없음 | %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 | | | | | 계(수) |
|---|---|---|---|---|---|---|---|---|---|
| | | 20% | 30% | 40% | 50% | 60% | 70% | 80% 이상 | |
| 전체 | 10.1 | 14.4 | 25.4 | 10.6 | 24.2 | 3.2 | 2.1 | 10.0 | 100.0(1,638) |
| 아동 연령 | | | | | | | | | |
| 1세 | 4.4 | 9.9 | 33.7 | 9.4 | 24.9 | 1.7 | 2.8 | 13.3 | 100.0(181) |
| 2세 | 6.3 | 12.2 | 21.5 | 11.9 | 29.6 | 3.9 | 3.3 | 11.3 | 100.0(335) |
| 3세 | 9.3 | 11.4 | 28.0 | 10.4 | 28.5 | 2.6 | 1.0 | 8.8 | 100.0(193) |
| 4세 | 9.1 | 18.9 | 28.0 | 10.7 | 21.8 | 4.1 | 0.8 | 6.6 | 100.0(243) |
| 5세 | 13.4 | 14.7 | 26.7 | 7.9 | 24.7 | 2.4 | 0.7 | 9.6 | 100.0(292) |
| 6세 | 14.7 | 16.8 | 21.1 | 11.9 | 18.3 | 3.6 | 3.3 | 10.4 | 100.0(394)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맞벌이 | 11.1 | 14.5 | 25.4 | 10.1 | 23.9 | 3.2 | 2.3 | 9.5 | 100.0(971) |
| 비맞벌이 | 8.7 | 14.2 | 25.3 | 11.2 | 24.6 | 3.1 | 1.9 | 10.8 | 100.0(667) |

##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SROI 산출을 위해 기존 자료수집 이외에 이해관계자별 인터뷰를 통해 분석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이해관계자별 변화된 가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초점집단 인터뷰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과 성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원장, 보

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성과와 그 성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높은 수준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전문성을 가진 보육교사들이 아동 1인당 교사 비율을 낮추어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충분한 교재와 교구를 활용할 수 있어 아동의 교육 및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양사의 체계적인 식단 관리를 통해 아동의 식생활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나타났다.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와 맞벌이 가구 지원 확대를 높이 평가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 등의 기타 비용이 적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맞벌이 가구를 위한 연장보육서비스는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보육교사와 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직장 환경과 고용 안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며, 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직업 안정성을 높인다.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투명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원장과 교사가 보육의 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1,6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 참가자 중 민간어린이집 이용자가 389명(23.7%)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의 연령대는 만 1세부터 만 6세까지 다양하며,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걸쳐 분포하였다. 응답자 중 맞벌이 가구는 971명(59.3%), 한부모 가구는 24명(1.5%)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시간 분석에서는 대다수가 '09:00-09:59'에 등원하고 '16:00-16:59'에 하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등원하고 늦은 시간에 하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부모의 퇴근시간과 맞물려 '18:00-18:59'에 하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가구의 돌봄공백 문제를 시사하며, 추가적인 돌봄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영역별 만족도에서는 기관 이용시간과 교사 자질 및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급·간식과 건강 관리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았으며, 추가비용 지불의향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장애아 보육 만족도 조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 통합 보육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주로 집에서 가까워서, 서비스 질이 우수해서, 비용이 저렴해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41.5%는 이용하고 싶었으나 자리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44.3%였으며, 이들은 서비스 질과 접근성, 시설 환경, 저렴한 비용을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의 76.4%는 집 주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고, 89.9%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시설의 30%에서 5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결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제5장

## 사회적투자수익률 분석

제1절 성과지표 맵핑
제2절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
제3절 소결

# 제 5 장 사회적투자수익률 분석

## 제1절 성과지표 맵핑[17)]

본 절은 이해관계자에 따른 투입물(input), 산출물(output), 결과물(outcomes)의 관계를 확인하게 해주는 영향력 지도(impact map)를 개발하는 단계이다. 영향력 지도를 개발한 이후에는 결과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고, 증거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한다. SROI 분석의 2단계와 3단계에 해당한다.

이해관계자별 결과물(성과지표)은 앞에서 검토한 이해관계자별 인터뷰(FGI)의 내용에 기반하였으며,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통계자료 및 지표를 맵핑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입과 산출, 결과물과의 관계 등을 맵핑하고자 약 15일(2023.10.1.~10.15.)에 걸쳐 10명의 영유아 및 보육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전문가 서면 검토를 실시하였고, 해당 자료를 취합하여 11~12월 두 달간 2차, 3차에 걸쳐 전문가 집단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

### 1. 투입물(Input)-산출물(Output) 확인

SROI 분석의 2단계인 국공립어린이집의 투입물과 산출물을 확인한 결과, 투입물은 본 사업에 투입된 재무적, 비재무적 투입물이 해당되며 정

17) 보육 및 육아 정책, 공공보육 시설 등에 대해 수년간 연구한 육아정책연구소 전문가 집단과 아동학과, 보육학과 등 대학교수 등 총 10명이 참여함.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입과 학부모가 일부 지출하는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투입물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신규 신축건물을 매입 혹은 건립할 것인지, 기존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전환하여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2022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현액[18] 기준, 약 497억 원, 지자체 매칭비 약 468억 원(실집행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금을 투입액으로 산정하였다.

산출물(output)은 국공립어린이집 수, 이용률, 평가인증 여부 등 현재 부처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성과지표라 할 수 있다. 산출 중심의 지표는 직관적이며, 지표산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동 수의 감소 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표 5-1〉 [2단계] 투입물-산출물 확인

| 구분 | 측정 대상 | 관련 지표 | 비고 |
|---|---|---|---|
| 투입 (Input)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재정투입 규모 |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 49,678,000천 원 |
| | |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지자체 예산 | 46,800,000천 원 |
| |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금 1,688,041천 원 중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비중(23.56%)) | 397,728천 원 |
| | **투입물 합계** | | 96,875,728천 원 |
| 산출 (Output) | 국공립어린이집 수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개소 수 | 18.8% |
|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 25.3% |
| | 평가인증 여부 | 국공립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비율 | 97.6%[1] |

주: 민간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비율은 96.5%임.
출처: 보건복지부. (2023).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 p.216.

18) 예산안이 아닌 예산현액으로 산출함.

SROI 분석에서는 이해관계자별 변화된 가치에 주목하며, 앞에서 FGI를 통해 얻은 이해관계자별 결과물(Outcome)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 [3단계] 결과물(Outcome) 산출식 및 자료원

| 이해관계자 | 의도된/의도되지 않은 변화 | 3단계 결과물(무엇이 변화하였나?) | | |
|---|---|---|---|---|
| | | 결과물지표(성과지표) | 산출식(A×B) | 자료원 |
| 아동 | 보육의 질 | 국공립-비국공립 간 평균 아동 1인당 교사 수 차이 | (A) 1인당 인건비(1호봉 교사 연봉(최저 자격기준)) | 2022년 보육교사 호봉표 |
| | | | (B) 비국공립(민간) 대비 국공립 아동 1인당 교사 수 차이× 2022년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수 ×국공립 1개소당 평균 아동 수 |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22).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p.13) |
| | | 국공립-비국공립 간 교사 경력의 차이 | (A) 국공립 교사 평균 인건비 - 비국공립 교사 평균 인건비 |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육아정책연구소. |
| | | | (B)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추가 보육교사 수 |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22).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p.13) |
| | | 국공립 취원 아동 가구의 만족도 | (A) 비국공립 대비 국공립 만족도에 대한 아동 1인당 지불의사 | 설문조사 |
| | | | (B)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취원 아동 수 |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22).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p.13) |
| 아동 | 신체건강 | 신체건강 | (A) 비국공립(민간)과 | 설문조사 |

| 이해관계자 | 의도된/의도되지 않은 변화 | 3단계 결과물(무엇이 변화하였나?) | | |
|---|---|---|---|---|
| | | 결과물지표(성과지표) | 산출식(A×B) | 자료원 |
| | 개선 | (병원 가는 횟수 감소)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월평균 병원비 차이 | |
| | | | (B)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취원 아동 수 |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22).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p.13) |
| | | 어린이집 급·간식 만족도 | (A) 급·간식 서비스에 대한 국공립 만족도에 대한 아동 1인당 추가 지불의사 금액 | 설문조사 |
| | | | (B)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취원 아동 수 |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22).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p.13) |
| 아동 | 장애 아동의 보육 기회 | 공공보육 기회로 장애 아동의 보육/치료 효과 제고 | (A)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애 아동 치료비 절감액 = 장애 아동의 별도 장애기관 월평균 이용료와 국공립어린이집 아동의 장애기관 월평균 이용료 차액 | 설문조사 |
| | | | (B) 신규 확충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장애 아동 수(추정) |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22).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p.13) |
| 아동 | 맞벌이 가구 아동의 보육 기회 | 맞벌이 가구의 야간연장보육으로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제고 | (A) 야간연장 지불의사 금액 | 설문조사 |
| | | | (B) 맞벌이 가구의 연장보육 희망 아동 수 | 설문조사 |
| 부모 | 양육비용 | 자부담 기관 이용료 | (A) 비국공립(민간) 대비 | 설문조사 |

| 이해관계자 | 의도된/의도되지 않은 변화 | 3단계 결과물(무엇이 변화하였나?) | | |
|---|---|---|---|---|
| | | 결과물지표(성과지표) | 산출식(A×B) | 자료원 |
| 절감 | 절감 | 절감 | 국공립어린이집 기관 이용 월 부담 비용 차액 | |
| | | | (B)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취원 아동 수 |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22).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p.13) |
| | | 추가 돌봄비용 절감 | (A) 월평균 추가 돌봄인력 이용료 | 설문조사 |
| | | | (B) 비국공립어린이집 가구의 추가 돌봄인력 이용률과 국공립어린이집 가구의 추가 돌봄인력 이용률 차이 | 설문조사 |
| 부모 | 모의 경제활동 | 모의 경제활동 지원 : 재취업 모의 소득 증가 | (A) 비국공립(민간)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취원 아동 모의 재취업 의사 비율 차이 | 설문조사 |
| | | | (B) 재취업 모의 소득 증가액 | 최저임금액 반영 |
| 원장 | 프로그램 개선 등 안정적 기관운영 | 국공립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책무성 제고 | • 측정 불가<br>• 부모 입장에서 공공과 민간(또는 국공립과 비국공립)의 만족도 비교 | |
| 교사 | 교사의 질 | 직업 만족도 제고 | • 측정 불가<br>• 부모 입장에서 공공과 민간(또는 국공립과 비국공립)의 만족도 비교 | 설문조사 |
| 교사 | 안정적 일자리 | 고용안정감 증진 | • 측정 불가 | 보육실태조사 |
| | | (육아)휴직 이후 복직률 | • 측정 불가<br>• 공공-민간어린이집 간의 휴직 이후 복직률 차이(복직률*교원 수*평균임금) | 보육실태조사/ 혹은 설문조사 |

주: 본 자료는 보육 및 육아 정책, 공공보육 시설 등에 대해 수년간 연구한 육아정책연구소 전문가 집단과 아동학과, 보육학과 등 대학교수 등 총 10명이 참여하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음.

## 제2절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

본 절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사회적투자수익률을 산출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국공립어린이집 간의 조사 결과 비교를 통해 지표가 산출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특성을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아동 연령, 입학 시기 등 가장 유사한 비국공립어린이집(사립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중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였다. 직장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설립·운영 주체가 되는 타 유형의 어린이집과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에 속하며, 넓은 범위에서 공적인 성격을 갖는 어린이집으로 묶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3세 이하의 영유아의 비중이 높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별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의 범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동과 부모만 포함하였고, 원장과 교사의 결과지표는 포함하지 않았다. 원장과 교사의 경우, 그들의 책무성과 만족도, 고용안정감, 휴직 이후 복직률 등에 대한 결괏값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표본수 확보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성지표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인식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지표의 수집이 불가능하였고, 응답자의 성향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아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1. 아동 지표

아동 측면의 성과는 보육의 질, 아동 식생활 개선, 장애 아동의 보육 기회, 맞벌이 가구 아동의 보육 기회, 네 가지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 가. 보육의 질 향상

보육의 질은 아동 1인당 교사 수(정량지표) 혹은 교사의 질(정성지표)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질이 좋을수록 양질의 보육이 담보된다. 아동 1인당 교사 수가 많다면 좀 더 많은 돌봄이 가능할 것이며, 경험이 많거나 아동/보육 관련 전문 지식을 축적한 교사일수록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 1인당 교사 수의 경우는「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19]에 따라 정해지므로 국공립과 비국공립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비국공립어린이집보다 보조교사(혹은 기타교사 등)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2022년 보육통계(보건복지부, 2023)에서 역시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 1인당 아동 수(3.76명)가 비국공립(4.10명)보다 0.34명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1명당 교사 0.27명이, 비국공립은 아동 1명당

19)「영유아보육법」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교사 0.24명이 돌봐야 함을 의미한다.

국공립과 비국공립어린이집 간의 교사 수의 차이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 차이를 2022년 기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수(498개소)에 반영하면 추가로 약 9.86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아동 수는 47.7명(보건복지부, 2023)이며, 1호봉 보육교사 인건비(연 24,221천 원)를 반영하면 약 113억 9,158만 원의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수에 따른 보육의 질이 산출된다. 즉, 비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법정 아동당 교사 수에 추가 보육교사를 투입함으로써 보육의 질 제고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수뿐만 아니라, 교사의 숙련도에서도 나타난다. 교사의 숙련도는 교육 수준,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관련 학과 졸업 등으로 알 수 있으나, 이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호봉 혹은 경력이 올라갈수록 평균 인건비가 높아지므로 교사의 숙련도의 대리지표로 월평균 인건비를 활용한다. 국공립과 비국공립어린이집의 월평균 인건비 차이는 월 198천 원의이며(김은설 외, 2021), 이는 연 2,376천 원에 해당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수에 반영하면, 연간 약 150억 8,605만 원의 숙련도 높은 교사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보육의 질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육의 질과 관련한 지표로 국공립어린이집 취원 아동 가구의 만족도가 있다. 이는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따라 보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지표이며, 만족도를 화폐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비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우수한가에 대해 물었다. 설문 결과 비국공립어린이집이 100일 때, 국공립어린이집이 40.0% 정도 우수하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고, 비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료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우

수성(40%)을 반영하여 추가로 지불해야 할 월평균 이용료를 산정(월 78,540원)하였다. 이 결과는 비국공립어린이집 취원 아동 가구가 이용 중인 기관이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 등에 미친 영향 및 도움 정도를 고려할 때 해당 기관에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지불의사 금액인(설문문항 A15-2) 월 76,882원과 유사한 값이다.

〈표 5-3〉 아동-보육의 질 제고

| 결과지표 | 대리지표 | 산출식 | 산출값 |
|---|---|---|---|
| 보육의 질 (아동 1인당 교사 수) | 추가교사 인건비 (1호봉) | (A) 1인당 인건비(1호봉 교사 연봉(최저 자격기준))[3]<br>= 월 2,018,400원×12개월 | 24,221천 원 |
| | 신규 확충된 (비국공립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에 추가투입 교원 수 | (B) 비국공립(민간)[1] 대비 국공립 아동 1인당 교사 수 차이× 2022년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수 ×국공립 1개소당 평균 아동 수<br>① 국공립(0.27명)-민간(0.24명)= 0.02명<br>②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수(493개소)[2]× 1개소당 평균 아동 수(47.7명) 반영<br>= 0.02명×493개소×47.7명 | 470명 |
| | 합계(A×B) | | 11,391,575천 원 |
| 보육의 질 (교사의 숙련도) | 국공립-비국공립(민간) 간 교사 경력의 차이 | (A) 국공립 교사 평균 인건비[4]<br>- 비국공립 교사 평균 인건비<br>= 국공립(월 2,504,000원)<br>- 비국공립(월 2,306,000원) 차액<br>= 월 198,000원×12개월 | 2,376천 원 |
| | 신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투입 교원 수 | (B) 국공립어린이집 추가투입 보육교사 수<br>=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1인당 교사 수(0.27명)×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당 아동 수(47.7명)×2022년 신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수(493개소)<br>= 0.27명×47.7명×493개소 | 6,349명 |
| | 합계(A×B) | | 15,086,048천 원 |

| 결과지표 | 대리지표 | 산출식 | 산출값 |
|---|---|---|---|
| 보육의 질 (국공립 취원 아동 가구의 만족도) | 비국공립(민간) 대비 국공립 만족도에 대한 아동 1인당 지불의사 | (A) 비국공립 대비 국공립 만족도에 대한 아동 1인당 지불의사<br>= 1인당 비국공립어린이집 비용 × (100-(비국공립에 비해 국공립이 우수성 정도(40.0%)))<br>= 비국공립 월평균 이용료[5]<br>196,350원×0.40%<br>= 78,540원×12개월 | 942천 원 |
|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취원 아동 수 | (B)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취원 아동 수<br>=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당 아동 수(47.7명)×신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수(493개소) | 23,516명 |
| | 합계(A×B) | | 22.163.454천 원 |

주: 1) 국공립과 아동 연령, 환경이 모두 유사한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함.
2) 보건복지부. (2022).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 p.13.
3) 2022년 기준, 1호봉 보육교사 월급(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2,018,400원(2022년 보육교사 호봉표)(https://blog.naver.com/dmsp408/222977093840)(접속일: 2023.12.20.)
4) 가장 최신자료를 활용함(김은설 외, 2021 인용).
5) 월평균 기관 이용료는 정부 지원을 제외한 본인 부담 비용만 해당됨.

## 나. 아동의 신체건강 개선

아동의 신체건강 개선 측면의 성과는 비국공립과 비교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원아 건강 및 급·간식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가, 국공립어린이집 원아들이 건강·영양 상태 측면에서 감기 등 전염병이 줄었는가로 파악할 수 있다. 아동의 건강 개선과 관련하여 '귀 자녀가 감기 등 전염병으로 한 달에 병원 가는 횟수는 평균적으로 몇 번입니까?'와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1회 평균 병원비용(처방약 비용 포함)',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한 달 평균 병원비용(처방약 비용 포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비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월평균 병원비는 약 39,008원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약 37,335원으로 그 차이는 월평균 약 1,673원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연간 20,076원의 병원비를 아꼈으며 해당 금액은 건강지표의 대리지표로 활용된다.

다음으로 아동의 건강과 관련한 지표는 식생활 개선과 관련한 급·간식에 대한 지표이다. 급·간식의 건강 개선 효과를 화폐화하기 위해 급·간식 서비스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추가비용 지불의사를 물었다. '매월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설문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구는 67,103원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신규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아동 수(23,516명)을 곱하면, 연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구의 급·간식 개선을 위한 추가 지불의사 금액은 총 189억 3,601만 원으로 추산된다.

〈표 5-4〉 아동-아동의 신체건강 개선

| 결과지표 | 대리지표 | 산출식 | 산출값 |
|---|---|---|---|
| 신체건강 개선 (연간 병원 가는 횟수 감소) | 비국공립(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월평균 병원비 차이 | (A) 비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월평균 병원비 39,008원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월평균 병원비 37,335원= 1,673원<br>= 1,673원×12개월=연 20,076원 | 20천 원 |
|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취원 아동 수 | (B)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취원 아동 수<br>=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당 아동 수(47.7명)×신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수(493개소) | 23,516명 |
| | 합계(A×B) | | 472,109천 원 |
| 급·간식 개선 | 국공립어린이집의 급·간식 만족도에 대한 아동의 추가비용 지불의사 금액 | (A) 급·간식 서비스에 대한 국공립 만족도에 대한 아동 1인당 추가 지불의사 금액<br>= 월 67,103원<br>= 월 67,103원×12개월 | 805천 원 |
|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취원 아동 수 | (B)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취원 아동 수<br>=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당 아동 수(47.7명)×신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수(493개소) | 23,516명 |
| | 합계(A×B) | | 18,936,012천 원 |

## 다. 장애 아동의 보육 기회 확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책무 중 하나는 장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장애 아동의 보육 기회가 얼마가 확대되었는지, 확대된 보육 기회를 통해 장애 아동의 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국공립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 보육의 우수성, 비국공립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장애 아동의 어린이집 외 기관(장애 아동 치료센터, 병원 등) 이용료 절감 정도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장애 아동의 치료 및 장애 심화 예방 효과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장애 아동의 평균 장애기관(시설) 이용료는 월평균 744,100원이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장애기관 이용료는 월평균 641,667원으로 조사되었다. FGI 결과에서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특수교사, 치료사가 보육교사와 함께 장애 아동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국공립 이용 아동보다 전문 장애기관 이용료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표 5-5〉 아동-장애 아동 보육·치료 효과 제고

| 결과지표 | 대리지표 | 산출식 | 산출값 |
|---|---|---|---|
| 공공보육 기회로 장애 아동의 보육/치료 효과 제고 |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애 아동 치료비 절감 효과 | (A) 장애 아동의 별도 장애기관 월평균 이용료(744,100원)-국공립어린이집 아동의 장애기관 월평균 이용료(641,667원) 차액 = 102,451원*12개월 | 1,229천 원 |
| | 신규 확충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장애 아동 수(추정) | (B) 신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장애 아동 수(추정)<br>= 국공립어린이집 취원 아동 중 장애 아동(등록+비등록) 비중은 4.23%<br>=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취원 아동 수(23,516명)의 4.23%인 995명으로 장애 아동 추정 | 995명 |
| | 합계(A×B) | | 1,223,745천 원 |

## 라. 맞벌이 가구 아동의 보육 기회

맞벌이 가구의 아동 돌봄공백 해소는 어린이집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이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맞벌이 가구에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7:30-19:30까지의 운영시간 준수, 기타 연장형 보육 운영 의무 등을 통해 맞벌이 가구 돌봄 지원 책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맞벌이 가구 아동의 보육 기회의 형평성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시간당 야간연장 지불의사 금액은 월 249,143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맞벌이 가구 중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가구는 전체 맞벌이 가구의 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구에 월별 야간연장 지불의사를 곱하여 산정하였고, 이는 맞벌이 가구의 야간연장보육의 가치를 의미한다. 민간에서도 야간연장보육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많지 않고 이용을 하더라도 '내 아이만 남아 있는다'라는 불안감이 높으며 기관(혹은 교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문가 인터뷰(FGI)를 통해 확인하였다.

〈표 5-6〉 지표산출: 아동-맞벌이 가구 아동의 보육 기회

| 결과지표 | 대리지표 | 산출식 | 산출값 |
|---|---|---|---|
| 맞벌이 가구의 야간연장보육으로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제고 | 야간연장 지불의사 | (A) 시간당 야간연장 지불의사 시간당(11,349.23원)×주 몇 회(2.16회)×몇 시간(2.54시간)<br>= 월 지불의사 금액 249,143원<br>= 월(249,143원)×12개월 | 2,990천 원 |
| | 맞벌이 가구의 연장보육 희망 아동 수 | (B) 국공립어린이집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약 60.8%, 이중 야간연장보육(19:30-22:00 사이) 추가 이용 의향은 33.9%가 해당<br>= 신규 확충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수(23,516명) 중 맞벌이 가구 아동은 14,309명이며, 그중 33.9%가 야간연장보육 희망 아동 수 | 4,851명 |
| | 합계(A×B) | | 14,502,042천 원 |

## 2. 주양육자(부모) 지표

주양육자, 부모 측면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를 양육비용 절감, 경력 단절 모의 재취업 가능성 제고를 통한 소득 증가 지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양육비용 절감

국공립어린이집은 타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타필요경비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주양육자의 어린이집 이용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전체 가구의 양육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선택 사유에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서도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비국공립의 월평균 자부담 이용료는 196,350원이었으며, 국공립의 경우는 124,794원으로 약 70,556원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 아동이 비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 아동보다 월평균 약 7만원의 이용료를 절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 돌봄비용에 대해서는 '기관 등원 전/후 부모 외에 귀 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는 28.3%가, 비국공립어린이집은 32.9%가 정기적인 돌봄인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관 등원 전/후에 이용하는 추가 돌봄인력의 월평균 비용은 510,465원이며, 1인당 연간 6,125,581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가구의 추가 돌봄 이용률의 차이를 반영하여 추산한 결과, 약 66억 2626만원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한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표 5-7〉 주양육자(부모)-양육비용 절감

| 결과지표 | 대리지표 | 산출식 | 산출값 |
|---|---|---|---|
| 자부담 기관 이용료 절감 효과 | 비국공립(민간)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기관 이용 월 부담 비용 차액 | (A) 비국공립 월평균 자부담 이용료(196,350원)<br>- 국공립 월평균 자부담 이용료(125,794원) = 자부담 월 차액은 70,556원<br>= 월 70,556원×12개월 | 847천 원 |
|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취원 아동 수 | (B)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취원 아동 수<br>=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당 아동 수(47.7명)×신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수(493개소) | 23,516명 |
| | 합계(A×B) | | 19,910,328천 원 |
| 추가 돌봄 비용 절감 효과 | 연간 추가 돌봄 이용료 | (A) 월평균 추가 돌봄인력 이용료(510,465원)<br>= 월 510,465원×12개월 | 6,126천 원 |
|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월평균 추가 돌봄인력 이용률 차이 | (B) 비국공립어린이집 가구의 추가 돌봄인력 이용률 32.9%와 국공립어린이집 가구의 추가 돌봄인력 이용률 28.3% 차이(4.6%p 절감)<br>=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취원 아동(23,516명) 돌봄이용률이 32.9%에서 28.3%로 이용률 감소 시, 1,082명 추가 돌봄 절감<br>= 7,737명(32.9%)-6,655명(28.3%) | 1,082명 |
| | 합계(A×B) | | 6,626,262천 원 |

## 나. 모의 경제활동 지원

취학 전 아동의 여성 양육자, 특히 모가 경제활동을 지속 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성과가 있는지 살펴본다. 반일제 이상의 기관 이용이 재취업을 생각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취원 아동의 모는 89.7%, 비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82.3%가 재취업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냈을 경우, 약 7.42%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저임금액을 반영하더라고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모가 재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총 400억 8,578만 원이다.

〈표 5-8〉 주양육자(부모)-모의 경제활동 지원

| 결과지표 | 대리지표 | 산출식 | 산출값 |
|---|---|---|---|
| 모의 경제활동 지원: 재취업 모의 소득 증가 | 비국공립(민간)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취원 아동 모의 재취업 의사 비율 차이 | (A) (국공립어린이집 취원 아동 모의 89.7%)-(비국공립어린이집 취원 아동 모의 82.3%)= 7.42%<br>=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취원 아동 수(23,516명)의 7.42% 취업의향 반영 | 1,745명 |
| | 재취업 모의 소득 증가액 | (B) 최저임금액 반영(2022년 기준, 월 1,914,440원)<br>= 월 1,914,440원*12개월 | 22,973천 원 |
| | 합계(A×B) | | 40,085,782천 원 |

주: 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이 재취업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 89.7%
2) 비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이 재취업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 82.3%

##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사회적투자수익률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사회적투자수익률은 1원당 1.32원의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앞의 SROI 방법론 소개에서 설명하였듯이 해당 가치는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되어 보여지는 가치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가치는 1보다 크며,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5-9〉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

| 이해관계자 | 결과물 | 결과물 | 사회적수익 계산 |
|---|---|---|---|
| 아동 | 보육의 질 | 국공립-비국공립 간 평균 아동 1인당 교사 수 차이 | 11,391,575천 원 |
| | | 국공립-비국공립 간 교사 경력의 차이 (교사의 숙련도) | 15,086,048천 원 |
| | | 국공립 취원 아동 가구의 만족도 | 22.163.454천 원 |
| | 신체건강 개선 | 신체건강 개선 (연간 병원 가는 횟수 감소) | 472,109천 원 |
| | | 어린이집 급·간식 개선 | 18,936,012천 원 |
| | 장애 아동의 보육 기회 | 공공보육 기회로 장애 아동의 보육/치료 효과 제고 | 1,223,745천 원 |
| | 맞벌이 가구 아동의 보육 기회 | 맞벌이 가구의 야간연장보육으로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제고 | 14,502,042천 원 |
| 부모 | 양육비용 절감 | 자부담 기관 이용료 절감 효과 | 19,910,328천 원 |
| | | 추가 돌봄 비용 절감 효과 | 6,626,262천 원 |
| | 모의 경제활동 | 모의 경제활동 지원: 재취업 모의 소득 증가 | 40,085,782천 원 |
| 사회적 가치 측정 | | | 128,233,903천 원 |
| 투입액 | | | 96,875,728천 원 |
| 1원당 사회적 수익(₩) | | | ₩1.32:₩1 |

〈표 5-9〉에 제시된 사회적투자수익률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분석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측정한 것으로 SROI 분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장기 효과까지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질은 그들의 평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한을 언제까지로 두어야 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단기,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아동의 보육 질을 제고한다. 이는 아동 1인당 교사 수의 증가와 교사의 숙련도 향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양질의 보육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효과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국공립어린이집 졸업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 얻는 소득임금을 분석하는 데 현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이 개선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와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을 보호한다. 이는 아동의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드는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한 아동은 더 나은 학습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인적자본 축적과 관련이 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장애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아동들에게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아동이 평등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동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패널자료가 현재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30대 경력 단절 여성(모)의 재취업을 촉진한다. 안전한 공공보육서비스를 통해 부모, 특히 여성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가계 소득 증대와 경제 안정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여성의 재취업은 자녀 교육 및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음 세대의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한다. 이러한 단기 및 중장기적 효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단순한 보육 시설 확충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복지와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다차원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SROI 분석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민간도 분석은 다양한 가정이 채택될 경우 SROI 분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취원 아동의 변화, 재직 교사의 처우 등 중장기적으로 그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나, 비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만일 활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발생했을 결과물의 양을 측정(사중효과)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취원 아동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비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어떤 기관에도 다니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났을 변화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항목에 대한 패널자료의 부족, 현재 조사자료의 한계로 그 효과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SROI 분석 과정에서 활용된 대리지표의 적합성에 한계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관련한 영유아 보육 전문가, 방법론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등이 수차례 참여하여 논의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SROI 방법론에 익숙하지 않아 대리지표를 찾는 데 어려움

이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대리지표 탐색은 지속적이어야 하고,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이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대리지표로 환산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나 개념이 존재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측정이 미미한 상황이다. 사회복지 분야에 일관성 있는 지표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지표를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SROI 분석 결과의 비교 불가능성이다. 아직 SROI 분석이 정부 정책 분석 방법으로 적용된 사례가 적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1.32원의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즉, 어떤 정부 정책보다 나은 것인지, 어떤 정부지원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교 가능한 SROI 분석 결과가 부재한 상황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리지표와 함께, 결괏값이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면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이 있는 방법론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는 본 연구를 위해 참여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가치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측정한 사회적투자수익률임을 밝힌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표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므로 기관마다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없으나,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훨씬 우수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 제6장

##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제언

# 제6장 결론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전체 국고보조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성과평가 방법은 주로 연장평가와 보조금 적정성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SROI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과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특성과 기존 성과평가 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의 배경과 목적, 현행 성과평가 방법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보육 및 육아정책 전문가, 아동학과, 보육학과 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SROI 방법론을 검토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검토,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이해관계자별 인터뷰(FGI)를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지표를 탐색하고, 설문조사(약 1,600명 대상)를 통해 신규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SROI를 산출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특성과 성과평가 방법을 검토한 결과, 국고보조금은 재정 불균형 완화와

최소한의 행정 수준 유지를 위해 사용되며, 성과평가는 주로 연장평가와 보조금 적정성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과지표가 투입(input) 혹은 산출(output)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회적 가치지향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분야(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적합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SROI 분석 결과, 투자 대비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ROI 분석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평가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아동의 발달, 부모의 경제활동 지원, 장애 아동에게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를 SROI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의 효과를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아동과 부모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 전반의 복지와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과 관리와 평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SROI 방법론에서 제시한 매뉴얼을 충실히 이행하며 수행한 연구로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적 성과를 수치화하여 제시한 시범적인 연구이다. 초점집단 인터뷰, 설문조사,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분석 대상 사업의 관련 전문가와 방법론 검토를 위한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이터 수집의 한계와 사회적 가치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사회복지사업은 대체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축적된 성과지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 비교하여 사회보장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므로

재정적 측면에서의 효율화 중심의 관점보다는, 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상 단기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측정하고 보완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례 연구와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포괄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국고보조금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때 기존에 아동 수, 기관 수, 충원율 등의 산출(output) 관점에서만 주목했던 것과 비교해 성과(outcome)와 영향(impact)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분석 대상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그 결과가 아동에 대한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나,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성과를 대변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찾아 화폐화하는 데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둘째, SROI 분석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민감도 분석은 다양한 가정이 채택될 경우 SROI 분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결과로, 중장기적인 효과와 마찬가지로 비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그 효과를 %로 측정할 것인지와 관련해 오류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셋째, SROI 분석 과정에서 활용된 대리지표의 적합성에 한계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관련한 영유아 보육 전문가, 방법론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등이 수차례 참여하여 논의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SROI 방법론에 익숙하지 않아 대리지표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SROI 분석 결과의

비교 불가능성이다. 아직 SROI 분석이 정부 정책 분석 방법으로 적용된 사례가 적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1.32원의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즉, 어떤 정부 정책보다 나은 것인지, 어떤 정부지원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교 가능한 SROI 분석 결과가 없는 상황이다. 다섯째, 이 결과는 본 연구를 위해 참여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가치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측정한 사회적투자수익률임을 밝힌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훨씬 우수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 제2절 제언

### 1. 사회복지 분야 성과평가에 대한 제언

사회복지 분야 성과평가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일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포함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 문헌 검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SROI 분석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평가 방법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적합한 평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SROI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SROI 분석을 확대 적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다양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성과평가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성과평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제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아동의 발달과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통한 공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히 시설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확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인구 구조, 경제적 상황, 부모의 보육 수요 등을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확충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장애 아동을 위한 포괄적 보육서비스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장애 아동이 안전하고 포괄적인 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평등한 보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장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맞벌이 가구를 위한 연장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장보육에 필요한 추가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연장보육 프로그램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참고문헌



강희영, 나성은, 조막래, 김송이, 강은애. (2022).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고숙자, 오다은, 권정현, 김재현, 최영출, 이영숙, 조성은, 김성아, 나원희, 박소은. (2022). 사회정책의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틀 구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 이아영, 하솔잎, 박소은, 안영, 이동진, 유경원, 윤홍식, 황진태, 이재민, 박노욱. (2021).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재정구조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진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경은, 한유진. (2018). 영아기 부모양육역량 자기보고식 척도 개발 예비연구. 육아정책연구, 12(2): 29-35.

김종일. (2005). 사회문제론. 서울: 청목출판사.

김은설, 최윤경, 권미경, 최효미, 김나영, 김자연, 박은영. (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관계부처 합동. (2019.4.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경제활력대책회의.

관계부처 합동. (2020.1.15.).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혁신성장전략회의.

기획재정부. (2018.9.). 2018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기획재정부. (2021.9.). 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기획재정부. (2021). 2021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기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22.9.). 202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Ⅰ).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기획재정부. (2023.9.).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라준영, 김수진, 박성훈. (2018). 사회성과인센티브(SPC)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사회성과의 화폐가치 환산.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1(2), 133-161.

류재나, 강형식, 신정우, 김호정, 구윤모. (2016).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고려한 물환경 인프라시설 투자방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원.

박윤수, 강창희, 김부열, 오윤섭, 이아영. (2018). 사회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정책실험 도입방안 연구. KDI 정책연구시리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법률 제19589호, 2023. 8. 8., 타법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5489호, 2018. 3. 20.,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훈령 제677호, 2023.12.27.,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일부개정.

백선희, 임정기, 유재윤, 임유경, 손가현. (2017).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성과지표 개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 2017(13), 1-166.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이사랑플랜(2009~2012).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2009.3.). 2008년 보육통계(2008.12.31.기준).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4).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4).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5).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 (2015).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6).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8).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9). 2018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0). 2019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0).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1).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1). 2020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2). 2021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2). 2022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 대한민국정부.

보건복지부. (2023). 2023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 대한민국정부.

보건복지부. (2022.12.13.).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https://www.mohw.go.kr/gallery.es?mid=a10606030000&bid=0003&act=view&list_no=374121

보건복지부. (2022).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3).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2023,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1&vw_cd=MT_ZTITLE&list_id=G_16&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3.8.1. 인출.

보건복지부. (2023). 국가통계포털,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2006241#G_16.2. 23.8.1. 인출.

보건복지부. (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3). 2023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양미선, 이윤진, 김동훈, 조숙인, 김근진, 구자연, 오미애, 김문정. (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 (201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균형 배치와 질 담보 되어야. 육아정책포럼, 54, 16-25.

유해미, 강은진, 권미경, 박진아, 김동훈, 김근진, 김태우, 이유진, 이민경.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2020). 2019 영유아 주요 통계.

육아정책연구소. (2021). 2020 영유아 주요 통계.

육아정책연구소. (2022). 2021 영유아 주요 통계.

육아정책연구소. (2023). 2022 영유아 주요 통계.

원종학, 권오성, 최진욱. (2022).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로서의 평가제도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재훈, 김아름, 유해미, 김나영, 박은영. (2018).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이아영, 최영출, 김태완, 안영, 고숙자. (2021). 사회정책 평가를 위한 기반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혜진, 정홍원, 황안나. (202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보육서비스 확대 성과평가- 돌봄취약가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2023).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4.1,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conn_path=I2.

통계청. (2023).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4.1,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6&conn

_path=I2.

한승희. (2019).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현황과 집행실적 분석.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10.).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복지 및 소득이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황혜신, 이도석, 윤태원, 황덕연, 김준현. (2021). 분야별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III: 보건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기본연구과제, 2021(0), 1-344.

Nicholls, J., Lawlor, E., Neitzert, E., & Goodspeed, T. (2010). SROI: 사회적 투자수익률 측정 가이드. (조영복, 류정란,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REDF. (2001). SROI Methodology, San Francisco: 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REDF).

Wholey, J. S. (1979). Evaluation: Promise and Performance,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OECD. (2018). 2018 OECD 교육지표. (류정섭, 양창완, 이호영, 신태연, 김영옥, 임후남, 권희경, 나원희, 윤선애, 김연천, 이은지, 김한나, 김솔휘, 김귀아, 강미선, 임무영, 옮김).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OECD. (2023). 2023 OECD 교육지표. (이영찬, 권삼수, 정미래, 박병영, 남궁지영, 김나영, 손영호, 김솔휘, 이은지, 한효진, 김동현, 김한나, 공민아, 문수연, 옮김).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openfiscaldata.go.kr, 23.7.31. 인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e나라도움·보탬e 보조금통합포털. https://www.bojo.go.kr/bojo.do, 23.7.31. 인출.

교육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main.jsp, 23.7.31. 인출.

블리. (2023.1.6.). 2022년 보육교사 호봉표. https://blog.naver.com/dmsp408/222977093840 <- 블로그 게시글 인용, 24.1.20. 인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9). 성인 기혼여자의 취업여부별 평균시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TS202022&conn_path=I2, 24.1.20.인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9). 성인의 혼인상태별 평균시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TS202016&conn_path=I2, 24.1.20.인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jsessionid=bw47r6X8wn51WQJ1erZ4XKoxK6R0YI-DDtwtoh_x.node11?idx_cd=1572, 24.1.20.인출

여성가족부. (2006.7.27.). 여성가족부,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새싹플랜 확정·발표- 2010년,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을 80.8%까지 확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43714&tag=&nPage=1165, 24.1.20.인출

## [부록 1] 영유아 양육기관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

### 응답자 선정

**SQ1. 귀하의 출생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  )**

1) 19~24세 2) 25~29세 3) 30~34세
4) 35~40세 5) 41~45세 6) 45세 이상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SQ3. 귀하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실제 거주지를 시군구 단위까지 응답해주십시오.**

(  )시/도 (  ) 시/군/구

**SQ4. 귀댁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중인 2017년 1월 1일 이후(2017년 1월 1일 포함)에 출생한 자녀가 있습니까? (※ 영어학원 유치부, 놀이학교 등을 이용하거나 가정보육 중인 자녀 제외)**

1) 있음 2) 없음(→조사중단)

**SQ5. 귀하는 해당 자녀의 주양육자입니까?**

1) 네 2) 아니오(→조사중단)

**SQ5-1. 귀하는 미취학 자녀와 어떤 관계입니까?**

1) 모 2) 부 3) 조모 4) 조부
5) 기타(구체적으로:  )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중인 미취학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이후 설문은 미취학 자녀 중 큰 아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SQ6. 위 미취학 자녀는 어느 기관에 다니고 있습니까?**

1) 국공립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3)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4) 민간어린이집
5) 가정어린이집
6) 직장어린이집
7) 국공립 단설유치원
8) 국공립 병설유치원
9) 사립유치원

**SQ7. 귀댁의 미취학 자녀는 위 기관을 언제부터 이용하였습니까?**

(　　)년 (　　)월부터 이용함

*(※ 2023년 10월 이후 이용한 경우(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는 조사가 중단되도록 설정)*

**SQ8. 귀댁의 미취학 자녀의 출생연월은 언제입니까?**

(　　)년 (　)월

*(※ 연령이 자동코딩될 수 있도록 설정, 출생연도는 2017~2023년으로 제한)*

**SQ9. 귀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십니까?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복수응답]**

1) 해당 없음 (→중복응답 불가능)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3) 한부모 가구
4) 조손 가족
5) 다문화 가구
6) 맞벌이 가구
7) 다자녀 가구
8) 장애인 가구
9) 북한이탈주민

# 『영유아 양육기관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보건복지정책의 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비(非)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 아동의 보육 현황과 해당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공보육 확충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 중인 **미취학 자녀(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를 둔 전국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며**, 약 2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응답하기 불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며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하고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의 최종 결과물(연구보고서, 마이크로데이터 등)은 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친 이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의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의 최종 결과물 작성 시에도 개인식별이 가능하지 않도록 자료를 처리합니다.

조사 참여자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 분께 사례로 패널 리워드를 지급합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미동의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답례품 지급에만 사용되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의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 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ㅇㅇㅇ
□ 연구 관련 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ㅇㅇㅇ
□ 조사 수행기관: ㈜엠브레인퍼블릭
□ 조사 기간: 2024. 1. ~ 2024. 2.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응답자 및 가구 일반현황, 아동 및 기관 이용 특성,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인식, 주양육자 일 경험 특성 및 인식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
영유아의 양육기관 이용 실태 파악 및 공보육 확충 관련 정책 방안 모색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영유아 양육기관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의 조사 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 함(→조사중단)

## A. 아동 및 기관 이용 특성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중인 미취학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이후 설문은 미취학 자녀 중 큰 아이 △△(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A1. 미취학 자녀 △△(이)의 월평균 양육비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　　) 만 원**

| |
|---|
| ○ 가족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비,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이)의 양육을 위해 들어가는 의료비, 각종 교육·양육/돌봄비(기관 이용료, 학원비, 조부모 돌봄비용 등), 식비, 의복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응답해주십시오.<br>○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 정부지원을 제외한 본인 부담 비용만 응답해주십시오. |

**A2. 미취학 자녀 △△(이)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까?**

1) 비장애인 (→A3으로)　　2) 등록장애인
3) 비등록장애인

**A2-1. 자녀의 장애와 관련하여 별도의 기관(센터)을 다니고 있습니까? (예시: 치료센터, 상담센터, 치료 병원, 복지관 등)**

1) 네 (→A2-2로)　　2) 아니오 (→A3으로)

**A2-2.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몇 개입니까?** (　)개

**A2-3. 기관을 이용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년 (　)개월

**A2-4. 기관을 1주에 몇 시간 이용하십니까? 2개 이상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기관을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주 (　)시간 이용

**A2-5. 월평균 기관 이용료는 얼마입니까? 2개 이상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기관을 합하여 응답해주십시오.** 월평균 (  )만 원

**A3. 귀 자녀가 이용 중인 기관을 한 번 더 응답해주십시오.**

1) 국공립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3)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4) 민간어린이집
5) 가정어린이집 6) 직장어린이집
7) 국공립 단설유치원8) 국공립 병설유치원
9) 사립유치원

**A3-1. 귀 자녀는 현재 이용 중인 기관 이전에 다른 교육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네 (→A3-2로) 2) 아니오 (→A4로)

**A3-2. 현재 이용 중인 기관 이전에 다른 교육기관을 이용하였다면, 어느 기관이었습니까?**

1) 국공립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3)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4) 민간어린이집
5) 가정어린이집 6) 직장어린이집
7) 국공립 단설유치원 8) 국공립 병설유치원
9) 사립유치원

**A4. 귀 자녀가 이용 중인 기관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 | | | | | | → 매우 만족한다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A4-1. 실내외 시설환경 (교재교구, 공간구성 포함) | | | | | | | | | | |
| A4-2. 교육(보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 A4-3. 급·간식 관리(식단 및 영양관리) | | | | | | | | | | |
| A4-4. 건강 및 안전관리 | | | | | | | | | | |
| A4-5. 원장 자질 및 전문성 | | | | | | | | | | |
| A4-6. 교사 자질 및 전문성 | | | | | | | | | | |
| A4-7. 양육자(부모)와의 소통, 가정연계활동 등 | | | | | | | | | | |
| A4-8. 기관 이용시간(등원, 하원시간) | | | | | | | | | | |
| A4-9. 기관 운영일수(방학 기간 등) | | | | | | | | | | |
| A4-10. 기관 이용료(비용) | | | | | | | | | | |

**A4-1. 귀 자녀가 이용 중인 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 | | | | | | → 매우 만족한다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 | | | | | |

**A5.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등)을 제외하고, 해당 기관을 이용하면서 귀하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월평균 (　　) 만 원**

○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등 정부지원(예시: 바우처, 카드결제금액)은 제외하고 응답해주십시오.

○ 부모 부담이 없으면 '0'으로 기입,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비, 행사비, 아침 저녁 급식비 등 부모 부담 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비용을 응답해주십시오.

**A6. 귀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의 등·하원 시간(기관 도착시간, 출발시간)은 언제입니까? 응답은 24시간 기준이며, 30분 단위로 응답해주십시오.**

A6-1. 등원시간: (  )시 (  )분

A6-2. 하원시간: (  )시 (  )분

**A7. 위 등·하원 시간은 귀하가 희망하는 등·하원 시간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을 경우 희망하는 시간을 응답해주십시오.**

| | A7-1. 희망하는 등/하원 시간과 일치합니까? | A7-2. 희망하는 등원시간 [prog: 보기 2 응답자만] |
|---|---|---|
| 등원시간 | 1) 희망하는 시간과 같음<br>2) 희망하는 시간과 다름 | (  )시 (  )분 |
| 하원시간 | 1) 희망하는 시간과 같음<br>2) 희망하는 시간과 다름 | (  )시 (  )분 |

**A8. 기관 등원 전 혹은 하원 후에 부모 외 귀 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 A9로)

**A8-1. 언제 주로 도움을 받습니까?**

1) 등원 전  2) 하원 후  3) 등원 전과 하원 후 모두

**A8-2. 귀 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주된 형태 한 가지만 응답해주십시오.**

1) 조모  2) 조부  3) 조부모 외 친척

4) 정부 지원(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5) 민간 아이돌보미  6) 기타(구체적으로:  )

**A8-3.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회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습니까?**

1) 주 1회  2) 주 2회  3) 주 3회  4) 주 4회  5) 주 5회 이상

**A8-4. 평균적으로 등원 전 혹은 하원 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도움을 받습니까? 오전 오후 구분하여, 30분 단위로 응답해주십시오.**

| | |
|---|---|
| [prog: A8-1=1,3 응답자만]<br>**기관 등원 전** | 오전 (  )시 (  )분 ~ (  )시 (  )분까지 돌봐줌 |
| [prog: A8-1=2,3 응답자만]<br>**기관 하원 후** | 오후 (  )시 (  )분 ~ (  )시 (  )분까지 돌봐줌 |

**A8-5.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에게 귀하가 지급하는 월평균 돌봄 비용은 얼마입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0'으로 기입해주시고, 비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는 월평균 비용(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해주십시오.** 월평균 (  ) 만 원

**A9. 귀 자녀가 이용 중인 기관의 급·간식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 | | | | | | → 매우 만족한다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A9-1.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양섭취가 가능하도록 식단이 체계적으로 수립됨 | | | | | | | | | | |
| A9-2. 아이의 연령, 개별 요구, 발달단계에 맞추어 급·간식(양, 크기, 맛, 조리형태 등)이 제공됨 | | | | | | | | | | |
| A9-3. 인스턴트 식품보다 자연식품 위주로 급·간식이 제공됨 | | | | | | | | | | |
| A9-4.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보호자에게 안내함 | | | | | | | | | | |

**A9-1. 귀 자녀가 이용 중인 기관이 기관의 급·간식 관리서비스 만족도를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이용기관에 추가비용을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있음 2) 없음 (→A10으로)

**A9-2. 그렇다면 이용 중인 기관에 매월 추가로 지불하실 수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월 (  )원

**A10. 귀 자녀가 이용 중인 기관의 건강관리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매우 만족한다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A10-1. 교사는 등원하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발열, 기침, 콧물, 기분 상태 등)를 살핌 | | | | | | | | | | |
| A10-2. 자녀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직접 전화 또는 알림장으로 연락함 | | | | | | | | | | |
| A10-3. 자녀가 기관에서 다쳤을 경우 상황을 알리고 적절하게 조치함 | | | | | | | | | | |
| A10-4. 기관 일과시간 중에 영유아들에게 건강·영양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 | | | | | | | | | |

**A11. 기관 이용이 귀 자녀의 건강·영양 상태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도움 안 됨　　2) 도움 안 됨

3) 도움 됨　　4) 매우 도움 됨

**A12. 귀 자녀가 감기 등 전염병으로 한 달에 병원 가는 횟수는 평균적으로 몇 번입니까?** (　　) 회 [ 0 입력 시 A13으로]

**A12-1.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1회 평균 병원비용(처방약 비용 포함)은 얼마입니까?**

1회 평균 (　　)원 [0 응답 불가]

**A12-2.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한 달 평균 병원비용(처방약 비용 포함)은 얼마입니까?** 한 달 평균 (　　)원 [0 응답 불가]

**A13. 귀 자녀가 이용 중인 기관의 장애아 보육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 기관에 이용 중인 장애 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장애 아동이 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는 '잘 모르겠음'에 응답해주십시오.)**

|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 | | | | | | | → 매우 만족한다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A13-1. 장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출입문, 경사로, 계단, 화장실 등)이 잘 갖춰져 있음 | | | | | | | | | | |
| A13-2. 장애아를 위한 교재·교구 지원이 잘 됨 | | | | | | | | | | |
| A13-3. 장애아 지원 별도 전문인력(특수교사, 치료사 등)이 있음 | | | | | | | | | | |
| A13-4. 영유아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 | | | | | | | | | | |
| A13-5. 부모(가족)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 | | | | | | | | | | |

**A14. 장애 영유아와 비장애 영유아가 함께 한 기관에서 교육·보육을 받는 것이 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도움 안 됨　　2) 도움 안 됨
3) 도움 됨　　4) 매우 도움 됨

**A15.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이 귀하의 행동이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응답해주십시오.**

| | 기관 이용 후 도움 정도 | | | |
|---|---|---|---|---|
| | 전혀 도움 안 됨 | 도움 안 됨 | 도움 됨 | 매우 도움 됨 |
| A15-1. 나는 어떠한 장난감이 △△(이)의 연령에 적절한지 알고 있다. | 1) | 2) | 3) | 4) |
| A15-2. 나는 △△(이)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 1) | 2) | 3) | 4) |
| A15-3. 나는 △△(이)의 소근육 발달을 돕는 여러 가지 활동(예: 숟가락 사용, 블록 쌓기 등)을 알고 있다. | 1) | 2) | 3) | 4) |
| A15-4. 나는 △△(이)의 대근육 발달을 돕는 여러 가지 활동(예: 공놀이, 계단 오르기 등)을 알고 있다. | 1) | 2) | 3) | 4) |
| A15-5. 나는 △△(이)의 일반적인 식단과 식사 방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고 있다. | 1) | 2) | 3) | 4) |
| A15-6. 나는 △△(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 1) | 2) | 3) | 4) |
| A15-7. 나는 △△(이)의 연령에 따른 발달단계와 행동을 이해한다. | 1) | 2) | 3) | 4) |
| A15-8. 나는 △△(이)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1) | 2) | 3) | 4) |
| A15-9. 나는 △△(이)의 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 1) | 2) | 3) | 4) |
| A15-10. 지역사회에서 나와 △△(이)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나 사람들(예:또래 아이 부모들, 보육지원서비스, 어린이집, 치료실, 문화센터프로그램 등)을 찾을 수 있다. | 1) | 2) | 3) | 4) |
| A15-11. 나는 △△(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 A15-1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 역할을 보여주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 A15-13. 나는 △△(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예: 아이의 짜증, 아이와 규칙변경 등)를 잘 다룬다. | 1) | 2) | 3) | 4) |
| A15-14.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 1) | 2) | 3) | 4) |
| A15-15. 나는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 A15-16. 나는 부모로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 1) | 2) | 3) | 4) |

※ 척도 출처: 김경은·한유진(2018). “영아기 부모양육역량 자기보고식 척도 개발 예비연구”. 『육아정책연구』, 12(2): 29-35 중 인지적 역량과 양육효능감으로 구성

**A15-1. 귀 자녀가 이용 중인 기관이 귀하의 행동이나 태도에 미친 영향 및 도움 정도를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이용기관에 추가 원비/이용료/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있음 2) 없음 (→ A16으로)

**A15-2. 그렇다면 이용 중인 기관에 매년 추가로 지불하실 수 있는 원비/이용료/기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 )원 [0 응답 불가]

**A16.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서 아래의 양육 부담이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응답해주십시오.**

| | 기관 이용 후 완화 정도 | | | |
|---|---|---|---|---|
| | 전혀 완화 안 됨 | 완화 안 됨 | 완화됨 | 매우 완화됨 |
| A16-1. 신체적 부담 (육체적 피로, 휴식시간 없음 등) | 1) | 2) | 3) | 4) |
| A16-2. 정서적 부담(양육스트레스 등) | 1) | 2) | 3) | 4) |
| A16-3. 사회적 고립(지인·이웃과 소통 기회 부족, 독박/고립 육아 등) | 1) | 2) | 3) | 4) |
| A16-4. 경제적 부담(교육비, 의료비 등) | 1) | 2) | 3) | 4) |
| A16-5. 가족관계의 어려움 (육아 관련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등) | 1) | 2) | 3) | 4) |

**A17. 귀 자녀는 이용 중인 기관을 다음의 시간에 이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용 경험이 있는 것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1) 오전 07:30 이전

2) 19:30-22:00 사이에 이용

3) 22:00 이후, 또는 24시간 이용

4) 휴일 이용

5) 이용 경험 없음 (→A18로 이동)

**A17-1.** (A17=1~4 응답자만 제시) **한 달 기준 몇 회 이용하셨습니까?**

한 달 기준 ( ) 회

**A17-2.** (A17=1~4 응답자만 제시) **해당 이용시간을 이용하고, 지불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0'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시간당 (　　) 원

**A17-3.** (A17=1~4 응답자만 제시) **해당 시간에 기관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1) 일을 해야 해서(늦은 퇴근시간, 야간·교대·휴일 근무, 출장 등)
2) 학업, 직업훈련·교육 등의 이유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3) 개인적인 활동(취미활동, 경조사, 종교활동, 친목모임 등)을 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4) 갑작스러운 사정(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5)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다자녀, 임신 중, 한부모·조손가구 등)
6) 기타(구체적으로:　　)

**A17-4.** (하나라도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 | | | | | | → 매우 만족한다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A17-4-1. 담당 교사 자질 및 전문성 | | | | | | | | | | |
| A17-4-2. 급·간식, 프로그램 운영 등 | | | | | | | | | | |
| A17-4-3. 돌봄부담 해소 | | | | | | | | | | |

**A18. 귀 자녀가 이용 중인 기관이 다음의 시간에 운영한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용 의사가 있는 시간대의 보기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1) 오전 07:30 이전
2) 19:30-22:00 사이에 이용
3) 22:00 이후, 또는 24시간 이용
4) 휴일 이용
5) 아니오 (→B1로 이동)

**A18-1. 야간연장보육이 가능하다면, 일주일 기준 몇 회, 하루 몇 시간 이용하실 것 같습니까?**

주 (　　)회, 하루 기준 (　　)시간

**A18-2. 시간당 비용을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불의사가 없는 경우는 '0'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시간당 (　　)원

## B.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인식

**B1. 귀 자녀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나, 과거에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까?**

1) 현재 다니고 있음
2) 과거에 다닌 경험이 있음
3) 다닌 경험 없음 (→ B2로 이동)

**B1-1. 현재 또는 과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닌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 1년 미만　　2) 1년~2년 미만　　3) 2년 이상

**B1-2.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집에서 가까워서
2) 직장과 가까워서
3) 원장, 교사가 우수해서
4) 서비스 질(프로그램, 급·간식, 원아관리 등)이 우수해서
5) 시설환경(교실, 교재교구, 놀이터 등)이 우수해서
6) 이른 아침, 늦게까지 운영해서
7) 장애·다문화 등 취약보육을 하고 있어서
8)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저렴해서

9) 형제·자매가 다니고 있어서
10) 기관 및 학급 규모(아동 수)가 적절해서
11) 기타(구체적으로:  )

**B1-3. 귀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어떻게 등원하십니까?**
1)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해서
2) 보호자와 함께 도보로
3) 보호자와 함께 차로(자가용, 대중교통 등)
4) 기타(구체적으로:  )

**B1-4. 만약 도보로 등원한다고 하면 성인 도보 기준 등원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성인 도보 기준 (  )분 소요 **(→ B1-4 응답 후 B3으로 이동)**

B2. (B1=3 응답자만 제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었는데,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1) 네(→B2-1로)  2) 아니오(→B3로)

**B2-1. 불가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했던 사유는 무엇입니까?**
1) 국공립어린이집에 내 자녀에게 맞는 연령반이 없어서(예시: 0세 반 없음)
2) 국공립어린이집에 내 자녀에게 맞는 연령반에 자리가 없어서
3) 국공립어린이집이 집에서 너무 멀거나 등원이 불편해서
4) 기타( _____ )

**B3.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집에서 가까워서
2) 직장과 가까워서
3) 원장, 교사가 우수해서
4) 서비스 질(프로그램, 급·간식, 원아관리 등)이 우수해서
5) 시설환경(교실, 교재교구, 놀이터 등)이 우수해서
6) 이른 아침, 늦게까지 운영해서
7) 장애·다문화 등 취약보육을 하고 있어서
8)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저렴해서
9) 형제·자매가 다니고 있어서
10) 기관 및 학급 규모(아동 수)가 적절해서
11) 지인 추천으로
12) 기타(구체적으로: )

**B4. 집 근처 국공립어린이집에 귀 자녀의 자리가 생긴다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길 의향이 있으십니까?**

1) 네 (→B4-1로) 2) 아니오

**B4-1.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기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집에서 가까워서
2) 직장과 가까워서
3) 원장, 교사가 우수해서
4) 서비스 질(프로그램, 급·간식, 원아관리 등)이 우수해서
5) 시설환경(교실, 교재교구, 놀이터 등)이 우수해서
6) 이른 아침, 늦게까지 운영해서
7) 장애·다문화 등 취약보육을 하고 있어서
8)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저렴해서
9) 형제·자매가 다니고 있어서

10) 기관 및 학급 규모(아동 수)가 적절해서
11) 기타(구체적으로:  )

**B5. 귀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비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우수한 것 같지 않다 (→ B6으로)
2) 별로 차이가 없다 (→ B6으로)
3) 조금 더 우수한 것 같다 (→ B5-1로)
4) 매우 우수한 것 같다 (→ B5-1로)

**B5-1. 귀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비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서비스가 어느 정도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국공립어린이집을 100으로 가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예를 들어 10% 정도 우수하다고 생각할 시에 110이라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 [100~199 응답 가능]

**B6. 귀하는 집주변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이 부족함 2) 다소 부족함
3) 어느 정도 충분함 4) 매우 충분함

**B7. 귀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8.8%입니다.)**
1) 현재도 충분함. 확충할 필요 없음
2) 20%까지 확충 필요
3) 30%까지 확충 필요
4) 40%까지 확충 필요
5) 50%까지 확충 필요
6) 60%까지 확충 필요
7) 70%까지 확충 필요
8) 80% 이상까지 확충 필요

## C. 주양육자 일 경험 특성 및 인식

**C1. 귀하는 자녀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거나, 그만둘 계획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 자녀 출산, 양육과 관련 없는 사유로 그만둔 경험은 제외)**

1) 과거에 그만둔 경험이 있음 (→C1-1로)
2) 앞으로 그만둘 생각이 있음 (→C2로)
3) 앞으로 그만둘 계획이 없음 (→C3으로)
4) 취업 경험 없음 (→C3으로)

**C1-1. 과거에 자녀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일을 그만두었을 때, 월평균 소득은 얼마였습니까? 가장 최근의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월평균 (　　) 만 원

**C2. 내가 일하는 시간 동안 충분히 믿고 맡길 만한 기관이 있(었)다면, 일을 그만두거나 그만둘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1) 그만두지 않았을 것임
2) 믿고 맡길 만한 기관 유무에 상관없이 그만두었을 것임

**C3. 귀하는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1) 법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충분히 사용함 (→C3-1로)
2) 사용하였지만 원하는 기간만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C3-1로)
3) 경험 없음 (→C3-2로)

**C3-1.** (C3=1, 2 응답자만 제시) **몇 개월 동안 사용하셨나요?**　총 (　　)개월

**C3-2.** (C3=2, 3 응답자만 제시) **육아휴직제도 사용 경험이 없거나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1) 해당 제도가 없어서
2) 신청했지만 불허되어서
3) 있지만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4) 경력, 승진, 업무배치 등에서 불이익이 염려되어서
5) 제도 사용 시 소득이 줄어서
6) 내가 제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서
7) 나중에 사용하려고
8) 기타(구체적으로:_____)

**C4. 현재 반일제 이상의 기관 이용이 귀하나 귀댁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응답해주십시오.**

| | 도움 정도 | | | | 해당 없음 |
|---|---|---|---|---|---|
| | 전혀 도움 안 됨 | 도움 안 됨 | 도움 됨 | 매우 도움 됨 | |
| C4-1. 직장생활·학업 지속(직무, 학업집중도 향상 등)에 도움 됨 | 1) | 2) | 3) | 4) | □ 일을 안 함 |
| C4-2. 재취업을 생각하게 됨 | 1) | 2) | 3) | 4) | □ 현재 일을 함 |

## 가구 일반 사항

**HQ1. 귀하를 포함해 귀 가구의 가구원 수는 총 몇 명입니까?**

**※ 가구원 수 응답하는 방법**

-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 주말 부부,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소득을 공유하는 가족이라면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 셰어하우스, 기숙사 등에서 함께 사는 타인은 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명 [2~99 응답 가능]

**HQ2. 귀댁의 총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 임신 중인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1명 2) 2명 3) 3명
4) 4명 5) 5명 이상

**HQ2-1. 자녀 중 2017년 1월 1일 이후(2017년 1월 1일 포함) 출생한 자녀는 몇 명입니까?**

1) 1명 2) 2명 3) 3명
4) 4명 5) 5명 이상

**HQ3. 귀하는 귀 가구의 가구주입니까?**

1) 예 2) 아니오

**HQ4. 귀하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2) 사별, 이혼, 별거
3) 미혼
4) 기타( )

**HQ5.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대학/전문대학 재학/휴학
3) 대학/전문대학 졸업
4) 대학원 재학/휴학
5) 대학원 졸업

**HQ6. 현재 미취학 자녀 부모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는 어떠합니까? 부모 각각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 | 1) 취업상태 | 1) 취업상태에서 '취업 중' 선택 시 | |
|---|---|---|---|
| | | 2) 종사상 지위 | 3) 출퇴근 형태<br>(해당 사항에 모두 응답) |
| 부 | 1) 취업 중<br>2) 휴직 중<br>3) 학업 중<br>4) 미취업<br>9) 부또는모부재 | 1)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br>2) 정규직 임금근로자<br>3) 비정규직 임금근로자<br>4) 무급가족종사자<br>9) 모름 | 1) 규칙적으로 출퇴근<br>2) 불규칙하게 출퇴근<br>3) 출퇴근하지 않음(재택, 농어민)<br>4) 규칙적으로 토요일에 일을 함<br>5) 불규칙적으로 토요일에 일을 함<br>6) 규칙적으로 일요일에 일을 함<br>7) 불규칙적으로 일요일에 일을 함 |
| 모 | 1) 취업 중<br>2) 휴직 중<br>3) 학업 중<br>4) 미취업<br>9) 부또는모부재 | 1)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br>2) 정규직 임금근로자<br>3) 비정규직 임금근로자<br>4) 무급가족종사자<br>9) 모름 | 1) 규칙적으로 출퇴근<br>2) 불규칙하게 출퇴근<br>3) 출퇴근하지 않음(재택, 농어민)<br>4) 규칙적으로 토요일에 일을 함<br>5) 불규칙적으로 토요일에 일을 함<br>6) 규칙적으로 일요일에 일을 함<br>7) 불규칙적으로 일요일에 일을 함 |

**HQ7. 귀 가구의 가구원#HQ1 응답값#명 전체의 현재 월평균 가구소득(세금공제 전)은 어느 정도입니까?**

**※ 가구소득이 일정하지 않으신 댁은 최근 3개월(2023년 10월~12월) 동안의 평균값을 적어주세요.**

**※ 가구소득 응답하는 방법**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이자 소득 + 공적/민간연금 + 따로 사는 가족에게 받는 용돈 + 정부 지원금**(생계급여, 양육·아동수당 등)

1) 소득 없음
2) 100만 원 미만
3) 100~200만 원 미만
4) 200~300만 원 미만
5) 300~400만 원 미만
6) 400~500만 원 미만

7) 500~600만 원 미만
8) 600~700만 원 미만
9) 700~800만 원 미만
10) 800~900만 원 미만
11) 900~1,000만 원 미만
12) 1,000만 원 이상

**HQ8. 귀하의 현재 월평균 총소득(세금공제 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은 최근 3개월(2023년 10월~12월) 동안의 소득을 3개월로 나눈 평균값을 적어주세요.**

**※ 총소득 응답하는 방법**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이자 소득 + 공적/민간연금 + 따로 사는 가족에게 받는 용돈 + 정부 지원금**(생계급여, 양육·아동수당 등)

1) 소득 없음
2) 100만 원 미만
3) 100~200만 원 미만
4) 200~300만 원 미만
5) 300~400만 원 미만
6) 400~500만 원 미만
7) 500~600만 원 미만
8) 600~700만 원 미만
9) 700~800만 원 미만
10) 800~900만 원 미만
11) 900~1,000만 원 미만
12) 1,000만 원 이상

**※ 긴 시간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익명 처리되며, 정책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활용되지 않습니다.**

# [부록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관련 초점집단 인터뷰

**□ 인터뷰 진행 목적**

○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출 현황을 분석하고, 국고보조금이 본 취지에 맞게 지역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 SROI 분석을 하고자 함.

- SROI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종사자)와의 FGI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관하여, 아동/부모/종사자가 느끼는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고, 이를 설문지에 반영하고자 함.

**□ 인터뷰 진행(안)**

○ 인터뷰 진행 방법:

- 인터뷰: 그룹별 1회 최대 4인, 2시간 내외로 진행 (대면)
- 횟수 및 장소

• 원장(관리자): 4인

• 교사 및 기타종사자 보육교사 7인, 치료사 2인, 영양사 1인

- 참석자: 연구진(연구책임자, 연구원), 인터뷰 대상자

○ 인터뷰 진행 일정

- 1차: 10월 10일(화) (참석인원: 원장 2인)
- 2차: 10월 11일(수) (참석인원: 보육교사 2인)
- 3차: 10월 16일(월)

- (참석인원: 보육교사 2인, 치료사, 영양사 각 1인, 총 4인)
- 4차: 10월 25일(수) (참석인원: 원장 1인, 보육교사 2인)
- 5차: 10월 26일(목) (참석인원: 원장 1인, 보육교사 1인, 치료사 1인)
- 인터뷰 대상자
- 선정 방법

• (1단계) 국공립어린이집 기관 선정 기준

| 구분 | | 기관 | | | |
|---|---|---|---|---|---|
| | | A기관 | B기관 | C기관 | D기관 |
| 어린이집 지역 | 대도시 | ○ | ○ | × | × |
| | 중소도시 | × | × | ○ | × |
| | 농어촌 | × | × | × | ○ |
| 어린이집 규모 (정원 기준) | 100명 이상 | ○ | × | ○ | × |
| | 50명 이상~100명 미만 | × | ○ | × | ○ |
| | 50명 미만 | × | × | × | × |
| 어린이집 특성 (취약·특수보육 여부) | 0세 반 운영 여부 | ○ | × | ○ | ○ |
| | 7세 이상 반 운영 여부 | ○ | × | × | × |
| | 장애아통합 여부 | ○ | × | ○ | ○ |
| | 장애아전문 여부 | × | ○ | × | × |
| | 야간연장반 여부 | × | ○ | ○ | ○ |
| | 방과후반 여부 | ○ | × | × | × |

• (2단계)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선정 기준: 기관별로 원장 1인 및 보육교사 최소 1인, 가능한 경우 영양사, 치료사 등 기타종사자 참여

- 그룹 대상 및 일정

| 구분 | 시간 | 대상 | |
|---|---|---|---|
| 1차 | 10월<br>10일(화)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1인<br>- 대도시(통합형/방과후)<br>국공립어린이집 원장 1인<br>- 대도시(전문형/야간연장) | 총 2인 |
| 2차 | 10월<br>11일(수) | 국공립어린이집 교사<br>- 대도시(통합형/방과후)<br>국공립어린이집 교사<br>- 대도시(전문형/야간연장) | 총 2인 |
| 3차 | 10월<br>16일(월) |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2인 및 기타 종사자<br>(치료사, 영양사) - 대도시(통합형/방과후) | 총 4인 |
| 4차 | 10월<br>25일(수)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1인 및 교사 2인<br>- 농어촌 (통합형/야간연장/24시간) | 총 3인 |
| 5차 | 10월<br>26일(목)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1인, 교사 1인 및 기타 종사자(치료사)<br>- 중소도시 (통합형/야간연장/24시간) | 총 3인 |

❍ 인터뷰 내용

- (질문1) 원장님 혹은 선생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직장이나 민간 혹은 가정 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장으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 특히 특수교사 선생님의 경우, 특수교육시설이나 센터(기관) 등이 있었을 텐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타 기관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더 장점이라고 생각하셔서 선택하셨는지요?

• 치료사나 영양사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타 기관(시설 혹은 센터)이 다양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 (질문2)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기준이 필요한가요? 필수조건과 선택조건들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민간이나 가정, 직장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특별히 더 이수해야 한다거나 다른 자격조건들이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 직장 진입 시의 자격 기준과 계속근로를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질문3)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전과 비교하여 근무한 이후에 변화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근무 환경 측면에서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해 의도된 변화이거나, 의도되지 않았으나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직장 밖에서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해 의도된 변화이거나, 의도되지 않았으나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근무하시면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지요? 만족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불만족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민간이나 가정, 직장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이외의 타 어린이집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다면, 비교하여 말씀해주세요.

- (질문4) 아동과 부모 입장에서, 선생님(원장, 교사, 영양사, 치료사 모두 포함)께서 생각하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아동이나 맞벌이 가구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에게 유리한 점이 있을지요?
- 민간이나 가정, 직장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이외의 타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말씀해주세요.

- (질문5) 선생님들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 어린이집 이외에 다른 직장이동으로의 이동계획이 있으십니까?
- 정년까지 가능하다면, 출산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실 생각이십니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관련 초점집단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 보건복지정책의 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개발적립금과제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효과분석('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중심으로)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사업을 통한 효과(아동/부모/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 등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 미치는 영향)를 조사하는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인터뷰는 응답에는 약 2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조사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지역, 개인식별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참여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 및 손실, 이득은 없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입력 후 익명처리(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를 모두 삭제 또는 비식별화 처리)된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며, 연구의 최종결과물(연구보고서, 마이크로데이터 등) 작성 시에도 개인 혹은 기관 식별이 가능하지 않도록 자료를 처리합니다. 연구 참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수행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도중에라도 응답하기 불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하고 연구 참여를 중단하셔도 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연구책임자 :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 부연구위원
담당: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 전문연구원

###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국·공립어린이집 재정 관련 지원 상황, 종사자로서 사업을 통해 느낀 변화, 아동/부모/종사자 입장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점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효과 분석(사회적 가치 측정)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따라 조사 사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으며, 조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 함

2023년 월 일 조사대상자 :

# Abstract

##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bsidie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 Social Return on Investment of Public Daycare Centers

Project Head: Na, Wonhee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expanded government subsidies, including those for social welfare, to ensure nationwide public services. However, the evaluation of these subsidies has primarily focused on their extensions and appropriateness, with very few studies analyzing their socio-economic effects. Particularly, welfare policies tend to have long-term impacts that are difficult to quantify. This study aim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social welfare spending using the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analysis, a method developed in 2000 by the 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 (REDF) in the United States. This method is widely used among social impact investors in the US and Europe, especially in the UK. Specifically, the study will focus on calculating the SROI for the government subsidy project of expanding public daycare center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The "Daycare Center Expansion" project was evaluated in an extension review as "clearly necessary," as it was selected as the top childcare support policy preference by parents of young children in the 2021 Childcare Status Survey. As of the end of

Co-Researchers: Lee Ayoung, Ha Solleep, Kim Song-Yi, Pack Yun Hyun, Hwang Anna

2022, public daycare centers accounted for 18.7% of all daycare facilities, with 277,000 children enrolled, representing 25.3% of all children attending daycare centers. Therefore, the project was deemed necessary for continued implementation. However, despite these findings, the project's budget was cut due to performance indicators such as the number of expanded centers and user satisfaction. The project's effectiveness was measured using indicators such as "parent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childcare," "number of public daycare centers expanded," and "percentage of children attending public daycare centers." Due to the nature of these indicators, achieving high performance ratings has been challenging. The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analysis for the public daycare center expansion project showed a value of 1.32KRW for every 1KRW invested. This value does not simply represent money but signifies the value expressed in monetary terms. In other words, the value of the public daycare center expansion project is greater than 1, indicating that it holds significant social value.

Keywords: Social welfare sector, Government subsidies,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Social value, Public daycare center